

研究報告書 96-19

新人口推計에 의한 人口規模 및
構造變動과 政策課題

張英植
趙南勳
文顯相
卞俗榮
吳英姬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21世紀에는 우리 나라의 人口規模 및 構造에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62년부터 經濟發展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960년 6.0명에 이르던 合計出生率은 1984년에 人口代置水準인 2.1명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1987년에는 이 보다 낮은 1.6명까지 저하되었다. 최근 1993년에는 이 보다 약간 증가한 1.75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낮은 出生수준이 持續되고 있음은 최근에 統計廳에서 발표된 長期人口推計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은 낮은 出生수준의 영향으로 1960년 3.0%에 이르던 人口增加率은 점차 저하되어 1995년에는 1%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향후에도 人口增加率의 저하는 지속되어 2028년경에는 人口增加率이 0%에 이르고 그 이후는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인구는 2028년에 5277만 6천명을 頂点으로하여 減少하는 새로운 轉換點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出生수준의 저하에 따른 人口증가율의 감소는 人口構造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와 우리 나라의 人口구조는 幼少年人口 比率의 점차적인 감소와 함께 老年人口比率의 증가로 2000년경에는 老齡化 社會로 진입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노년인구 비율의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人口規模 및 構造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勞動力 問題, 老人扶養問題, 住宅問題 그리고 저출산과 선택적인 출산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性比不均衡 問題, 家口構造의 변화에 따른 문제 등이 우리가 당면하게 될 課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本 報告書는 21世紀에 맞게될 우리나라의 人口規模 및 構造變化와 이에 따른 社會·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政策代案을 摸索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本 報告書에 제시된 내용이 長期的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人口政策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하며, 人口政策을 樹立, 추진하는 정책관계관 및 學界 그리고 關聯 專門家 등에 一讀을 권하고 싶다. 本 연구는 張英植 副研究委員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本 研究에 참여한 研究陣은 다음과 같다.

序論 및 結論(張英植)

우리 나라 人口變動의 特徵(張英植·吳英姬)

向後 人口規模 및 構造展望(張英植·吳英姬)

性比不均衡의 最近 動向과 對應方案(趙南勳)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經濟的 影響(文顯相·卞倅榮·張英植·吳英姬)

研究陣은 本 報告書를 검독해준 洪文植 先任研究委員과 桂勳邦 副研究委員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收錄된 모든 내용은 研究者 個人的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次

要約	11
I. 序論	17
II. 우리 나라 人口變動의 特徵	21
1. 低出產水準의 持續	21
2. 人口의 老齡化	27
3. 獨身家口의 增加	30
4. 婚姻年齡의 上昇과 離婚率의 增加	31
III. 向後 人口規模 및 構造展望	43
1. 人口動態的 要因의 變化	44
2. 人口規模 및 構造的 變化	52
IV. 性比不均衡의 最近 動向과 對應方案	63
1. 最近의 性比不均衡 變動 推移	63
2. 性比不均衡의 社會的 餘波	66
3. 男兒選好와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미치는 要因	70
4. 性比不均衡에 대한 對應 方案	78
V.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經濟的 影響	81
1. 人口變動과 勞動力 供給	81
2. 人口의 老齡化와 老人福祉	105
3. 家口構造의 變動	126
VI. 結論	146
參考文獻	153
附錄	157

表目次

〈表 I - 1〉	新·舊人口推計의 比較	20
〈表 II - 1〉	合計出産率 變化(1960~1993)	22
〈表 II - 2〉	40歲 以上, 3子女 以上 婦人의 出産數 및 比率	24
〈表 II - 3〉	期待子女數 및 理想子女數의 變化 推移	25
〈表 II - 4〉	年齡構造의 變化(1960~1995)	27
〈表 II - 5〉	15~19歲, 20~24歲 人口의 變化推移	27
〈表 II - 6〉	主要 國家의 平均壽命 比較(1990~1995)	28
〈表 II - 7〉	扶養比 및 老齡化指數	29
〈表 II - 8〉	獨身家口 數 및 比率의 變化(1980~1995)	30
〈表 II - 9〉	年齡別 獨身家口 比率의 變化(1985~1995)	31
〈表 II - 10〉	婚姻形態의 變化推移	32
〈表 II - 11〉	平均 初婚年齡의 變化推移	34
〈表 II - 12〉	年齡別 女子의 有配偶率의 變動推移	35
〈表 II - 13〉	初産年齡의 變動推移(1980~1994)	36
〈表 II - 14〉	年齡別 男·女의 未婚率의 變動推移	37
〈表 II - 15〉	離婚率의 變化 推移(1960~1993)	38
〈表 II - 16〉	年度別 離婚事由 分布	39
〈表 II - 17〉	離婚 年齡分布 및 平均年齡	41
〈表 II - 18〉	同居期間別 離婚者의 分布	42
〈表 III - 1〉	出産水準 假定(1995~2030)	45
〈表 III - 2〉	年度別 粗死亡率 變動推移(1970~1995)	46
〈表 III - 3〉	平均壽命의 展望(1995~2030)	47

〈表 III- 4〉	年齡別 出入國者 現況(1991~1995)	48
〈表 III- 5〉	國家別(地域別) 海外移住 現況(1962~1996)	50
〈表 III- 6〉	形態別 海外移住 現況	51
〈表 III- 7〉	逆移住 現況(1980~1996)	52
〈表 III- 8〉	年度別 總人口 및 人口密度	55
〈表 III- 9〉	幼少年, 經濟活動可能人口, 老年人口의 變動 推移	56
〈表 III-10〉	生産年齡人口의 變動推移(1960~2030)	57
〈表 III-11〉	學齡人口의 變動推移	61
〈表 III-12〉	年度別 總人口 및 可妊女性人口의 變化 推移	62
〈表 IV- 1〉	出產順位別 出生性比	65
〈表 IV- 2〉	初等學校 學生의 學年別 性比(1996)	67
〈表 IV- 3〉	年度別 結婚年齡 人口의 性比變動推移 (1995~2020)	67
〈表 IV- 4〉	人工妊娠中絶 推定件數	69
〈表 IV- 5〉	婦人의 男兒選好度에 따른 社會經濟的 特性	71
〈表 IV- 6〉	性選擇 人工妊娠中絶 經驗婦人과 無經驗婦人의 特性 比較	72
〈表 IV- 7〉	男兒選好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二變量 프로빗 分析	75
〈表 V- 1〉	經濟活動人口 變動(1970~1995)	82
〈表 V- 2〉	勞動力의 構成 變化	84
〈表 V- 3〉	生産年齡人口(15~64歲) 增加率 鈍化	86
〈表 V- 4〉	老年人口(65歲 以上)의 增加	87
〈表 V- 5〉	生産年齡人口의 年齡階層別 增加率	88
〈表 V- 6〉	就業女性의 職業(1995)	89
〈表 V- 7〉	大學生數의 增加 推移(1970~1990)	90

〈表 V-8〉	農村人口와 農漁家 人口의 減少 展望	91
〈表 V-9〉	우리 나라에 滯在하는 單純技能 外國人力	92
〈表 V-10〉	2000年 先進國과 人口構造 比較	93
〈表 V-11〉	有配偶 就業女性의 職業과 年齡構成(1980~1990)	95
〈表 V-12〉	託兒需要 推定(1995)	96
〈表 V-13〉	高齡者의 職種別 就業 現況	101
〈表 V-14〉	老人能力銀行 職種別 就業斡旋 實績(1994)	103
〈表 V-15〉	人口老齡化 速度의 國際比較	107
〈表 V-16〉	平均餘命의 推移 및 向後 展望	107
〈表 V-17〉	年齡別 期待餘命 推移	108
〈表 V-18〉	老齡化 指標의 變化 推移	109
〈表 V-19〉	老人의 性比 推移	110
〈表 V-20〉	老人의 年齡別 婚姻狀態	112
〈表 V-21〉	60歲 以上 老人의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112
〈表 V-22〉	老人의 就業欲求(1994)	113
〈表 V-23〉	家口類型別 老人家口 比率(1990)	116
〈表 V-24〉	老人의 世代構成別 家族形態(1990)	117
〈表 V-25〉	老人單獨家口의 分布 및 子女와의 別居希望 與否	118
〈表 V-26〉	既婚母의 結婚코호트 및 住居地域別 家族週期의 段階別 期間	120
〈表 V-27〉	人口 및 家口의 年平均 增加率 比較	127
〈表 V-28〉	世代構成別 一般家口 및 核家族 數의 變化 (1960~1995)	128
〈表 V-29〉	世代構成別 一般家口 및 核家族 比率의 變化 (1960~1995)	129
〈表 V-30〉	平均 家口員 數	130

〈表 V-31〉	家口員數別 構成分布(一般家口)	131
〈表 V-32〉	地域別 家口員數 構成分布의 變化(一般家口)	132
〈表 V-33〉	世代構成別 65歲 以上 一般家口 및 核家族數의 變化	133
〈表 V-34〉	獨身家口의 變動推移	134
〈表 V-35〉	地域別 獨身家口의 變動 推移	135
〈表 V-36〉	住宅普及率의 變化 推移	137
〈表 V-37〉	地域別 住宅普及率의 變化 推移	137
〈表 V-38〉	地域別 住宅 占有形態(1995)	138
〈表 V-39〉	世代別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140
〈表 V-40〉	夫婦家口의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141
〈表 V-41〉	夫婦+未婚子女 家口의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142
〈表 V-42〉	偏父+未婚子女 家口의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142
〈表 V-43〉	偏母+未婚子女 家口의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143

附表目次

〈附表 1〉	1995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59
〈附表 2〉	1996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0
〈附表 3〉	1997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1
〈附表 4〉	1998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2
〈附表 5〉	1999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3
〈附表 6〉	2000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4
〈附表 7〉	2005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5
〈附表 8〉	2010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6
〈附表 9〉	2015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7
〈附表 10〉	2020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8
〈附表 11〉	2025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69
〈附表 12〉	2030年 年齡階級 男 性別 推計人口	170

要約

統計廳에서 최근 발표한 1995년도 人口住宅總調査 결과에 기초한 新人口推計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인구규모는 1995년 4509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오천만명을 넘어선 5007만명에 이르고 2028년에는 5278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룬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0년 人口住宅總調査에 의한 종래의 인구추계와 비교해 볼 때, 人口增加가 정지(0%)되는 시기는 2021년에서 7년이 늦어지고, 최대 인구규모는 219만명이 많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人口變動의 原因은 주로 인구추계시 이용된 出産率假定의 差異에 기인한 것이다. 즉 종래의 인구추계에서는 향후 합계출산율이 1.63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假定하였으나, 新人口推計에서는 최근의 출산수준(1.7~1.8)을 감안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出産水準의 變化는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급속한 人口의 老齡化를 지연시키고,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보고서는 新人口推計에 의한 우리 나라 人口規模 및 構造 變動의 특징과 社會·經濟的 影響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對應方案을 提示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新人口推計에 의한 人口變動의 樣相

우리 나라의 인구변동의 특징은 低出産水準의 持續에 따른 人口의 老齡化, 생산년령인구의 증가율 둔화 그리고 出生性比의 不均衡, 獨身

家口의 증가, 初婚年齡 및 初産年齡의 上昇, 저연령층의 미혼 비율의 증가, 離婚率의 增加, 學齡人口의 減少, 可妊女性人口의 減少 등으로 略述될 수 있다.

- 65세 이상 老年人口 比率은 1995년 5.9%에서 2000년에는 7.1%로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2022년에는 14.3%로 그리고 2030년에는 19.3%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老年扶養比는 1995년 8.3에서 2000년에는 10.0, 그리고 2022년에는 20.8, 2030년에는 29.8로 증가하여 老年人口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 15~64세의 生産年齡人口는 1995년 3190만명에서 2018년에는 3655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生産年齡人口의 증가율 둔화에 따라 2000~2010년대 중반에는 勞動力 供給의 부족이 예상된다.
- 우리 나라의 出生時 性比(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970년 109.5명에서 1990년에는 116.6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1995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113.4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出生性比의 不均衡은 結婚適齡人口의 性비불균형으로 이어져 結婚適齡人口의 性比는 1995년에는 100.0명(여성 100명당 남자의 수)으로 남자와 여자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2010년에는 123.4명으로 증가하여 結婚適齡 人口의 性比不均衡이 가장 심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獨身家口(1人家口)의 비율은 1980년 4.8%에서 1995년에는 12.7%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獨身家口의 增加原因은 직장생활을 위한 젊은 층의 都市에서의 獨身家口 증가와 農村에서 젊은층의 도시이주로 인해 老人獨身家口의 증가 현상 때문이다.

- 男女의 初婚年齡은 1981년 남자 26.4세, 여자 23.2세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4년에는 남자 28.4세, 여자 25.3세로 증가하였다.
- 初婚年齡의 上昇과 함께 平均初産年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24.4세에서 1994년에는 25.9세로 증가하여 1.5세의 증가를 보였다.
- 離婚率은 1970년 0.37건(인구 천명당)에서 1993년에는 1.1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學齡人口(6~21세)는 出産水準 低下의 影響으로 1980년경부터 감소하여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저출산수준의 지속에 따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學校級別 學齡人口는 初等學校는 1970년경 이후부터, 中學校와 高等學校는 1980년 이후부터 그리고 大學校는 1990년경 이후부터 감소하여 오고 있다. 대학교 학령인구는 1995년 322만 5천명에서 2030년에는 243만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出産兒 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可妊女性(15~49세) 人口規模는 1995년에는 1286만명에서 2000년에는 1340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10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生産能力이 높은 연령층인 20~34세 연령층은 1960년 294만명에서 1995년에는 631만명으로 최고수준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46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可妊女性人口의 減少는 出生兒 數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人口變動에 따른 政策課題

- 生産年齡人口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국면에 대처하고, 福祉增進을 위하여 女性人力의 經濟活動 參與 增大와 老齡人口의

活用을 적극적으로 피하므로서 노동력 부족과 복지증대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就業女性을 위한 保育施設의 확대, 高齡者를 위한 停年延長과 再就業, 고령자 의무고용, 영농 재교육, 고령자 공동작업장 설치, 人才銀行을 이용한 高齡 高級人力의 活用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에 이룰수록 사망수준이 개선되고 出生子女數가 減少됨에 따라 자녀결혼 완료 이후 夫婦만이 생활하는 기간과 남편 사망후 미망인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이 기간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老人人口에 대한 保健醫療서비스와 在家福祉서비스 등 각종 社會福祉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統計廳에서 新人口推計시 적용한 출생시 성비는 1995년 113.4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정상출생성비인 107.0명에 이룬후 그 이후는 동일한 수준으로 持續되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상출생성비로 낮아지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出生性比 不均衡의 緩和를 위하여는 性鑑別 禁止의 지속적인 처벌 강화와 國民의 男兒選好觀 拂拭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각종 男兒選好를 조장하는 社會制度 및 規範의 개선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증가하는 老人夫婦家口 및 獨身家口를 위한 社會支援施策의 마련과 자활능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家口形態의 變化에 따라 주택수요는 인구증가를 앞질러 증가할 것이며, 住宅形態도 獨身家口에 적합한 원룸주택, 독신노인 및 노인부부에 적합한 주택 및 賃貸住宅의 증가 등 가구형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住宅供給이 요구된다.

3. 向後の 政策方向

- 政府에서는 1996년 6월 안정된 人口構造를 위해 合計出産率은 人口代置水準으로 유지하고 人口資質 및 福祉増進으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新人口政策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 전환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社會支援施策의 전환시 일부에서 우려하였던 出産率의 증가 조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新人口政策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人口資質 向上과 福祉増進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人口政策 추진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新人口推計에서 合計出産率은 1.7~1.8명 수준으로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력 수준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출산력 변동에 관한 시계열적인 관찰과 더불어 家族計劃의 質的 改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에 이르는 人工妊娠中絶의 예방을 위하여 모자보건을 포함한 出産健康 서비스의 질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靑少年 性問題 解決을 위하여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환경을 개선하며, 學校 및 産業體를 통한 性教育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獨身家口 및 老齡人口의 增加, 女性經濟活動의 增加, 家族機能의 弱化 등에 대비한 인구정책은 家庭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과 통합추진하여 삶의 質 向上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현재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勞動力 不足 특히 3D 業種의 노동력 부족은 점차 심화되고 國際化 및 世界化 추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人權과 處遇 面에서 국제적인 มาตรฐาน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長短期 人力 需給計劃의 수립과 더불어 외국 근로자의 국내취업을 위한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 ④ 出生時 性比不均衡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性鑑別 行爲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강화와 國民의 男兒選好 拂拭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남아선호를 불식시키기 위한 社會制度 改善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⑤ 인구정책이 人口의 量的調節 位에서 人口資質 向上과 福祉增進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은 中央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와 협조하여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中央 및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支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家族計劃은 더 이상 인구억제 수단이 아닌 家族福祉와 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수단임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I. 序論

우리 나라의 出産水準은 1960년에 合計出産率이 6.0명으로 피임 사용이 전무한 거의 자연상태에 가까운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을 위한 인구억제의 필요성에 따라 家族計劃事業의 추진 이후 출산수준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4.5명으로 그리고 1980년에는 2.7명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1984년에는 人口代置水準인 2.1명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수준의 저하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1987년에는 1.6명 수준까지 저하되었다.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多産多死의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구구조에서 少産少死의 先進國型 人口構造로 바뀌어 인구전환을 이룩한 것이다. 1993년의 合計出産率이 1.75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995년의 合計出産率도 1.74명으로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避妊實踐率은 1994년 현재 77.4%로 선진국과 같은 낮은 출산수준과 높은 피임실천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出産水準의 持續과 고도 경제성장으로 우리 나라는 産業勞動力不足, 老年人口의 增加, 男女 性比不均衡 등과 같은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向後 人口政策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출산조절이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아닌 人口의 資質과 삶의 質 向上에 역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1996년 6월에 新人口政策을 채택 추진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1996).

新人口政策의 추진에 따라 일부에서는 出産率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고, 新人口推計에서도 향후 출산수준은 人口代置水準 以下로 現水準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低出生率이 지속되고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人口構造는 저연령층의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人口의老齡化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老齡化는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을 둔화시켜 勞動力供給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老人勞動力 및 女性勞動力의 活用은 노동력 부족의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老人들에 대한 扶養負擔이 크게 증가하나 핵가족화로 인해 家族內에서의 노인 부양부담 기능은 약화되어 公共部門에서의 福祉負擔은 가중될 전망이다.

出生率이 人口代置水準 以下로 낮아지면서 나타난 것이 出生性比의 不均衡이다. 少子女觀은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빠르게 정착된 반면, 男兒選好觀은 불식되지 못함에 따라서 적은 자녀를 가지면서도 願하는 性을 가지려는 욕구가 性鑑別 및 人工妊娠中絶을 통해 인위적인 性選擇의인 出生率으로 이어져 出生性比의 不均衡을 심화시켰다.

家口構造는 出生率의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구규모는 감소하고 多世代家口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獨身家口의 比率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獨身家口의 증가는 미혼 獨身家口와 離婚이나 배우자 사망 등에 의한 노인을 포함한 기혼 獨身家口의 增加를 의미한다. 또한 獨身家口의 증가는 未婚이나 既婚이나 生活樣相의 變化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경제력과 활동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의 獨身家口는 국가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경제력과 활동능력이 떨어지는 老人家口의 增加는 결국은 國家의 福祉負擔을 가중시킬 것이다.

女性の 經濟活動增加에 따라 獨身女性の 增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연령층에서의 미혼 비율의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는 出産行態와 生活樣相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저연령층의 미혼비율 증가가 높은 연령층으로 이어져 독신여성의 증가를 초래할 경우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離婚率의 增加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이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變化와 原因 그리고 對處方案을 摸索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1世紀에는 증가추세에 있던 人口도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등 人口規模 및 構造 그리고 家口形態와 結婚樣相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구증가억제에 치중하였던 인구정책이 人口의 資質 向上을 위한 質的 向上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보다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人口變動의 特徵과 向後 變化하게 될 人口變化의 特性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시 1.63명의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출산수준이 1993년 이후 1.75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추계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新人口推計는 舊推計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한 新人口推計에서는 우리 나라의 人口規模가 1995년 4509만 3천명에서 2028년에는 5277만 6천명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舊推計에서 예상한 최대규모인 2021년의 5058만 6천명과는 219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시기는 7년이 늦추어졌다.

〈表 I -1〉 新·舊人口推計의 比較

구 분	신인구추계 ¹⁾	구인구추계 ²⁾
인구규모(천명)		
1995년	45,093	44,851
2010년	50,618	49,683
2020년	52,358	50,578
2030년	52,744	50,014 ³⁾
인구구조(%)		
<u>1995년</u>		
0~14세	23.4	23.2
15~64세	70.7	71.1
65세 이상	5.9	5.7
<u>2020년</u>		
0~14세	17.2	16.0
15~64세	69.6	71.5
65세 이상	13.2	12.5
인구성장률 0% 달성시기	2028년	2021년
0% 달성시 인구규모(최대)	5277만 6천명	5058만 6천명
출산수준(합계출산율) 가정	1995년 1.74 2000년 1.71 2005년 1.71 2010년 1.74 2015년 이후 1.80	1990년 이후 1.63 지속

資料: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_____, 『장래인구추계』, 1991.

3) _____,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1993.

II. 우리 나라 人口變動의 特徵

최근의 인구변동의 특징은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低出産水準의 持續과 이에 따른 人口의 老齡化와 生産年齡人口 增加率의 둔화, 그리고 婚姻年齡의 上昇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有配偶率의 低下와 가족의 해체, 독신자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촉진 등으로 인한 獨身家口의 增加, 인위적인 선택출산의 성행으로 인한 出生性比의 不均衡 등을 들 수 있다. 本章에서는 이들 變化의 特徵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低出産水準의 持續

가. 出産水準의 變化

우리 나라의 출산수준의 전환점은 家族計劃事業이 政府事業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가족계획을 위한 避妊實踐이 거의 전무하여 出産水準은 자연상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이후 社會·經濟發展과 더불어 출산수준은 빠르게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즉 1960年の 合計出産率은 6.0명이었으나 1962년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이후 빠르게 저하되어 1984년에는 人口代置水準인 2.1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 출산수준은 더 낮아져 1987년에는 1.6명 수준까지 저하되었다. 199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1.75명을, 그리고 1995년에도 1.74명 수준을 보이고 있어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낮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100년 가까이 걸쳐 이루어진 多産多死에서 少産少死로

의 인구전환이 우리 나라에서는 2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빠른 出生率의 低下는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과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식 및 생활수준의 변화로 少子女觀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人口構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낮은 출산수준의 지속은 저연령층의 인구비율의 감소와 노년인구층 비율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의 후진국형 인구구조에서 鍾型의 중간변환과정을 거쳐 점차 弧型의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人口의 總量的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의 인구는 人口代置水準이하의 출산수준지속으로 2028년 이후에는 인구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人口代置水準일 때 3世代가 경과한 60년 이후에 인구는 정체되나, 우리 나라는 이보다 낮은 출산수준으로 인해 人口代置水準에 도달한 1984년에서 44년이 경과한 2028년경에 인구증가율이 0%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 II-1〉 合計出生率 變化(1960~1993)

(단위: 명)

연도	1960 ¹⁾	1966 ¹⁾	1974 ¹⁾	1982 ¹⁾	1984 ¹⁾	1987 ¹⁾	1990 ¹⁾	1993 ¹⁾	1995 ²⁾
TFR	6.0	5.3	3.6	2.7	2.1	1.6	1.6	1.75	1.74

資料: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65.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p.26.

나. 40代 女性의 出生樣相의 變化

高年齡層의 出生양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까? 이는 최근

일부에서 출산터울이 긴 高年齡層의 출산이 많아져 출산율과 出生性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들 연령층의 出產樣相 變化를 파악해 보았다.

우선 40代 可妊女性人口의 變動을 살펴보면 40~44세 여성은 1980년 106만 8천명이었으나 점차 많아져 1994년에는 137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45~49세 연령층의 여성인구도 1980년 89만 6천명에서 점차 많아져 1994년에는 115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可妊女性數의 증가는 같은 출산수준이라면 출산아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들 연령층에서 출산한 아이중 3번째 출산 이상인 아이수는 1980년 40~44세 연령층에서 13,121명, 45~49세 연령층에서 4,063명이었으나 可妊女性人口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는 각각 1,044명과 9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들 연령층의 출산아수 감소는 출산율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령층의 출산이 전체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02%에서 1985년에는 0.27%로 감소하였고, 1994년에는 0.16%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령층의 소위 늦둥이 出產 傾向은 극히 일부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經濟的으로나 時間的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여 추가자녀를 갖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늦은 출산에 따른 危險負擔, 子女養育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의 증가, 노후 의지에 대한 기대 감소 등 많은 제약요인들로 인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 II-2〉 40歲 以上, 3子女 以上 婦人의 出産數 및 比率

(단위: 명, %)

연 령	1980 ¹⁾	1985 ¹⁾	1990 ²⁾	1992 ²⁾	1994 ²⁾
40~44세	13,121	1,403	911	907	1,044
45~49세	4,063	306	130	111	92
50세 이상	807	17	67	52	11
계	17,991	1,726	1,108	1,070	1,147
비 율	2.02	0.27	0.18	0.15	0.16

註: 비율=40세 이상 부인의 출산아 수/전체부인의 출산아 수

資料: 1) 통계청, 『1989년 인구동태통계연보』, 1990.

2) _____, 『1994년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다. 低出産의 持續可能性

出産水準은 可妊年齡層에 있는 부인들의 出産意向에 따라 크게 좌우 된다. 부인들의 출산의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期待子女數(현재의 자녀수에 향후 더 낳으려고 계획한 자녀수를 합한 자녀수)와 理想子女數(가장 理想的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를 들 수 있다. 이들 변수는 出産水準과 正(正)의 相關關係를 가지고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출산수준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有配偶婦人들이 갖고 있는 期待子女數는 1976년 3.4명에서 지속적인 저하를 보여 1994년에는 2.1명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수준은 1980년 이전까지는 出産수준(合計出産率)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出産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시점은 人口代置水準에 도달한 1984년을 전후한 시점이며, 期待子女數는 人口代置水準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人口代置水準인 2.1명 정도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들어 기대자녀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理想子女數가 期待子女數보다 높아진 것은 向後 出産

水準이 變化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理想子女數는 연령 코호트(Cohort)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年度의 흐름에 따라 恒시 變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2년과 1988년의 연령별 理想子女數를 비교해보면, 1982년의 25~29세 연령층은 2.2명이었으나, 거의 동일한 연령코호트인 1988년 30~34세 연령층은 2.0명으로 低下되었다. 이는 어느 코호트연령의 이상자녀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社會·經濟·文化 등의 變化에 의해 함께 變化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出生調節의 가능성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表 II-3〉 期待子女數 및 理想子女數의 變化 推移

(단위: 명)

연령	1976		1982		1988		1994	
	기대 자녀수	이상 자녀수	기대 자녀수	이상 자녀수	기대 자녀수	이상 자녀수	기대 자녀수	이상 자녀수
15~24	2.2	2.4	2.0	2.1	1.6	1.8	1.9	2.0
25~29	2.6	2.5	2.3	2.2	1.8	1.9	2.0	2.1
30~34	3.3	2.8	2.7	2.5	2.2	2.0	2.0	2.2
35~39	3.9	3.0	3.2	2.6	2.5	2.0	2.2	2.3
40~44	4.4	3.2	3.9	2.9	2.9	2.1	2.5	2.3
계	3.4	2.8	2.8	2.5	2.2	2.0	2.1	2.2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해당 연도

라. 低出生의 持續에 따른 年齡構造의 變化

低出生의 지속은 人口構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多産多死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형의 人口구조는 出生율이 低下되고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鐘型으로 變化되어가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진국형이라고 하는 弧型으로 變化하여 간다. 우리 나라의 人口구조는 1960년에는 후진국형인, 즉 저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연령층의 비율이 낮은 피라미드형의 人口구조이었으나 出生율이 低下하면서 人口구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저연령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여 1980年代에는 鐘型으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점차 先進國型 人口構造인 항아리형태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형 인구구조인 항아리형으로 변화하여 간다는 것은 幼少年人口 比率의 減少와 老年人口 比率의 增加로 특징지워지는 점차 人口가 老齡化되어 감을 의미한다. 즉 0~14歲 幼少年人口 比率은 낮은 출산수준의 지속으로 계속 저하되어 1960년 42.3%에 이르던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 비율은 1980년에는 34.0%로 그리고 1995년에는 23.4%로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이어져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以上の 老年人口 比率은 平均壽命의 延長과 出産率의 減少로 그 비율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1960년 2.9%에 불과하던 老年人口의 비율이 1980년에는 3.8%로 그리고 1995년에는 5.9%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64세 生産年齡人口는 1960년 54.8%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는 62.2%로 그리고 1995년에는 70.7%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비율의 증가는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幼少年人口의 비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비율의 증가와 平均壽命의 연장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生産年齡人口의 變化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生産年齡 진입 연령층인 15~19세 연령층의 인구가 1980년 452만명에서 1990년에는 444만 2천명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389만 7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生産年齡層의 인구가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生産年齡人口의 比率은 增加한다고 하여도 생산연령층 인구중 低年齡層의 人口 比率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生産年齡人口의 平均年齡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表 II-4〉 年齡構造의 變化(1960~1995)

(단위: %)

연령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²⁾	1995 ²⁾
0~14세	42.3	42.5	34.0	25.6	23.4
15~64세	54.8	54.4	62.2	69.3	70.7
65세 이상	2.9	3.1	3.8	5.1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2) _____, 『장래인구추계』, 1996.

〈表 II-5〉 15~19歲, 20~24歲 人口의 變化推移

(단위: 천명)

연도	15~19세			20~24세		
	남	여	계	남	여	계
1960 ¹⁾	1,248.9	1,169.5	2,418.4	1,171.4	1,151.3	2,322.7
1970 ¹⁾	1,688.2	1,581.1	3,269.3	1,314.8	1,254.2	2,569.0
1980 ¹⁾	2,344.0	2,175.7	4,519.7	2,078.1	2,015.3	4,093.4
1990 ²⁾	2,289.4	2,152.6	4,442.0	2,237.5	2,104.9	4,342.4
1995 ²⁾	2,010.2	1,886.8	3,896.9	2,259.6	2,132.0	4,391.6

資料: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0~1985년 추계인구』, 1988.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人口의 老齡化

가. 老年人口 比率의 增加

人口의 老齡化는 出生수준의 低下에 따른 幼少年人口 比率의 減少와 保健 및 生活水準의 향상에 따른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老人人口의 比率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결과이다. 즉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낮은 出生수준의 지속에 따라 幼少年人口 比率이 감소하고 老年人口 比率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平均壽命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老齡化 社會로의 轉換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인구 비율은 1960

년 2.9%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5.9%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증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平均壽命의 延長

우리 나라의 平均壽命은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生活水準의 向上과 保健醫療水準의 향상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다. 1966年 男·女의 平均壽命은 각각 59.7세, 64.1세이였으나 그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3년에는 남자 63.8세, 여자 72.2세로 증가하였으며, 1991년에는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3). 이와 같은 수준은 일본 등과 같은 先進國(1990~1995년 기간중 남자 70.6세, 여자 78.1세: UN, 1995)에는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다. 향후 平均壽命은 保健水準 및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先進國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表 II-6〉 主要 國家의 平均壽命 比較(1990~1995)

(단위: 세)

국가	평균수명			국가	평균수명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일본	79.5	76.4	82.5	한국	71.6	67.7	75.7
미국	76.0	72.5	79.3	중국	68.5	66.7	70.4
영국	76.2	73.6	78.7	말레이시아	70.8	68.7	73.0
프랑스	76.9	73.0	80.8	인도네시아	62.7	61.0	64.5
덴마크	75.3	72.5	78.2	브라질	66.3	64.0	68.7
독일	76.0	72.7	79.0	불가리아	71.2	67.8	74.9
스웨덴	78.2	75.4	81.1	방글라데시	55.6	55.6	55.6

資料: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5.

통계청, 『1991년 생명표』, 1993.

다. 老年扶養比의 增加

저출산의 지속으로 幼少年人口 比率이 減少하고 노년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감소하는 반면, 老年扶養比는 增加하고 있다. 즉 1960년의 幼少年扶養比는 77.3으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는 33.0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老年扶養比는 1960년 5.3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8.3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幼少年扶養比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老年扶養比의 증가는 幼少年扶養比의 증가폭보다는 적어 전체적인 부양비는 1960년 82.6에서 1995년에는 41.4로 감소하였다. 老年人口에 대한 幼少年人口의 比인 老齡化指數는 1960년 6.9에서 1995년에는 25.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老人扶養負擔이 커지고 이와 함께 都市化와 産業化의 영향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분리의 가속화는 老人家口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는 老人扶助制度가 빈약한 실정에서 국가의 福祉負擔을 가중시킬 것이다. 國民年金制度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年金受惠期間이 길어지고,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여 國民年金財政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表 11-7〉 扶養比 및 老齡化指數

연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60	82.6	77.3	5.3	6.9
1970	83.8	78.2	5.7	7.2
1980	60.7	54.6	6.1	11.2
1990	44.3	36.9	7.4	20.0
1995	41.4	33.0	8.3	25.2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또한 老人性 疾患의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치료 기간도 길어 醫療費의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의 재정수지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老人保健 및 福祉向上을 위한 老齡手當支給의 現實化,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노인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한 적절한 職種の 開發, 정년연장, 生業支援對策 마련 등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3. 獨身家口의 增加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速報에 의한 인구 및 가구변동의 특징 중 하나는 獨身家口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獨身家口의 增加原因은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 증가와 結婚觀의 變化, 그리고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獨身家口의 증가와 농촌의 老人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獨身家口가 차지하는 比率은 1990년 9.0%에서 1995년에는 12.7%로 증가하였다. 가구수로는 1990년 102만 2천가구에서 1995년 165만가구로 증가하여 61.5%나 증가한 것이다.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8〉 獨身家口 數 및 比率의 變化(1980~1995)

(단위: 천가구, %)

구분	1980 ¹⁾	1985 ¹⁾	1990 ²⁾	1995 ³⁾
독신가구	382.7	660.9	1,021.5	1,650.0
독신가구비율	4.8	6.9	9.0	12.7

資料: 1)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해당 연도

2) _____,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2.

3) _____, 『199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속보』, 1996.

獨身家口의 比率을 年齡別로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과 노인연령층에서의 獨身家口數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5년 23만 가구에 불과하던 20~29세 연령층의 獨身家口數는 1995년에는 두 배를 약간 넘는 46만 6천가구로 증가하여, 전체가구에 대한 獨身家口의 비율이 1985년 15.4%에서 1995년에는 31.9%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老齡人口의 獨身家口도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獨身家口는 1985년 11만 5천가구였으나, 1995년에는 세 배가 되는 35만 8천가구로 증가하여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도 1985년 16.9%에서 1995년에는 28.7%로 증가하였다. 이들 변화를 볼 때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속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에는 못미치지만 獨身家口 規模 및 比率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老齡人口層에서는 獨身家口 規模 및 比率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9〉 年齡別 獨身家口 比率의 變化(1985~1995)

(단위: 천가구, %)

구분	20~29세			65세 이상		
	1985 ¹⁾	1990 ¹⁾	1995 ²⁾	1985 ¹⁾	1990 ¹⁾	1995 ²⁾
독신가구수	229.9	340.3	466.3	114.6	192.6	358.2
비율	15.4	22.4	31.9	16.9	20.0	28.7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해당 연도

2) _____, 『199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속보』, 1996.

4. 婚姻年齡의 上昇과 離婚率의 增加

가. 婚姻形態의 變化

男女의 婚姻形態는 과거에는 남녀가 모두 初婚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점차 그 양상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즉 1970年の 結婚形態는

91.5%가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남자가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인 경우로 4.1%였고,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3.5%였다. 이와 같은 결혼형태별 분포는 초혼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남·여의 재혼의 결혼 형태에서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男子가 再婚이고 女子가 初婚인 경우는 1970년 4.1%에서 점차 감소하여 1980년에는 3.5%로 그리고 1994년에는 2.6%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男子가 初婚이고 女子가 再婚인 경우는 1970년에 0.9%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1.2%로 그리고 1994년에는 2.3%로 증가하여 남자가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인 경우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여자가 재혼이고 남자가 초혼인 경우는 비율면에서는 적지만은 우리의 전통적인 慣習에서 벗어난 형태의 결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西洋文物의 영향과 점차 結婚適齡人口의 性比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 어려운 남자의 경우 再婚女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表 II-10〉 婚姻形態의 變化推移

(단위: %)

연도	계	초혼-초혼		재혼-초혼		초혼-재혼		재혼-재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0	100.0	91.5	4.1	0.9	3.5				
1975	100.0	92.6	3.6	0.8	3.0				
1980	100.0	92.2	3.5	1.2	3.1				
1985	100.0	90.6	3.7	1.7	4.0				
1990	100.0	89.8	3.4	2.4	4.4				
1994	100.0	90.9	2.6	2.3	4.2				

資料: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p.389.

男女 모두 再婚인 경우는 1970년 3.5%에서 1980년에는 3.1%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4년에는 4.2%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혼의 증가 현상과 사별한 남녀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男女 初婚 以外の 結婚比率의 增加는 開放化된 서양문물의 영향과 社會의 男女 平等化 그리고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事故死의 增加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初婚年齡의 上昇

正常的인 子女出産은 대부분이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결혼시기는 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結婚時期는 時代의 社會環境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 나라 남·여의 초혼연령은 점차 증가하여 왔다. 즉 우리 나라 男女의 初婚年齡은 1981년 남자 26.4세, 여자 23.2세였으나, 1994년에는 남자가 28.4세, 여자가 25.3세로 높아져 남자는 2.0세, 여자는 2.1세가 많아졌다. 1981년 이후 여자의 초혼연령과 남자의 초혼연령은 상승속도가 비슷하여 3.0세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즉 男女의 初婚年齡의 差는 1981년 3.2세에서 1985년에는 2.9세로 그 차이가 좁혀졌으나 다시 증가하여 1991년 이후 3.1세를 유지하고 있다. 初婚年齡의 上昇에는 教育水準의 向上, 經濟活動의 增加, 그리고 結婚 및 子女觀의 變化 등 社會·經濟的 要因의 變化가 많은 작용을 하였다.

그 하나인 教育年數의 變化를 보면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속해있는 20~29세 연령층의 교육년수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1970년 남자 8.8년, 여자 7.5년이던 20~29세 연령층의 教育年數는 1980년 남자 10.3년, 여자 9.4년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남자 12.3년, 여자 11.8년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통계청, 1995: 109).

초혼연령 상승요인의 또 다른 하나는 女性의 經濟活動 增加이다. 1965년 37.2%이던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80년에는 42.8%로 증

가하였고 1990년에는 47.0%로 증가하였다. 25년 동안 약 10%포인트 정도의 經濟活動參加率이 증가한 것이다. 女性の 就業分野도 단순 노동직에서 점차 전문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80년 전문·기술·행정관리 직 종사자는 3.6%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5.4%로 그리고 1990년에는 7.7%로 증가하였다. 반면 農林·水産業從事者는 1980년 39.0%에서 1985년 27.6%로 그리고 1990년에는 20.4%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勞働部, 1994: 30). 그 외에 女性の 初婚年齡 上昇要因으로는 都市化率의 增加이다. 초혼년령이 市部와 郡部 間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혼년령이 높은 市部の 比率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는 초혼년령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화율은 1960년 28.0%에서 1980년 57.3%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4.4%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1: 29).

〈表 II-11〉 平均 初婚年齡의 變化推移

(단위: 세)

연도	남자	여자	차이
1981	26.4	23.2	3.2
1985	27.0	24.1	2.9
1986	27.1	24.3	2.8
1987	27.3	24.5	2.8
1988	27.5	24.6	2.9
1989	27.8	24.8	3.0
1990	27.9	24.9	3.0
1991	28.0	24.9	3.1
1992	28.1	25.0	3.1
1993	28.2	25.1	3.1
1994	28.4	25.3	3.1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p.30.

초혼년령의 상승으로 低年齡層의 有配偶率은 꾸준히 저하되어 왔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저연령층의 유배우율을 낮추고 이는 출산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出産力이 높은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有配偶率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즉 20~24세 연령층 여성의 有配偶率은 1960년 49.9%에서 1995년에는 16.8%로 저하되었고, 25~29세 연령층은 91.8%에서 70.4%로 저하되었다.

〈表 II-12〉 年齡別 女子의 有配偶率의 變動推移

(단위: %)

연령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²⁾	1995 ³⁾
15~19세	2.4	2.8	1.7	0.5	0.8
20~24세	49.9	42.3	33.7	19.5	16.8
25~29세	91.8	88.4	84.9	77.3	70.4
30~34세	92.4	94.6	94.3	92.4	91.7
35~39세	89.1	92.0	93.4	92.8	92.3
40~44세	83.7	84.8	90.1	90.3	90.1
45~49세	76.6	76.8	83.1	86.1	86.6

資料: 1)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해당 연도

2)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1992.

3)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첫번째 아이를 出産한 母의 年齡을 보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도에 첫번째 아이를 출산한 婦인의 平均年齡은 24.4세였으나 1982년에는 약간 저하된 23.7세를 나타내었고, 그 이후 꾸준한 증가현상을 보여 1990년에는 25.4세로 그리고 1994년에는 25.9세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初産年齡의 증가는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初婚年齡 상승의 영향이 출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表 II-13〉 初産年齢의 變動推移(1980~1994)

(단위: 세)

연도	평균초산연령	연도	평균초산연령
1980	24.4	1988	25.0
1982	23.7	1990	25.4
1984	24.1	1992	25.6
1986	24.6	1994	25.9

資料: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0, 1995.

또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速報에서 나타난 특징중의 하나는 未婚率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男性의 경우 25~29세 연령층의 未婚率은 1980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 1980년에는 45.2%였으나 1990년에는 57.3%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12.1%포인트의 증가를 보였으며, 1995년에는 다시 6.8%포인트가 증가한 64.1%의 未婚率을 나타내고 있다. 30~34세 연령층도 최근에 이를수록 未婚率이 증가하고 있다. 즉 1980년 7.3%에 불과하던 未婚率은 1985년에는 9.4%로 2.1%포인트가 증가하였으나, 1990년에는 13.9%로 그리고 1995년에는 19.3%로 증가하여 최근에 이를수록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35~39세 연령층은 1980년에서 1990년간 동안은 2.1%포인트의 적은 증가를 보였으나, 1990년에서 1995년 기간중에는 2.9%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25~34세 연령층 만큼의 증가폭은 아니지만 점차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女性의 경우는 25~29세 연령층의 未婚率 增加 現象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1980년 14.1%이던 未婚率은 1990년에는 22.1%로 그리고 1995년에는 29.0%로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속도에는 못미치지만 역시 최근에 이를수록 빠른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다.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작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男性의 경우 25~34세 연령층에서 그리고 女性의 경우는 25~29세 연령층에서 미혼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未婚率의 증가원인은 女性의 經濟活動 增加에 따른 결혼의 지연, 독신주의의 증가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未婚率의 증가현상이 높은 연령층으로 이어질 경우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出生率 低下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表 II-14> 年齡別 男·女의 未婚率의 變動推移

(단위: %)

연령	1975 ¹⁾	1980 ¹⁾	1985 ¹⁾	1990 ²⁾	1995 ³⁾
남자					
25~29	47.0	45.2	50.7	57.3	64.1
30~34	7.0	7.3	9.4	13.9	19.3
35~39	1.4	1.7	2.7	3.8	6.7
여자					
25~29	11.8	14.1	18.4	22.1	29.0
30~34	2.1	2.7	4.2	5.3	6.4
35~39	0.7	1.0	1.6	2.4	3.1

資料: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해당 연도
 2)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1992.
 3)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다. 離婚率의 增加

都市化와 産業化 그리고 西歐文化의 流入에 따른 生活樣相의 變化와 女性의 經濟活動 增加에 따른 여성의 자립능력 향상 등은 점차 結婚觀을 변화시켜 원치 않는 결혼생활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離婚率이 최근에 이를 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1970년 0.37(人口 千名當 離婚數)이던 粗離婚率은 1980년에는 0.61로 증가하였고, 1993년에는 1.16으로 증가하여,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表 II-15〉 離婚率의 變化 推移(1960~1993)

연도	연앙인구(천명) ¹⁾	이혼수(건) ²⁾	조이혼율
1970	31,458	11,615	0.37
1975	35,281	16,179	0.46
1980	37,448	22,980	0.61
1985	41,056	37,812	0.92
1986	41,214	38,459	0.93
1987	41,622	40,770	0.98
1988	42,031	40,060	0.95
1989	42,449	40,712	0.96
1990	42,869	42,632	0.99
1991	43,296	44,411	1.03
1992	43,748	48,055	1.10
1993	44,195	51,349	1.16

註: 조이혼율은 인구천명당 이혼수임.

資料: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p358.

離婚 事由로는 점차 夫婦 不和에 의한 原因이 커지고 있다. 1970년
의 경우 전체 이혼중 夫婦 不和에 의한 離婚이 6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家族間 不和로 8.3%였으며, 건강상, 경제문제 등 각각 5%
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그밖에 其他 事由에 의한 이혼은
16.1%이었다. 1980년에는 夫婦 不和에 의한 이혼이 74.6%로 높아지고
그 다음으로 높은 家族間 不和는 5.3%로 낮아졌으며, 건강상 이유나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도 각각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
다. 그밖에 원인으로 인한 이혼은 13.1%로 낮아졌다. 1994년에도 이와
같은 변동 양상이 지속되어 부부 불화에 의한 원인이 82.9%로 증가하
고, 家族間 不和는 2.6%로 낮아졌으며, 경제문제는 2.7%로 그리고 건
강상으로 인한 이혼은 1.0%로 낮아졌다. 그밖에 사유로 인한 이혼도
10.8%로 낮아졌다.

〈表 II-16〉 年度別 離婚事由 分布

(단위: %)

연도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상	경제문제	기타	계
1970	64.9	8.3	5.7	5.1	16.1	100.0
1975	64.4	8.6	5.2	5.2	16.7	100.0
1980	74.6	5.3	3.3	3.6	13.1	100.0
1985	80.9	4.1	1.6	3.0	10.4	100.0
1990	82.6	3.5	1.4	1.8	10.6	100.0
1994	82.9	2.6	1.0	2.7	10.8	100.0

資料: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이와 같이 全般的으로 夫婦 不和에 의한 離婚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그밖에 가족간 불화나 健康上, 經濟問題 등에 의한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의 지속 요건으로 부부간의 화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都市化와 産業化 그리고 核家族化와 저출산에 따른 少子女化가 자녀에 대한 扶養 期待를 점차 감소시키면서 夫婦中心의 生活樣相으로 변화하고, 다른 가족원에 의한 의견이 이혼 결정에 작용하는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最近 離婚年齡의 變化推移의 特徵은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986年度の 離婚者의 年齡分布를 보면, 남자의 경우 30~34세 연령층이 2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5~29세 연령층으로 21.0%, 그리고 35~39세 연령층이 20.6%를 점하여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7%로 이혼의 2/3가량이 이들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離婚者의 平均年齡은 35.7세였다. 이와 같은 연령분포는 최근에 이를수록 연령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90년에는 30~34세 연령층이 28.9%로 1986년과 별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연령층이 35~39세 연령층으로 바뀌어 이들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1.6%로 높아진 반면, 25~29세 연령층은 17.1%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離婚年齡의 上向으로 평균연령은 36.5세로 높아졌다. 1994년에도 이혼연령의 상승이 이어져 平均年齡은 38.0세로 높아졌으며, 年齡分布는 35~39세 연령층이 25.9%로 가장 높아졌고, 그 다음은 30~34세 연령층으로 25.2%를 점하였으며, 40~44세 연령층은 15.9%로 25~29세 연령층의 11.8% 보다 높아졌다.

女子의 경우는 男子와의 結婚年齡의 差異로 인해 남자보다는 이혼 평균연령이 좀 낮았다. 즉 1986년의 경우 남자에서는 30~34세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는 그 보다 낮은 25~29세 연령층이 3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34세 연령층으로 25.3%를 점하여 25~34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58.5%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은 離婚 年齡分布는 남자와 같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1990년에는 가장 높은 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에서 30~34세 연령층으로 바뀌고 그 비율은 28.9%로 높아졌으며, 25~29세 연령층은 28.8%로 30~34세 연령층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은 35~39세 연령층으로 16.4%를 나타내어 平均年齡은 32.5세로 높아졌다. 1994년에는 30~34세 연령층이 2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5~39세 연령층이 22.6%, 25~29세 연령층이 21.8%로 25~39세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0%를 나타내어 離婚者의 3/4정도가 이들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平均年齡은 34.1세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離婚年齡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연령층이 주로 30대에서 많고, 50세 이상의 연령층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II-17〉 離婚 年齡分布 및 平均年齡

(단위: %, 세)

연도	24세 이하	25~29	30~34	35~39	40~44	45~49	50세 이상	계	평균 이혼연령
남자									
1986	3.6	21.0	28.1	20.6	13.1	6.9	6.6	100.0	35.7
1988	2.8	19.2	29.0	20.8	13.1	8.2	6.9	100.0	36.1
1990	2.4	17.1	28.9	21.6	14.1	8.2	7.7	100.0	36.5
1992	1.9	13.7	27.8	24.2	14.9	8.6	8.8	100.0	37.3
1994	1.7	11.8	25.2	25.9	15.9	9.8	9.8	100.0	38.0
여자									
1986	14.2	33.2	25.3	13.8	7.3	3.4	2.6	100.0	31.4
1988	11.8	32.1	27.5	14.1	7.7	3.9	2.8	100.0	31.9
1990	10.4	28.8	28.9	16.4	8.1	4.2	3.3	100.0	32.5
1992	9.0	24.5	30.3	19.2	8.8	4.4	3.7	100.0	33.2
1994	7.1	21.8	28.6	22.6	10.6	5.1	4.1	100.0	34.1

資料: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p.393.

離婚者의 同居期間을 보면 1986년의 경우 이혼자의 平均同居期間은 7.2년이었으며, 동거기간별 분포는 40.3%가 5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0년 미만이 31.4%로 10년 미만이 71.7%를 점하여 전체의 약 3/4정도가 10년 미만의 기간에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년 이상은 4.5%이었다. 1990년에는 平均同居期間이 길어져 7.8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高年齡層의 離婚比率 增加에 기인한 것이다. 동거기간별 분포는 5년 미만이 37.3%로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조금 낮아진 것이며, 5~10년 미만은 29.0%로 낮아진 반면, 10년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높아졌다. 1994년 이혼자들의 平均同居期間은 9.1년으로 1986년에 비하여 1.9년이 길어졌다. 이들의 동거기간별 분포는 5년 미만이 31.9%로 가장 높았으나 1986년에 비하여 8.4%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그 다음은 5~10년 미만으로 25.2%를 점하고 있으며, 이 비율

도 1986년에 비하여 6.2%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며, 10년 이상의 長期同居者의 比率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20년 이상은 7.9%로 1986년에 비하여 3.4%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同居期間의 增加는 젊은 연령층의 이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의 지속적인 증가속에서 지금까지 가능한 이혼을 택하지 않았던 나이 많은 연령층에서 이혼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表 II-18〉 同居期間別 離婚者의 分布

(단위: %, 년)

연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동거기간
1986	40.3	31.4	16.1	7.6	4.5	100.0	7.2
1988	38.6	31.1	17.7	8.0	4.6	100.0	7.5
1990	37.3	29.0	19.4	8.6	5.7	100.0	7.8
1992	33.9	27.0	22.0	10.4	6.8	100.0	8.5
1994	31.9	25.2	22.5	12.6	7.9	100.0	9.1

資料: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p.393.

Ⅲ. 向後 人口規模 및 構造展望

人口規模 및 構造는 出生과 死亡 그리고 移動의 變動에 의하여 결정된다. 出生·死亡·移動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出生·사망·이동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난 인구규모나 구조는 다시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의 인구규모 및 구조를 전망하여 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21세기에는 인구규모 및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人口規模는 出生率이 人口代置水準 以下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8년경까지는 인구규모가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증가를 계속하여 오던 인구가 감소를 맞게되는 또 다른 人口轉換을 하게 되는 것이다. 出生율이 代置水準에 이른 후 동일한 수준이 지속될 경우 보통 2~3세대 이후인 60년 이후에 인구증가가 정지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4년에 人口代置水準에 이른 후 44년만에 人口成長이 停止하는 것으로 이는 人口代置水準보다 낮은 出生수준의 지속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낮은 出生수준은 人口規模 및 構造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곧 다가올 21세기 초반의 人口動態的 要因의 變化와 이들 변화에 따른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統計廳의 新人口推計資料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人口動態的 要因의 變化

가. 出産水準의 變化

우리가 出産水準의 變化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수준의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人口規模 및 構造에 주는 영향력이 다른 변수에 비하여 크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合計出産率은 1960년의 6.0명에서 人口代置水準까지 이르는 데 24년이 걸려 1984년에는 2.1명이 되었으며, 1987년에는 가장 낮은 1.6명 수준까지 저하되었으나 1993년에는 1.7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1995년에도 1.74명 수준을 나타내어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1996).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에서 人口代置水準이 갖는 意味는 매우 크다. 人口代置水準은 인구규모 증감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이동이 없다고 假定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出生과 死亡이 같아져 人口의 增減이 없이 일정한 人口規模 및 構造를 갖게 되는 出産水準인 것이다. 따라서 人口代置水準은 人口增減의 基準點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向後의 出産水準 變化는 두가지 측면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증가하는 쪽의 예상으로 지금까지 인구증가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종 社會支援施策의 調整 등으로 점차 少子女觀에 대한 認識變化를 초래해 출산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儒敎思想을 중심으로 자녀, 특히 男兒에 대한 욕구가 남달리 크며, 이는 出産抑制 위주정책에서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 다시 출산수준이 높아지리라는 예상으로 그 수준은 人口代置水準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出産을 抑制하는 要因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

문에 출산수준이 저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子女養育에 따른 부담의 증가, 女性의 經濟活動 增加, 적은 자녀 양육시 느꼈던 보다 여유로운 삶을 갑자기 전환하기가 어려운 점은 出産水準의 급격한 上昇을 抑制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출산수준이 현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女性의 高學歷化, 經濟活動 增加 外에 低年齡層의 未婚率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높은 연령층으로 이어져 獨身者가 증가할 경우 출산율은 낮아질 수 있으며, 독신자의 증가가 아니라도 결혼시기가 늦어져 結婚年齡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그만큼 再生産期間이 짧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통계청에서 전망한 향후 출산수준은 2030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은 人口代置水準을 넘지 않는 수준,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은 1.5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통계청, 1996).

統計廳에서 적용한 중위수준의 출산수준은 現 出産水準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즉 인구추계에 적용되는 출산수준은 현재의 合計出産率과 비슷한 1.7~1.8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表 III-1〉 出産水準 假定(1995~2030)

(단위: 명)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합계출산율	1.74	1.71	1.71	1.74	1.80	1.80	1.80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나. 死亡水準의 變化

우리 나라의 粗死亡率은 1970년 8.0(인구 천명당)에서 점차 낮아져

1980년에는 7.3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5.4로 낮아졌다. 그러나 인구추계에 있어서 조사망률 수준은 人口推計에 이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사망률은 그 나라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지만 年齡構造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保健水準의 向上으로 平均壽命이 점차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조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老人人口의 比率이 점차 높아지고 노인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게 될 경우 조사망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망률은 인구추계과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한다.

따라서 人口推計에서는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平均壽命을 이용하여 모델 生命表를 적용하든가, 年齡別 死亡率을 추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表 III-2〉 年度別 粗死亡率 變動推移(1970~1995)

(단위: 인구 천명당)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조사망률	8.0	7.7	7.3	5.9	5.7	5.4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우리 나라의 平均壽命은 保健醫療水準 및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즉 1995년 73.5세(남자 69.6세, 여자 77.4세)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77.0세(남자 73.3세, 여자 80.7세)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79.0세(남자 75.4세, 여자 82.5세)로 증가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는 1995년에 비하여 남자는 5.8년, 여자는 5.1년이 증가한 것이다.

〈表 III-3〉 平均壽命의 展望(1995~2030)

(단위: 세)

연도	계	남자	여자
1995	73.5	69.6	77.4
2000	74.9	71.0	78.6
2005	76.1	72.3	79.7
2010	77.0	73.3	80.7
2015	77.5	73.9	81.2
2020	78.1	74.5	81.7
2025	78.5	75.0	82.1
2030	79.0	75.4	82.5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다. 人口移動

1) 國際人口移動

이번 人口推計에서 적용된 國際人口移動은 과거보다 좀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과거 인구추계에서는 이민만을 예상하여 인구추계시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出國者와 入國者를 비교하여 그 차를 순이동자로 간주하였다. 즉, 1991~1995년 기간중 연평균 수준인 3만명 정도의 해외로의 순이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991~1995년 동안 外國으로의 순이동자 수는 남자가 5만 9천명, 여자가 8만 9천명인 총 14만 8천명으로 연평균 3만명이 국외로 순이동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순이동 중 20代가 차지하는 비율이 3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0代로 19.0%였다.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유학 및 해외 취업증가에 의한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에서 역으로 순이입인구가 많은 것은 海外居住者의 逆移民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表 III-4〉 年 齡 別 出 入 國 者 現 況(1991~1995)

(단위: 명)

연령	순이동(입국-출국)			구성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48,434	-59,220	-89,214	100.0	100.0	100.0
0~4	-15,387	-6,764	-8,623	10.4	11.4	9.7
5~9	-10,237	-4,399	-5,838	6.9	7.4	6.5
10~14	-14,371	-6,414	-7,957	9.7	10.8	8.9
15~19	-12,968	-4,215	-8,753	8.7	7.1	9.8
20~24	-34,175	-15,311	-18,863	23.0	25.9	21.1
25~29	-15,866	-4,691	-11,175	10.7	7.9	12.5
30~34	-13,197	-4,663	-8,534	8.9	7.9	9.6
35~39	-14,964	-5,383	-9,580	10.1	9.1	10.7
40~44	-9,991	-4,533	-5,458	6.7	7.7	6.1
45~49	-5,377	-2,123	-3,255	3.6	3.6	3.6
50~54	-2,032	-607	-1,425	1.4	1.0	1.6
55~59	-1,339	-585	-754	0.9	1.0	0.8
60~64	-35	105	-140	0.0	-0.2	0.2
65~69	243	-22	265	-0.2	0.0	-0.3
70~74	643	139	504	-0.4	-0.2	-0.6
75~79	388	162	226	-0.3	-0.3	-0.3
80+	230	84	146	-0.2	-0.1	-0.2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海外移住 動向

우리 나라의 海外移住事業은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채택 추진되기 시작한 1962년 海外移住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法的 基礎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海外移住事業은 緣故招請, 國際結婚, 入養 등을 제외하고 나면 주로 南美地域으로의 農業移民事業이었으며, 대체로 消極的이고 規制的이었다(조남훈 외, 1995).

海外移住者數는 1962년 386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1976년에는 4만 7천 명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1996년에는 1만 3천명으로 적어졌다. 이민지역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1962년부터 1996년

기간중 총해외이주자 82만 1천명중 78.2%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1996년 총이주자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주한 비율은 88.2%로 이주자가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때 移民地域으로 選好度가 높았던 濠洲는 198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年以後의 海外移住의 特徵은 미국으로의 이주가 줄고 캐나다와 뉴질랜드로의 이주가 늘고 있다. 즉 1990년도와 1996년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으로의 이주는 전체이주의 85.5%에서 56.2%로 줄어든 반면, 캐나다는 6.9%에서 23.7%로, 뉴질랜드는 0.5%에서 15.8%로 증가하였다. 미국으로 편중되었던 移住國家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과 함께 보다 生活與件이 좋은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形態別 海外移住를 보면 총이주자의 63.5%는 연고이주였으며, 17.0%가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 그리고 14.4%가 취업이주이었다. 1990년에서 1996년의 移住形態의 變化를 살펴보면 緣故移住가 67.7%에서 39.7%로, 그리고 國際結婚이 12.5%에서 9.0%로 감소한 반면, 就業移住는 11.7%에서 33.1%로, 그리고 사업이주는 8.1%에서 18.1%로 증가하여 최근 이와 같은 이주형태분포의 변화는 就業移住나 事業移住者의 數가 증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緣故移住者의 減少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또한 最近 移住形態의 特徵 중의 하나는 逆移住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외국으로 이주하였던 海外移住者나 海外로의 移住豫定者中 상당수가 영주귀국하거나 이주포기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1980년에는 1,049명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에는 8,8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도 6,824명이 영주귀국하거나 해외이주를 포기하여 1980년에는 海外移住者의 2.8%에 불과하던 逆移住者의 比率이 1993년에는 60.7%로 증가하였고 1996년에도 5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表 III-5〉 國家別(地域別) 海外移住 現況(1962~1996)

(단위: 명)

연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라틴아메리카 ¹⁾	유럽 ¹⁾	아시아 ¹⁾ 등 기타	총계
1962	209	2	2	-	170	-	3	386
1963	2,015	9	-	-	476	389	12	2,901
1964	2,176	40	1	-	908	588	33	3,746
1965	2,344	20	-	-	2,396	63	7	4,830
1966	2,670	87	1	-	731	136	15	3,640
1967	3,067	507	-	-	195	217	26	4,012
1968	4,242	786	3	-	404	352	26	5,813
1969	7,377	760	34	-	1,100	457	27	9,755
1970	11,549	986	32	-	2,680	993	28	16,268
1971	14,601	915	45	-	2,038	1,519	45	19,163
1972	19,902	1,023	75	-	2,978	2,006	58	26,042
1973	28,523	1,553	25	-	624	2,566	142	33,433
1974	34,526	3,308	86	-	1,159	2,575	332	41,986
1975	33,409	4,084	55	-	3,185	2,468	254	43,455
1976	32,503	1,968	728	-	8,368	2,538	428	46,533
1977	35,592	1,142	454	-	1,921	2,527	455	42,091
1978	34,295	639	476	-	250	2,988	429	39,077
1979	31,611	818	509	-	148	1,793	562	35,441
1980	33,638	968	188	-	237	1,817	662	37,510
1981	31,574	1,502	501	-	524	1,968	736	36,805
1982	26,841	1,430	636	-	865	2,529	508	32,809
1983	24,015	886	542	-	1,917	2,293	729	30,382
1984	25,820	553	266	5	3,995	117	355	31,111
1985	21,147	771	619	2	4,623	122	509	27,793
1986	30,548	981	1,155	5	3,992	158	258	37,097
1987	26,282	2,091	1,556	14	4,499	164	192	34,798
1988	24,466	2,444	1,442	16	2,833	120	165	31,486
1989	21,336	2,643	1,333	59	793	37	71	26,272
1990	19,922	1,611	1,162	119	456	14	30	23,314
1991	12,754	2,651	1,113	308	550	3	54	17,433
1992	11,473	3,407	1,093	1,320	594	11	29	17,927
1993	8,133	2,735	538	2,569	467	14	21	14,477
1994	7,975	2,356	542	3,462	257	4	8	14,604
1995	8,535	3,289	417	3,612	49	2	13	15,917
1996	7,277	3,073	519	2,045	24	-	11	12,949
계	642,347	52,038	16,148	13,536	56,406	33,548	7,233	821,256

註: 1) 지역별 실적에는 1983년도까지 현지이민 및 국제입양이 포함됨.
 資料: 외무부 해외이주과, 내부자료, 1996.

〈表 III-6〉 形態別 海外移住 現況

(단위: 명)

연도	집단지주 등 기타 이주	사업이주 (투자기주)	취업이주	연고이주	국제결혼	총계
1962	-	165	-	49	165	379
1963	-	315	-	697	1,581	2,593
1964	-	520	-	1,151	1,486	3,157
1965	-	1791	-	729	1,657	4,177
1966	-	612	-	702	1,585	2,899
1967	-	-	-	1,545	1,624	3,169
1968	-	6	-	2,277	2,326	4,609
1969	-	-	-	5,139	3,077	8,216
1970	-	190	1,014	8,848	3,724	13,776
1971	-	30	4,136	7,139	4,519	15,824
1972	-	102	6,123	11,345	4,470	22,040
1973	-	58	10,899	11,499	4,771	27,227
1974	-	4	10,824	19,003	4,543	34,374
1975	-	-	7,547	23,330	4,783	35,660
1976	-	-	5,310	28,885	5,667	39,862
1977	-	13	3,199	27,106	5,533	35,851
1978	72	-	1,543	25,913	5,612	33,140
1979	-	-	1,241	23,764	6,306	31,311
1980	-	70	1,130	25,938	6,220	33,358
1981	72	199	2,122	23,588	6,187	32,168
1982	32	29	1,894	18,993	5,445	26,393
1983	29	43	2,708	15,341	5,224	23,345
1984	-	137	3,949	22,144	4,881	31,111
1985	-	511	3,946	18,396	4,940	27,793
1986	-	2,325	3,098	27,218	4,456	37,097
1987	-	4,269	3,076	22,768	4,685	34,798
1988	-	4,167	2,946	19,927	4,446	31,486
1989	-	2,781	1,566	18,281	3,644	26,272
1990	-	1,885	2,737	15,772	2,920	23,314
1991	-	3,204	1,901	9,963	2,365	17,433
1992	7	4,057	3,193	8,823	1,847	17,927
1993	14	2,921	3,988	6,044	1,510	14,477
1994	29	2,330	5,311	5,629	1,305	14,604
1995	7	2,492	6,573	5,695	1,150	15,917
1996	3	2,346	4,291	5,139	1,170	12,949
계	265	37,572	106,265	468,780	125,824	738,706

註: 형태별 실적에는 현지이민 및 국제입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資料: 외무부 해외이주과, 내부자료, 1996.

〈表 III-7〉 逆移住 現況(1980~1996)

(단위: 명)

연도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기타	총계	이주대비 점유율(%)
1980	848	61	14	10	116	1,049	2.80
1981	970	57	11	13	138	1,189	3.23
1982	1,088	107	8	14	129	1,346	4.10
1983	1,169	94	16	18	129	1,426	4.69
1984	1,338	89	30	14	198	1,669	5.36
1985	1,838	102	5	63	282	2,290	8.24
1986	2,060	85	21	79	339	2,584	6.97
1987	2,669	82	32	193	325	3,301	9.49
1988	3,313	115	41	656	609	4,734	15.03
1989	4,667	136	110	882	890	6,685	25.44
1990	4,882	142	65	655	705	6,449	27.66
1991	5,539	173	67	424	826	7,029	40.32
1992	6,487	398	188	471	1,348	8,892	49.60
1993	5,914	403	215	475	1,774	8,781	60.65
1994	5,494	487	138	378	1,739	8,236	56.39
1995	4,610	396	124	337	1,590	7,057	44.33
1996	4,377	368	109	347	1,623	6,824	52.70
계	57,263	3,295	1,194	5,029	12,760	79,541	16.76

註: 역이주자는 영주귀국신고자, 해외이주포기자를 합산한 것임.

(1994.1.1.~12.31.간 영주귀국신고자는 5,929명, 해외이주포기자는 2,307명임).

資料: 외무부 해외이주과, 내부자료, 1996.

2. 人口規模 및 構造的 變化

가. 人口規模의 變化

21세기는 우리 나라의 인구에 있어서 커다란 轉換點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여 오던 인구규모가 점차 증가규모가 감소하면서 人口增加率이 0%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반 인구증가가 가져오는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의 완화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였고, 政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人口增加率は 점차 감소하여 1960년 3.0%에 이르던 높은 인구증가율이 1995년에는 1% 수준으로 낮아졌고, 그 수준은 계속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즉 1995년 인구는 4509만 3천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061만 8천명으로, 그리고 2028년에는 5277만 6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규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人口增加率は 1995년 1.0%에서 2010년에는 0.5%로 감소하고 2028년에는 0.0%로 낮아질 전망이다. 人口密度는 2028년까지 계속되는 인구규모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1995년 454명(Km²당)에서 2010년에는 510명으로 그리고 2028년에는 1995년보다 77명이 증가한 531명이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人口密度가 높은 국가에서 인구의 감소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급격한 出生率 低下에서 나타나는 人口 構造的인 問題와 함께 급격한 人口의 量的인 減少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규모의 감소는 低年齡層 比率의 減少와 老年人口 比率의 增加를 의미하기 때문에 生産年齡人口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勞動力 不足을 招來하게 되고 노인인구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의 老人福祉負擔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適正人口規模 및 構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人口規模는 얼마가 가장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適正人口에 대하여 한반도의 人口密度와 環境 등을 고려하여 적정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지구화·세계화의 추세에서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범

세계적 안목에서 볼 때 한 국민의 수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구성열, 1996:191). 이와 같이 단순히 人口密度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가 많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우며, 環境, 資源, 國防, 經濟 등 모든 면을 감안한 적정 인구규모가 산출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이를 감안한 適正人口規模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世界化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무대는 우리 나라 領土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우리 나라 국민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3D 業種에서의 勞動力 不足을 보충하기 위한 外國 勞動力 流入의 增加와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유입도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또한 南北 統一時에는 人口規模 및 構造가 社會·經濟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人口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급격한 인구증가나 인구감소는 人口構造의 不均衡을 심화시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向後의 出產水準은 과거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현재의 출산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 더 이상의 큰 저하는 예상하기 힘들며, 또한 출산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出產獎勵나 出產抑制의 動機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지고 인위적인 변화를 피하는 데는 장기간을 요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人口規模 및 構造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長期的인 側面에서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表 III-8〉 年度別 總人口 및 人口密度

(단위: 명, %)

연도	총인구(천명)	연평균증가율	인구밀도
1995	45,093		454
2000	47,275	0.9	476
2005	49,123	0.8	495
2010	50,618	0.6	510
2015	51,677	0.4	520
2020	52,358	0.3	527
2025	52,712	0.1	531
2030	52,744	0.0	531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나. 幼少年人口의 減少와 老年人口의 增加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出產水準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구조는 幼少年人口의 비율이 감소하고, 老年人口의 비율이 증가하는 人口의 老齡化 現象이 加速化 될 것이다. 여기에 보건수준의 향상에 의한 平均壽命의 延長도 老年人口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老年人口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14세 이하 幼少年人口의 規模는 1970년 이후 감소가 지속되어 왔다. 1960년 1058만 8천명(42.3%)에 이르던 유소년인구는 1970년에 1370만 9천명(42.5%)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1995년에는 1053만 7천명(23.4%)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0년에는 1008만명(19.9%)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844만 8천명(16.0%)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65歲 以上 老年人口는 연령구조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 1960년 72만 6천명에서 1995년에는 265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2010년에

는 503만 2천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1016만 5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老年人口의 구성비는 1960년 2.9%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는 3.8%로, 1995년에는 5.9%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7.1%, 2022년에는 14.3%로 그리고 2030년에는 19.3%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우리 나라가 高齡化 社會로, 그리고 2022년에는 高齡社會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表 III-9〉 幼少年, 經濟活動可能人口, 老年人口의 變動 推移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	%	인구	%	인구	%
1960 ¹⁾	25,012	10,588	42.3	13,698	54.8	726	2.9
1970 ¹⁾	32,241	13,709	42.5	17,540	54.4	991	3.1
1980 ¹⁾	38,124	12,951	34.0	23,717	62.2	1,456	3.8
1985 ¹⁾	40,806	12,305	30.2	26,759	65.6	1,742	4.3
1990 ²⁾	42,869	10,974	25.6	29,701	69.3	2,195	5.1
1995 ²⁾	45,093	10,537	23.4	31,900	70.7	2,657	5.9
2000 ²⁾	47,275	10,233	21.7	33,671	71.2	3,371	7.1
2010 ²⁾	50,618	10,080	19.9	35,506	70.2	5,032	9.9
2020 ²⁾	52,358	9,013	17.2	36,446	69.6	6,899	13.2
2030 ²⁾	52,744	8,448	16.0	34,130	64.7	10,165	19.3

資料: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0~1985년 추계인구』, 1988.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이와 같은 속도의 노령화는 外國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65세 이상 老年人口의 比率이 5%에서 12%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7년(1990~2017년)인 반면, 일본은 40년(1950~1990), 미국은 65년(1925~1990) 그리고 프랑스는 175년(1790~1965)이 소요되어(조남훈 외, 1995:18) 우리 나라의 노령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어 그 만큼 老齡化 社會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짧아 국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 生産年齡人口의 增加率 鈍化와 構成變化

生産年齡人口는 꾸준한 增加를 계속하여 왔다. 1960년에는 1369만 8천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는 2371만 7천명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319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8년에는 3654만 7천명으로 증가하나 그 이후는 감소하여 2030년에는 3413만명이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表 III-10〉 生産年齡人口의 變動推移(1960~2030)

(단위: 천명, %)

연도	15~24세	연평 균증 가율	25~44세	연평 균증 가율	45~64세	연평 균증 가율	15~64세	연평 균증 가율
1960 ¹⁾	4,741(34.6)		5,985(43.7)		2,973(21.7)		13,698(100.0)	
1970 ¹⁾	5,838(33.3)	2.1	7,908(45.1)	2.8	3,794(21.6)	2.5	17,540(100.0)	2.5
1980 ¹⁾	8,613(36.3)	4.0	10,056(42.4)	2.4	5,048(21.3)	2.9	23,717(100.0)	3.1
1990 ²⁾	8,784(29.6)	0.2	13,981(47.0)	3.4	6,935(23.4)	3.2	29,701(100.0)	2.3
1995 ²⁾	8,289(26.0)	-1.2	15,685(49.2)	2.3	7,926(24.8)	2.7	31,900(100.0)	1.4
2000 ²⁾	7,662(22.8)	-1.6	16,883(50.1)	1.5	9,126(27.1)	2.9	33,671(100.0)	1.1
2010 ²⁾	6,584(18.5)	-1.5	15,942(44.9)	-0.6	12,979(36.6)	3.6	35,506(100.0)	0.5
2020 ²⁾	6,796(18.6)	0.3	13,839(38.0)	-1.4	15,812(43.4)	2.0	36,446(100.0)	0.3
2030 ²⁾	6,066(17.8)	-1.1	13,028(38.2)	-0.6	15,036(44.0)	-0.5	34,130(100.0)	-0.7

資料: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0~1985년 추계인구』, 1988.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이들 生産年齡人口의 增加率は 1960~1970년 기간중 연평균 2.5% 그리고 1970~19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3.1%의 증가를 보였으나, 1980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져 1980~199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2.3%로 낮아지고, 2000~201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5%로 그리고 2020~2030년 기간중에는 -0.7%로 저하될 전망이다.

이들 生産年齡人口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18년까지 꾸준한 증가

를 보이나 이를 연령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보면 보다 이른 시기에 낮은 연령층에서부터 감소가 나타날 展望이다.

즉 15~24세는 1960년 474만 1천명에서 1990년에는 878만 4천명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되어 2010년에는 658만 4천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606만 6천명으로 감소될 展望이다. 이들이 15~64세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34.6%에서 1980년에는 36.3%로 증가하지만 1990년에는 29.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소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0년에는 18.5%로 그리고 2030년에는 17.8%로 감소할 전망이다.

25~44세 인구는 1960년 598만 5천명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여 1995년에는 1568만 5천명으로 증가하고 이와 같은 증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2010년에는 1594만 2천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1302만 8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이 生産年齡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960년 43.7%에서 1990년에는 47.0%, 2000년에는 50.1%에 이르지만 그 이후는 감소하여 2010년에는 44.9%, 2030년에는 38.2%로 200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45~64세 인구는 1960년 297만 3천명에서 1990년에는 693만 5천명으로 증가하고, 2010년에는 1297만 9천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1503만 6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이 生産年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21.7%에서 1990년에는 23.4%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6.6%로 그리고 2030년에는 44.0%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같이 生産年齡人口는 전반적으로 增加現象을 보이지만 低年齡層에서부터 그 規模 및 比率이 低下되기 시작하여 生産연령인구의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져 高齡化 現象을 보일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人力需給 展望에 있어서 문제점은 量的 側面보다는 構造的 側面에 있다. 構造的 問題는 人口構造的 高齡化

와 고학력 과잉, 저학력 과소라는 學歷構造의 不均衡과 함께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적정한 인력의 안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갈수록 深化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生産年齡人口의 變化는 經濟活動人口에도 變化를 초래하게 되므로 經濟成長率을 감안한 원활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女性 및 老人人口의 活用 및 外國人 勞動力 流入問題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學齡人口의 構成變化

學齡人口(6~21세)는 1960년 855만 3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40만 1천명에 이르지만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1990년에는 1336만 1천명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1096만 3천명, 2030년에는 925만 6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學齡人口規模는 1960~197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4.0%의 증가를, 그리고 1970~19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1.3%의 증가를 보인 반면, 1980~199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7%의 감소를 보였고, 2000~201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3%의 감소를 그리고 2020~3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1.0%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은 學齡人口의 감소는 지속된 出產率 低下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며, 향후의 출산수준도 人口代置水準以下の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學齡人口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다.

학령인구를 다시 學校級別로 구분하여 그 변동을 살펴보면, 初等學校(6~11세)의 경우 그 감소시기가 가장 빨리 나타나 1960년 362만 9천명에서 1970년에는 571만 1천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6%의 증가를 보였지만, 1980년에는 549만 9천명으로 감소하고, 그 이후에도 감소는 지속되어 2000년에는 408만 1천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336만 9천명으로 감소되어 2020~3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8%의 감소를 보

일 전망이다.

中學校 學齡人口(12~14세)의 경우는 1960년 156만 6천명에서 1980년에는 259만 9천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6%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0년에는 231만 7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212만 4천명, 2030년에는 171만 2천명으로 감소하여 2010~203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1.1%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高等學校 學齡人口(15~17세)는 1960년 141만 7천명에서 1980년에는 267만 1천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2%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0년에는 259만 5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212만 5천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174만 5천명으로 감소하여 2010~2030년 기간중 연평균 1.0%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大學校 學齡人口(18~21세)는 1960년 194만 1천명에서 1970년 221만 8천명, 1980년 363만 2천명, 1990년 366만 3천명으로 증가하여 1960~1970년 기간중 연평균 1.3%, 1970~19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5.1% 그리고 1980~199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1%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261만 5천명, 2020년에는 273만 5천명, 2030년에는 24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0~201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2.1%, 2020~2030년 기간중 연평균 1.2%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점차 낮아진 出産水準의 影響으로 초등학교는 1970년 이후, 中學校와 高等學校는 1980년 이후, 大學校는 1990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는 學校入試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온 大學入試도 대학교 학령인구가 급격한 저하를 보이는 2000년 이후에는 각 대학별 학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表 III-11〉 學齡人口의 變動推移

(단위: 명)

연도	총인구	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1960	25,012	8,552	3,629	1,566	1,417	1,941
1970	32,241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38,124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42,869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45,093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47,275	11,339	4,081	1,877	2,150	3,231
2010	50,618	10,963	4,100	2,124	2,125	2,615
2020	52,358	10,262	3,641	1,919	1,968	2,735
2030	52,744	9,256	3,369	1,712	1,745	2,430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마. 可妊女性人口의 變化

可妊女性人口의 規模는 出生率에 영향을 미친다. 出生數의 規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出產水準이지만 各 年齡別 可妊女性數의 變化에 따라 出生수는 달라지게 되고 특히 出產水準이 높은 25~29세 연령층과 20~24세, 30~34세 연령층의 人口規模에 따라 出生兒數는 영향을 받게 된다.

可妊女性人口(15~49세)는 1960년 584만 8천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1970년 743만 7천명, 1980년 995만 9천명 그리고 1990년에는 1212만 8천명으로 증가하여 1960~197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2.4%, 1970~19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3.0%, 1980~199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2.0%의 증가를 보여 出生水準은 꾸준히 낮아져온 반면, 가임여성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可妊女性人口 中 특히 出產婦人의 약 95%(1994년 기준: 통계청, 1995)를 점하고 있는 20~34세 여성인구의 변동은 出生아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같은 出產水準이라 하여도 이들 연령층 人口의 비중이

높다면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出産이 이루어지는 20~34세 年齡層 人口의 變化를 보면, 1960년 294만 2천명에서 1970년에는 349만 1천명으로 그리고 1990년 62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1960~1970년 기간중 연평균 1.7%, 1970~1980년 기간중 연평균 3.0%, 1980~1990년 기간중 2.8%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34세 여자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되어 2010년에는 512만 4천명, 2020년에는 468만 3천명 그리고 2030년에는 465만 1천명으로 감소하여 2010~202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9%, 2020~203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1%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49세 가임여성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며, 出産率이 가장 높은 20~34세 연령층의 여성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出生數를 低下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出生兒數는 減少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I-12〉 年度別 總人口 및 可妊女性人口의 變化 推移

(단위: 천명, %)

연도	여자총인구	가임여자인구	
		15~49세	20~34세
1960	12,462	5,848(46.9)	2,942(23.6)
1970	15,932	7,437(46.7)	3,491(21.9)
1980	18,888	9,959(52.7)	4,709(24.9)
1990	21,301	12,128(56.9)	6,220(29.2)
1995	22,388	12,858(57.4)	6,315(28.2)
2000	23,443	13,403(57.2)	6,060(29.6)
2010	25,081	12,922(51.5)	5,124(20.4)
2020	25,974	11,910(45.9)	4,683(18.0)
2030	26,252	10,832(41.3)	4,651(17.7)

註: ()는 여자총인구에 대한 비율임.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IV. 性比不均衡의 最近 動向과 對應方案

1. 最近의 性比不均衡 變動 推移

1962년부터 우리 나라는 人口抑制政策의 일환으로 家族計劃事業을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 초기부터 男兒選好觀은 출산력 저하나 피임실천율의 증대에 지대한 저해 요인으로 일관해 왔다. Sheps(1963)는 실증적으로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약 3.9명 정도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男兒選好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 출산율을 이룩하여 우리 나라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出産率은 短期間에 급진적으로 減少된 반면에 남아선호관은 잔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신 의학기술에 의한 胎兒의 性識別을 통하여 아들을 출산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出生性比(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수)의 不均衡이라는 새로운 인구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性比의 不均衡 現象은 인구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출산력이 급격히 저하된 1980年代부터 야기되었고 이는 家族計劃과 人工妊娠中絶의 普遍化, 胎兒性識別을 위한 의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男兒選好觀의 殘存과 出産率의 低下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胎兒의 性識別을 위한 의료행위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1987년 11월에 醫療法(19조 2항)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醫療行爲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醫師

免許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1994년 1월에는 의료법 제67조를 개정하여 상기 19조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강 대책과 더불어 性比 不均衡의 심각성에 대한 言論 및 放送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보도, 大韓家族計劃協會의 弘報活動, 大韓醫師協會 등 관련 단체의 자체 정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出生性比의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우리나라의 出生時 性比는 1980년에 105.3명에서 1993년에 115.5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1995년에는 113.4명으로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정상 출생 성비인 106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表 IV-1 참조). 出生時 性比는 1986년, 1988년, 그리고 1990년에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女兒 出生을 기피하는 전통적 관습인 범띠, 용띠, 말띠 해를 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出生申告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 1996).

출생성비는 都市와 農村의 차이보다는 地理的인 요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구, 경북, 경남 및 부산 지역의 출생성비가 각 시·도 중에서 특히 높다. 1994년 현재 경북과 경남의 출생성비가 각각 124.3명, 120.2명이고 대구가 121.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성비는 1985년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하여 보다 강한 男兒選好觀을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아의 性鑑別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이들 지역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996년에 醫療法上의 胎兒 性鑑別 醫療行爲의 禁止 條項을 위반하는 醫療人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을

동년 5월에 입법예고하고 동년 10월 19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즉 保健福祉部는 개정안에서 당시 1차 적발시 자격정지, 2차 적발시 면허취소로 되어 있는 胎兒 性鑑別 행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1, 2차 구별 없이 바로 면허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검찰은 동년 10월 1일 胎兒 性鑑別을 상습적으로 해 온 의사 4명과 조산사 1명을 醫療法 위반으로 구속하는 한편 4명의 의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의료계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

〈表 IV-1〉 出產順位別 出生性比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연도	총출생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1980	105.3	106.0	106.5	106.9	110.2
1981	107.2	106.3	106.7	107.1	112.9
1982	106.8	105.4	106.0	109.2	113.6
1983	107.4	105.8	106.2	111.8	120.0
1984	108.3	106.1	107.2	116.9	128.1
1985	109.4	106.0	107.8	129.2	146.8
1986	111.7	107.3	111.2	138.6	149.9
1987	108.8	104.7	109.1	134.9	148.8
1988	113.3	107.2	113.3	165.4	183.3
1989	111.8	104.1	112.5	183.1	201.1
1990	116.6	108.6	117.2	190.8	214.1
1991	112.5	105.8	112.6	181.4	201.3
1992	113.8	106.3	112.6	194.1	220.1
1993	115.5	106.6	114.8	205.3	246.7
1994	115.5	106.1	114.3	205.9	237.7
1995 ¹⁾	113.4	105.9	111.8	179.4	213.9

註: 1) 1995년은 잠정치 임.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이와 같은 政府의 司法 措置와 지속적인 弘報 活動에 힘입어 앞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新人口推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出生性比는 1995년의 113.4

에서 2010년에는 108.9로 낮아지고 2015년경에는 정상성비에 가까운 107.0에 도달된 후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1996). 그러나 이와 같은 출생성비의 假定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胎兒의 性鑑別 醫療行爲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사법 조치, 남아선호관의 불식을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男女平等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性比不均衡의 社會的 餘波

가. 初等學校 學生의 性比 不均衡

出生性比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는 社會的 問題는 아마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여자 짝을 갖지 못한다는 불편일 것이다. 199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별 性比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108에서 저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1학년의 경우는 113에 이르고 있다(表 IV-2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 1996년 현재 初等學校 在學生의 대부분이 1984년에서 198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중 出生性比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다. 出生性比가 106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몇몇 남자 어린이는 남자 짝을 할 수밖에 없는 데 앞으로 出生性比의 不均衡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出生性比가 116.6에 달했던 1990년에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의 性比不均衡은 서울의 일부 학군에서 더욱 심각하여 이성의 짝을 갖고 싶어하는 소박한 동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아동들의 人格 形成 過程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表 IV-2〉 初等學校 學生의 學年別 性比(1996)

(단위: 천명, 여학생 100명당 남학생수)

학년	전체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성 비
1	632.0	335.2	296.8	113.0
2	612.6	322.4	290.2	111.1
3	607.5	317.1	290.3	109.2
4	611.9	319.0	292.9	108.9
5	637.0	332.2	304.8	109.0
6	641.7	333.1	308.7	107.9

資料: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1996.

나. 婚姻適齡人口의 性比 不均衡

出生性比의 增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염려는 앞으로 結婚에서의 新婦 不足 現象이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삶의 質的 向上을 위해 도시로 대량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農村의 性比 不均衡은 농촌 총각이 장가가기 어려움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表 IV-3〉 年度別 結婚年齡 人口의 性比變動推移(1995~2020)

(단위: 천명, 여자 100명당 남자수)

연도	남자(26~30세)	여자(23~27세)	성비
1995	2,173	2,172	100.0
2000	2,273	1,977	115.0
2005	1,963	1,915	102.5
2010	1,989	1,612	123.4
2020	1,778	1,630	109.0

註: 1994년 현재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28.4세, 여자 25.3세임.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990년 현재 6~10세 남자가 성장해서 20년 후에 현재의 3~7세 여자아이 중에서 신붓감을 고른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의 신랑감과 신붓감의 성비가 무려 123 수준으로 신랑 123명중 약 20%에 이르는 23명은 新婦 不足으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같은 현상은 農村地域에서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 母性保健 및 經濟的 問題

胎兒의 性鑑別에 의한 人工妊娠中絶은 胎兒 및 母性健康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을 미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에 이르는 胎兒 性鑑別은 대개 妊娠 9주경에 가능한 용모막 검사나 16주에 가능한 양수검사와 임신 20주에 가능한 초음파 검사를 통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胎兒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人工妊娠中絶도 시기상으로 적합치 않아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母性健康에 해를 줄 위험이 있다.

有配偶婦人의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1976년 39%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5년에는 53%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는 49%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유배우부인의 절반 가량은 人工妊娠中絶 경험을 갖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未婚女性의 人工妊娠中絶도 性開放化 趨勢와 함께 점차 증가되어 一部 中小都市에서의 人工妊娠中絶의 약 1/3程度가 未婚女性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未婚의 人工妊娠中絶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홍문식 외, 1990). 유배우부인들의 平均 人工妊娠中絶 回數는 1976년 0.9회에서 점차 증가하여 1979년에는 1.1회 수준이 1991년까지 지속되었으나 1994년에는 0.8회로 저하되었다. 經驗率 및 平均人工妊娠中絶 횟수가 누적적임을 감안한다면 점차 人工妊娠中絶이 減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별 人工妊娠中絶率을 이용하여 人工임신중절수를 추정해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유배우부인들의 人工妊娠中絶 件數는 1970년 약 29만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1년에는 약 59만건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1993년 35만건으로 198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의 人工妊娠中絶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母子保健을 해치고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性比不均衡과 같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胎兒의 性鑑別을 통한 人工妊娠中絶은 대부분이 용모막검사나 양수검사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고 이들 검사비는 대략 80만원 내외의 고액으로 醫療保險 給與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1994년에 2만 9천건의 女兒를 기피하기 위한 選別的 人工妊娠中絶이 있었던 것으로 假定한다면 실제로 胎兒의 性鑑別을 위한 의료행위 건수는 약 5만 9천건으로 추정되며, 검사비용을 건당 평균 50만원으로 과소 추정해도 대략 한해에 294억원이라는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하겠다.

〈表 IV-4〉 人工妊娠中絶 推定件數

(단위: 건)

연도	추정인공임신중절 건수	부인천명당 I.A수
1970 ¹⁾	293,016	71.5
1981 ¹⁾	594,365	113.3
1984 ¹⁾	495,127	89.1
1990 ¹⁾	403,228	63.6
1993 ²⁾	348,120	52.0

資料: 1) 조남훈 외, 『저출산시대의 인구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p.21.

2) 추정치임.

胎兒 性鑑別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국민이나 性鑑別 및 人工妊娠中絶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양측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宗教 및 女性團體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행위는 물론 현행 醫療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법 이전의 모든 국민의 양심과 도덕적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3. 男兒選好와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미치는 要因

政府 家族計劃事業이 착수된 1962년이래 우리 나라 전통적 의식구조인 男兒選好觀은 출산율의 감소나 피임실천율의 증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하여 왔으나, 出産率이 人口代置水準에 도달된 1980년대 중반기에 와서는 出生性比의 不均衡이라는 새로운 人口問題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간 男女平等을 구현하고 女性地位向上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개선과 홍보교육활동을 전개하여 男兒選好觀은 크게 완화되었다. 즉 1976년도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結果에 의하면 15~44세에 속하는 유배우부인의 61%가 절대적으로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1%가 선호, 28%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1994년도 조사에서는 26.3%가 절대적으로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4.3%가 선호, 38.9%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男兒選好度는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태아의 性鑑別을 통한 出生男兒數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출산율의 감소가 男兒選好觀의 완화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男兒選好觀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表 IV-5>는 男兒選好度의 程度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들 婦人의 社會經濟的 特性을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婦人年齡은 다른 두 집단의 平均 연령보다 높았고, 男便의 年齡에서도 유사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단에서는 또한 다른 두 집단보다 子女數가 많고, 부모의 教育수준이 낮으며, 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집단은 社會人口학적 측면을 보면 흥미로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男兒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높은 教育水準과 젊은 연령층, 그리고 가장 적은 자녀수를 가진 집단들이었다. 그리고 男兒에 대한 選好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아들이 필요하다고 한 집단과 선호하지 않는 집단의 中間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몇년전(김일현 외, 1990)의 “韓國女性의 男兒選好 研究”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일현 등의 연구에 의하면 專門職種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낮은 남아선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 그리고 低賃金의 職業을 가진 여성들이 가장 높은 男兒選好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經濟活動參與率과 男兒選好와는 負의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表 IV-5> 婦人의 男兒選好度에 따른 社會經濟的 特性

특성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¹⁾		
	필요함(N=1,972)	선호함(N=1,939)	선호치 않음(N=2,149)
부인의 연령(세)	37.7(7.0)	34.8(6.6)	33.9(6.9)
남편의 연령(세)	41.4(7.9)	38.1(7.3)	37.2(7.4)
여성의 초혼연령(세)	22.3(2.9)	23.2(2.9)	23.3(3.0)
총자녀수(명)	2.5(1.2)	1.9(0.9)	1.7(1.0)
아들수(명)	1.3(0.8)	1.0(0.8)	0.9(0.8)
부인의 교육(년)	9.3(3.3)	10.8(3.1)	11.3(2.9)
남편의 교육(년)	10.7(3.4)	12.0(3.1)	12.3(2.9)
경제활동참여율(%)	52.9	47.3	40.4

註: 1) 평균(표준편차)

<表 IV-6>은 남아를 갖기 위해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을 경험한 부인은 대략 무경험 부인층보다 연령이 약간 많거나 教育年數가 약간 적은 집단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사이에서의 차이점은 평균 아들수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을 경험한 여성의 子女數는 평균자녀수보다 많지만, 이 집단의 자녀수를 4명기준으로 보면 아들의 수는 1명 이하에 불과했다.

<表 IV-6> 性選擇 人工妊娠中絶 經驗婦人과 無經驗婦人의 特性比較

특성	성선택 人工임신중절 ¹⁾	
	무경험(N=5,979) ²⁾	경험(N=70)
부인의 연령(세)	35.4(7.0)	35.6(6.0)
남편의 연령(세)	38.8(7.8)	39.5(6.6)
여성의 초혼연령(세)	22.9(2.9)	22.4(2.4)
총자녀수(명)	2.0(1.1)	2.6(1.1)
아들 수(명)	1.1(0.8)	0.6(0.6)
부인의 교육(년)	10.5(3.2)	9.9(2.9)
남편의 교육(년)	11.7(3.3)	11.6(3.1)
경제활동참여율(%)	47.0	49.0

註: 1) 평균(표준편차)

2) 이 집단에는 또한 성선택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人工임신중절을 한 여성이 포함됨.

비록 男兒에 대한 選好가 성선택 人工임신중절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원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들선호에 대한 질문은 조사 당시였고,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情報는 조사 이전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두 가지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文化 등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간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들 選好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을 분석하는데 이변량 프로빗 모델(bivariate probit model)을 사용했다. 이변량 모델은 두 프로빗

모델을 갖고 있고, 두 프로빗 방정식의 오차들이 상관성을 갖게 되고 ρ 로 표시한다(Greene, 1993).

男兒選好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로는 연령, 초혼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고용상태(雇傭 對 失業), 가족에 있어 子女構成(딸의 숫자와 아들의 수를 비교), 父母扶養者에 대한 態度(장남 혹은 다른 아들 對 딸 또는 政府施設), 그리고 현재의 가족내 동거형태(부모와 동거자와 기타 동거자의 평가) 등이다. 그러나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최근 10년 전까지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령은 2차적 기능에 포함되었다. 조사자료는 결혼한 부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性選好 혹은 行爲의 效果를 통제하기 위하여 현재 결혼상태를 가르치는 假變數(dummy variable)를 포함하였다. 또한 初婚年齡은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고 시기적으로 子女 養育과 價値觀이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初婚年齡 變數는 두방정식 모두에 포함시켰다.

가. 男兒選好에 미치는 要因

아들선호 모형에 있어 대부분의 변수들은 選好度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령은 강한 긍정적 효과를 주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社會化(전통화)된 코호트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初婚年齡은 아들선호에 있어 강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結婚年齡이 빠른 사람은 남자아이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에 결혼한 부인들은 다른 부인들과 비유해 볼 때 강한 아들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 노동력 필요로 인한 강한 男兒選好思想을 가진 가족 구성원과 결혼한 여성들의 강한 결속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남아선호에 있어 강하면서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제도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개

인적 믿음과는 상관없이 子女選好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치 규범에 대한 많은 자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職業을 가진 女性들은 職業을 갖지 않은 여성보다 더 강한 男兒選好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성의 평균월급여는 단지 남자의 5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勞動部, 1993) 세일즈나 서비스업, 사무직이나 비서직 등과 같은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敎育은 분석에서 개별적인 說明變數로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敎育은 수입증대를 위한 경제적 필요를 반영하거나, 가구의 낮은 경제적 상태를 가르치는 지표로서 여성의 經濟活動參與率을 敎育과 관여시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女性의 經濟活動參與率과 그들의 男兒選好와의 正(正)의 관계를 볼 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강한 男兒選好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 있는 것은 가족 내에서 자녀의 性別 구성은 男兒選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가족내의 자녀의 성구정보다는 女性의 社會人口學的 條件에 의해 男兒에 대한 選好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父母扶養에 대한 責任’과 ‘父母와의 同居 變數’는 家父長的 家族制度 범위 내에서 경제적 요소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문화적 태도와 사회 관습을 대신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가족유대, 상속, 노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의지는 자녀들에게 父母의 扶養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앞으로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도록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父母扶養에 대한 책임은 딸이나 친척, 각종 시설보다는 장남이나 다른 아들이 모셔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男兒選好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당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강한 男兒選好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

들은 첫아들과 結婚을 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다른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가족가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家庭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表 IV-7〉 男兒選好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二變量 프로빗 分析

변수	상관계수	표준오차	Z 값	확률
남아선호				
상수	0.283	0.197	1.435	0.151
연령	0.020	0.003	7.224	0.000
초혼연령	-0.021	0.006	3.430	0.001
결혼	0.268	0.095	2.824	0.005
교육	-0.044	0.007	6.771	0.000
경제활동참여율	0.106	0.035	3.032	0.002
아들수-딸수	0.020	0.012	1.634	0.102
부모부양책임자	-0.0003	0.0006	0.486	0.627
부모와 생활	0.293	0.050	5.842	0.000
성선택 인공임신중절				
상수	-5.839	1.580	3.696	0.000
연령	0.218	0.102	2.137	0.033
연령squared	-0.003	0.001	2.281	0.023
초혼연령	-0.013	0.029	0.448	0.654
결혼	0.216	0.424	0.508	0.611
교육	-0.016	0.024	0.651	0.515
경제활동참여율	-0.008	0.116	0.070	0.945
아들수-딸수	-0.306	0.051	5.987	0.000
부모부양책임자	0.148	0.111	1.328	0.184
부모와 생활	0.297	0.125	2.377	0.018
ρ	0.241	0.071	3.395	0.001
N	5,992	-	-	-
대수 우도	4,070.7	-	-	-
χ^2	403.2 (자유도=1)	-	-	-

나.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에 미치는 要因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의 결과들은 다른 남아선호분석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성의 年齡과 그들 子女의 性別構成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에서의 연령의 효과는 곡선적이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性鑑別 人工妊娠中絶에서 연령의 효과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엔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연령이 젊은 여성과 많은 여성들 모두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이 종종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胎兒 性을 鑑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이가 든 부인들이 아이를 가졌을 당시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들보다 딸을 많이 가진 여성들은 女兒 胎兒에 대한 人工妊娠中絶이 보다 종종 이루어졌다. 적어도 한 아이를 가진 여성과 女兒 胎兒에 대한 人工妊娠中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중 31.7%는 아들보다 딸이 많았고, 30.8%가 아들딸이 같았으며, 37.5%는 딸보다는 아들이 많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人工妊娠中絶을 경험한 여성중에는 78.5%가 아들보다는 딸이 많았고, 18.8%는 아들과 딸의 수가 같았으며 단지 2.9%(2건)만이 딸보다 아들이 많았다. 그러나 심지어 딸보다 아들을 많이 가진 여성들조차도 그들 자녀들의 특이한 性別구조를 볼 때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

이 연구는 현재의 子女의 性別構成이 한국,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있어 女兒 胎兒에 대한 人工妊娠中絶을 유도하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라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初婚年齡도 結婚狀態도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변수를 통해 측정 가능한 문화적 태도는 女兒 胎兒의 人工妊娠中絶을 선택하는데 다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假說에 의하면 아들선호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ρ 로 측정)은 강한 正(+)¹⁾의 관계를 나타내고 분석에서 포함된 모든 決定變數와는 독립적이다. 이것은 어떤 文化的인 要素(가부장제 등)가 여전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어떤 여성들은 相續人으로서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할 뿐 아니라 대개는 家族의 期待, 가족과 사회적 압력 때문에 원하지 않는 여아 태아를 제거하는 人工妊娠中絶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男兒選好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이 분석 결과는 女性의 初婚年齡, 현재의 結婚狀態, 教育水準, 就業狀態들이 그들의 男兒選好에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중요한 설명변수인 반면에 性選擇 人工妊娠中絶과는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胎兒의 性을 확인하기 위한 최근의 의료기술의 이용과 아들을 갖는데 실패한 것이 중요한 說明要素라고 볼 수 있다. 가족내의 자녀의 性別구조는 女兒 胎兒의 人工妊娠中絶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되지만 남아선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女性雇傭狀態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된 胎兒性 確認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허용 가능성은 중요한 요소로서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변량 프로빗 분석은 男兒選好와 性選擇 人工妊娠中絶이 남아출산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압력을 나타내는 文化的인 要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女兒 胎兒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은 가족 전체, 특히 男便과 父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시에 家族內에서 女性의 決定權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여성이 남아를 낳기 위하여 강요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들의 經濟活動參與에 따른 就業, 昇進, 賃金등 제반측면에서 男女 差別이 是正되어야 하며, 가정내에서도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life

cycle에서 탈피하여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권한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 관습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4. 性比不均衡에 대한 對應 方案

199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나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온 性比不均衡은 胎兒의 性鑑別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토록 한 의료법의 개정 등 정부의 시의 적절한 制度的인 裝置와 더불어 민간단체 중심의 弘報教育活動의 지속적인 展開, 性比不均衡의 심각성에 대한 言論매체의 대대적인 報道,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활동 등에 힘입어 出生時 性比는 1994년의 115.5를 고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 10월에는 胎兒鑑別 醫療行爲를 한 의료인이 다수 구속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出生時 性比는 당분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男兒選好觀은 우리의 의식구조상 단기간에 불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통제기능이나 관련 홍보활동이 약화될 경우 出生時 性比 不均衡이 다시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性比의 不均衡 問題가 완전히 정상 상태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男兒選好와 胎兒의 性鑑別과 관련된 國民의 전통적 意識을 변화시킬 수 있는 弘報教育活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性比의 不均衡이 더욱 심화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무서운 결과와 그 영향은 우리와 후손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性比 不均衡은 원천적으로 우리 나라 전통적 의식구조인 男兒選好觀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男女平等을 구현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價値觀이 어려서부터 정립되기 위해서는 初·中·高等學校 教科課程에 이에 대한 內容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대중을 위한 홍보교육활동은 夫婦 中心에서 이들에게 남아를 갖도록 압력을 가하는 兩家 父母에게 초점을 두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男兒選好觀을 拂拭시키기 위한 社會制度의 改善과 女性地位 向上을 위한 支援施策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4반세기에 걸쳐 남녀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크게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 사회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상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低出產 時代에 예상되는 勞動人力의 不足 現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女性人力의 社會參與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福祉的, 制度的 支援施策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胎兒의 性鑑別을 위한 의료행위는 의료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意識改革運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각종 의료인 단체는 胎兒의 性鑑別 및 人工妊娠中絶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자정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各種 教育 프로그램을 開發, 實施하고 의과대학 교과과정에도 胎兒의 性鑑別과 선별적 人工妊娠中絶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의료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로, 胎兒 性鑑別에 따른 不法 醫療에 대한 處罰 및 監視 機能이 강화되어야 한다. 醫療法에 명시된 관련 의료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엄격히 시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뿐 아니라 이를 요구한 一般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制度化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단체 및 가족계획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性鑑別 不法醫療行爲에 대한 감시기능과 더불어 지역별 評價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

끝으로 胎兒의 性鑑別을 통한 選別的 人工妊娠中絶은 母子保健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기존 母子保健法에도 胎兒의 性鑑別을 위한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性比의 不均衡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男兒選好觀은 단기간에 근절될 수 없는 傳統的 意識構造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社會支援施策의 꾸준한 추진과 더불어 胎兒의 性鑑別을 통한 人工妊娠中絶을 근절하기 위한 對國民 弘報啓蒙活動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료인과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과 監視 活動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性比의 不均衡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質』의 向上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상치되는 反社會倫理的 行爲의 結果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종교 및 각종 사회 단체가 공동 협력하여 國民의 意識을 改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V.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經濟的 影響

1. 人口變動과 勞動力 供給

우리 나라는 經濟開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良質의 풍부한 勞動力이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多產多死에서 少產少死로의 인구전환으로 人口의 成長 推移는 크게 둔화되고 人口의 年齡構造 역시 오늘날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齡化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人口變動이 人力供給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1970~1995년 기간 동안의 經濟活動 人口의 規模와 構成의 變化를 살펴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변동에 따른 勞動力 供給 展望과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人力政策上的 課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 經濟活動人口 規模와 構成 變化(1970~1995)

經濟活動人口를 파악하는 데는 勞動力 接近方法(labor force approach)과 有業人口 接近方法(gainful worker approach)이 사용되고 있다. 보다 産業化된 社會에서는 노동력 접근방법에 따라 經濟活動人口를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도 노동력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經濟活動人口調査에 나타난 1970년 이후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변화 추이를 살펴보겠다.

勞動力을 공급하는 經濟活動人口의 규모는 15세 이상 인구의 규모와 이들 인구의 經濟活動參加率에 의하여 결정된다. <表 V-1>은 1970년 이후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추이, 經濟活動參加率의 변동 추

이,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1970년에 1746만 8천명에서 1995년에는 3355만 8천명으로 지난 25년 동안에 무려 1609만명이 늘어나 이 기간 동안의 年平均 增加率은 2.6%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의 年平均 總人口增加率 1.3%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經濟活動人口의 規模는 1970년에 1006만 2천명에서 1995년에 2079만 7천명으로 1073만 5천명이 증가되어 왔으며 이 기간 동안에 年平均 2.9%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보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높았다. 그리고 經濟活動人口 中에서 就業者數는 1970년에 961만 7천명에서 1995년에는 2037만 7천명으로 증가되어 年平均증가율은 3.0%에 달하였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가 높은 經濟活動 可能人口의 成長과 經濟의 高度成長을 통하여 풍부한 비경제활동 勞動力이 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表 V-1〉 經濟活動人口 變動(1970~1995)

(단위: 천명, %)

연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1970	17,468	10,062	57.6	9,617
1975	20,918	12,193	58.3	11,692
1980	24,463	14,431	59.0	13,683
1985	27,553	15,592	56.6	14,970
1990	30,887	18,539	60.0	18,085
1995	33,558	20,797	62.0	20,377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해당 연도

人力供給의 量的인 증가와 함께 産業化·都市化는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産業 就業者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非農林漁業部門이 크게 성장하였다. 1970년에 전체 취업자의 50.4%를 차지했던 農林漁業部門이 1995년에는 12.5%로 감소되었고, 鑛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部門이 크게 성장되어 광공업부문은 14.3%에서 23.6%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은 35.3%에서 64.0%로 증가되었다.

工業化에 따른 農村에서 都市로의 人口移動은 농가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크게 감소시켰다. 1970년 이후 農家 經濟活動人口의 변동추이를 보면 1970년에 519만 8천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280만 6천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農村 勞動力의 연령구성은 40代 以上이 75.3%에 달하는 勞動力의 高齡化가 진행되고 있다.

취업자의 職業別 構成을 보면 생산·운수장비운전자,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되어 1970년에 20.2%에서 1995년에 31.9%로 증가되어 왔고 전문, 기술직 종사자와 사무종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는 전문화된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就業者의 從事上 地位 역시 크게 변화하여 自營業者와 家族從事者의 구성비가 감소된 반면 상시고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常時雇傭과 日日 雇用率을 합한 피고용자 비율은 1970년의 39.0%에서 1995년에는 62.5%로 크게 증가되고 있다.

性別 就業者 構成을 보면 女性就業이 크게 증가되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男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65.6%에서 1995년에는 59.6%로 상대적으로 감소된 반면 女子就業者 比率은 同期間 중 34.4%에서 40.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年齡別 就業者 構成을 보면 전체적으로 10代에서 20代 初의 就業者 比率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15~19세 연령층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 급속히 감소되고 있고 男子의 경우는 20~

24세 연령층에서도 감소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高等學校까지의 교육이 보편화되고 大學進學率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就業者의 教育程度別 構成比 變化를 보면 1980년 당시만 해도 전체 취업자의 51.3%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이었고 대학이상은 6.7%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초등학교 이하인 취업자는 21.4%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취업자 비율이 62.3%,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18.8%로 높아졌다. 이러한 人力의 高學歷 趨勢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V-2〉 勞動力의 構成 變化

(단위: %)

구 분	1970	1995
산업별 취업자 구성		
농림어업	50.4	12.5
광공업	14.3	23.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35.3	64.0
농가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천명)	8,540	3,887
경제활동인구(천명)	5,198	2,806
경제활동참가율	60.9	72.2
연령 구성별		
15~39세	60.4	24.7
40세 이상	39.6	75.3
직업별 취업자 구성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4.8	10.3
사무종사자	6.0	15.0
판매종사자	12.4	15.9
서비스종사자	6.4	12.3
농림·수산업종사자	50.2	14.6
생산·운수장비, 단순노무자	20.2	31.9
성별 취업자 구성		
남자	65.6	59.6
여자	34.4	40.4

〈表 V-2〉 繼續

구 분	1970	199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자영업자	34.2	27.9
가족종사자	26.9	9.6
상시고	28.4	53.7
일고	10.6	8.8
연령별 취업자 구성		
남자		
15~19	11.4	1.3
20~24	11.7	6.2
25~59	72.4	84.6
60세 이상	4.5	7.9
여자		
15~19	15.7	3.0
20~24	15.9	15.9
25~59	65.0	71.8
60세 이상	3.4	9.3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 ¹⁾		
초등졸 이하	51.3	21.4
중졸	20.2	16.3
고졸	21.8	43.5
대졸 이상	6.7	18.8

註: 1) 1980년과 1995년의 자료임.

資料: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 경제활동인구 연보』, 1971.

통계청, 『1995 경제활동인구 연보』, 1996.

나. 勞動力 供給 展望

人口變動에 따른 앞으로의 노동력 공급 전망은 첫째, 出生率 減少에 의한 生産年齡人口의 증가율 둔화, 둘째, 人口老齡化에 따른 老人人口의 增加, 셋째, 신규 노동력의 규모 감소, 넷째, 生産年齡人口의 高齡化, 다섯째, 女性人力의 증가, 여섯째, 人力의 高學力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1) 生産年齢人口(15~64세) 増加率 鈍化

우리 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家庭이 2子女만 두는 것을 理想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合計出産率이 1.75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低出産 水準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전망된다(조남훈 외, 1995).

앞으로 低出産이 지속되면 인구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것이며 따라서 生産年齢人口의 증가율 역시 크게 둔화될 것이다. 1996년의 新人口推計에 의하면 1990~2000년 사이 15~64세 인구의 증가율은 13.4%가 될 것이나 2000~2010년 기간에는 2.4%로, 2010~2020년 기간에는 2.6%로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表 V-3〉 生産年齢人口(15~64歲) 増加率 鈍化

(단위: 천명, %)

기 간	15~64세 인구	증가율(%)
1990	29,701	13.4
2000	33,671	2.4
2010	35,506	2.6
2020	36,446	-6.4
2030	34,130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人口의 老齡化

低出産과 平均壽命의 延長은 인구의 노령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生産可能人口로 보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 經濟活動人口의 규모를 줄이게 된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는 9.1%, 2020년에는 15.9%로 증가된다.

우리 나라 人口의 老齡化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진국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노령화 과정을 거쳐왔지만 우리 나라는 급속한 出産力 減少에 의하여 先進國의 경우 50~100년 소요되었던 高齡社會로의 이행이 우리 나라는 불과 22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表 V-4〉 老年人口(65歲 以上)의 增加 展望

(단위: 천명, %)

연도	15세 이상 인구(1)	65세 이상 인구(2)	(2)/(1)
1995	34,556	2,657	7.7
2000	37,042	3,371	9.1
2010	40,538	5,032	12.4
2020	43,345	6,899	15.9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3) 新規 勞働人力の 減少

출산력 감소로 인한 經濟活動人口의 減少는 신규 노동인력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출산력의 영향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15~20년의 時差를 두고 나타나게 되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풍부한 勞働力은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고출산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당시는 勞働需要보다 供給이 많았던 시기로 매년 노동시장으로 진입되어 오는 신규 인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經濟政策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1970年代 以後부터는 출산력이 크게 감소되어 그 영향이 1990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勞働市場에 신규진입될 15~24세 연령층 인구의 증가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연평균 2.1%와 4.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지만 1980년대에 와서는 0.2%, 그리고 1990년대에는 그 절대수가 줄어드는 연평균 -1.4%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대는 0.3%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表 III-10 참조).

4) 生産年齡人口의 高齡化

21世紀에는 生産年齡人口의 年齡構成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동에 기인된 것으로 生産年齡層 人口의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15~34세 연령층 人口의 증가율은 1990~2000년 동안 -5.7%, 2000~2010년 기간에 -13.3%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그러나 35~64세 年齡層 人口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00~2010년에 23.0%, 그리고 2010~2020년 기간에는 8.3%로 증가된다. 이는 앞으로 生産年齡 人口의 연령구성이 15~34세의 젊은층은 감소하고 35세 이상은 크게 증가하여 勞動力의 長年化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뜻한다.

〈表 V-5〉 生産年齡人口의 年齡階層別 增加率

(단위: %)

기 간	15~64세	15~34세	35~64세
1980~1990	25.2	21.4	31.0
1990~2000	13.4	- 5.7	39.8
2000~2010	5.4	-13.3	23.0
2010~2020	2.6	- 6.0	8.3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5) 女性의 經濟活動參與 增大

1995年 經濟活動人口調査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총취업자 2037만 7천 명 중에서 40.4%인 822만 4천명이 여성이다. 이들 職業別로 보면 서비스 및 판매직이 가장 많아 32.0%였고 그 다음은 사무직으로 15.5%, 기계조립 및 기능공이 13.4%였다. 그리고 전문가나 기술공 및 준 전문가로 분류되는 職種の 従事者도 10.9%에 달하고 있다.

〈表 V-6〉 就業女性の 職業(1995)

(단위: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비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3	0.3
전문가	342	4.2
기술공 및 준전문가	554	6.7
사무직원	1,277	15.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2,631	32.0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1,110	13.5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87	9.6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09	3.8
단순노무직 근로자	1,191	14.5
합 계	8,224	100.0

資料: 통계청, 『1995 경제활동인구 연보』, 1996.

就業女性の 教育水準을 보면 13.0%가 대졸 이상이고 38.6%는 고졸로서 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이 높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家父長的 文化의 뿌리가 깊은 탓으로 先進國에 비하면 아직 여성취업의 범위가 좁다. 21세기에는 사회발전과 함께 女性の 社會參與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男女 平等意識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적합한 일부 전문직이나 사무직에서는 여성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6) 勞働力の 高學歷化

우리 나라는 高學歷 選好가 매우 강한 나라로서 앞으로 少子女化와 함께 高學歷 趨勢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0~1990년 동안 대학생수의 증가를 보면 전문대학 학생수가 3만 3천명에서 32만 4천명으로

로, 교육대학은 1만 2천명에서 1만 6천명으로, 일반대학의 학생수는 14만 6천명에서 104만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대학원 학생수도 약 7천명에서 8만 7천명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大學就學率은 30%를 넘고 있으며 유럽 先進國에서도 大學就學率이 20%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고학력 선호도를 알 수 있다.

〈表 V-7〉 大學生數의 增加 推移(1970~1990)

(단위: 명)

연도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 학	대학원
1970	33,353	12,190	146,414	6,640
1975	62,866	8,504	208,986	13,870
1980	165,051	9,425	403,989	33,939
1990	323,825	15,960	1,040,166	86,911

資料: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1995.

7) 農村人口의 減少와 高齡化

우리 나라는 급속한 都市化로 도시는 인구과밀, 농촌은 인구과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産業化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農村人口는 이제 人口 再生産 年齡層이 크게 감소되고 있어 가속적인 인구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농촌인구의 연령구조는 급속히 老齡化되어 가고 있다.

1970年代 中盤 以後 여러가지 農村開發事業이 추진되어 왔으나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이동은 막지 못하였다. 특히 女性의 都市로의 移動이 男性보다 많아 이제 농촌의 총각이 신붓감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다. 都市의 젊은층이 다시 農村으로 돌아가는 인구이동의 U턴이 나타나지 않는 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高齡化는 지속될 것이다.

한 推計資料에 의하면 農村人口는 1995년에 957만명에서 2000년에

는 858만명, 2010년에는 811만명, 2020년에는 807만명으로 줄어들고 특히 농업이나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인구는 매우 급속히 감소되어 1995년에 521만명에서 2020년에는 166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인구중 농·어업 인구 비율은 1995년에 54.4%에서 2020년에는 20.6%로 감소될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表 V-8〉 農村人口와 農漁家 人口의 減少 展望

(단위: 천명)

연도	농촌인구	농어가인구	비농어가 인구
1995	9,570	5,210	4,360
2000	8,580	4,050	4,530
2010	8,110	2,590	5,520
2020	8,070	1,660	6,410

資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업: 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1996.

8) 外國人 勤勞者 問題 擡頭

한 報告書에 의하면(박영범 외, 1996) 1996년 6월말 현재 우리 나라에 체제하는 單純技能 外國人 勤勞者는 16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외국인력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産業 技術研修制度에 의한 研修生이 약 6만명 정도이고 不法滯留者가 약 10만명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 단순기능인력으로 외국인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國內勤勞者가 취업을 기피하는 소위 3D 業種에 개발도상국의 값싼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國際化, 開放化와 함께 국내근로자의 3D 업종 기피는 값싼 外國勤勞者의 流入을 가속화 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勞動市場의 長期的 構造變化에 대한 대응과 함께 외국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事後管理와 統制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表 V-9〉 우리 나라에 滞在하는 單純技能 外國人力

(단위: 명)

연도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계
1992. 12.	9,370	30,899	40,269
1993. 12.	10,225	54,508	64,733
1994. 12.	36,339	42,231	78,570
1996. 1.	42,762	84,385	127,147
1996. 6.	58,810	98,884	157,694

資料: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정착에 관한 연구』, 1996.

9) 人力 需給과 人口政策

人口構造가 國民經濟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는가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生産年齡人口(15~64세)의 比率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은 人口成長率의 둔화와 이에 따른 生産年齡人口의 증가율 둔화, 그리고 新規 勞動力의 減少와 人口의 高齡化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총인구에 대한 生産年齡人口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높은 상태이며 인구의 고령화율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人口構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와 先進國의 生産年齡人口의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생산년령인구는 2000년에 71.2%로 先進國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되며 65세 이상 노년인구도 先進國은 이미 인구의 14%이상이 老齡人口로 구성되는 老齡社會에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에 7.1%로 人口老齡化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表 V-10> 2000年 先進國과 人口構造 比較

(단위: %)

국가	생산년령인구 비율	노년인구 비율
한국 ¹⁾	71.2	7.1
일본 ²⁾	68.3	16.4
프랑스 ²⁾	65.5	15.7
독일 ²⁾	68.7	16.0
스웨덴 ²⁾	63.4	16.7
영국 ²⁾	65.2	15.3
미국 ²⁾	65.8	12.4

資料: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5.

그러나 우리 나라도 과거에 있었던 무제한적인 노동력의 공급시기는 지나고 있으며 人口變動에 의하여 勞働人力の 增加率이 크게 둔화된다. 이러한 인구요인의 변화를 감안하여 勞働力의 需給 展望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총량규모에서 본 노동력의 수급 전망은 2000~2010년 중반기에 人力不足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우진, 1995).

이미 西歐에서는 인구성장률 감소로 노동력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여 출산력 감소를 막기위한 출산장려책을 펴고있다. 그들은 人口政策과 福祉政策의 차원에서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의 예방, 임신부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수당 지급 등 출산장려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3년에 이미 合計出産率이 1.75로 人口代置水準 以下로 내려가 있다. 노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출산력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人口政策은 出産率을 現水準(合計出産率이 1.75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人口代置水準에서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남훈, 1995).

다. 政策課題

21世紀 노동공급 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정책과제로는 女性の 經濟活動參與 增大와 人口老齡化에 따른 노령인력의 활용이다. 앞으로 女性の 社會參與 擴大와 高學歷化 趨勢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며 특히 젊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노동력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女性人力の 活用과 高齡者 活用 對策은 고용정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既婚女性 就業 擴大를 위한 保育施設 擴充

1990年 人口住宅總調查 結果를 보면 既婚女性 中 有業者는 350만명으로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유업자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1980~1990년 동안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직업별로 보면 農林漁業 分野는 크게 감소한 반면, 生産職과 서비스직이 크게 증가하였고 事務職과 專門職 역시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就業女性の 年齡構成을 보면 出産과 育兒時期에 있는 39세 이하 연령층 부인의 비율이 전문직에서는 77.4%였고, 사무직에서는 83.8%였으며, 판매직은 56.3%, 서비스직은 51.1%, 생산직은 58.5%였다. 이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女性 就業分野에서 出産과 育兒期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젊은 기혼여성을 위한 兒童保育施設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을 결정하는 요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社會構造的 要因, 人的資本과 관련된 변수, 家族形成의 週期 등이 영향을 준다(이재열, 1996). 이 중에서도 취학전 자녀 유무는 중요한 변수이다.

〈表 V-11〉 有配偶 就業女性の 職業과 年齡構成(1980~1990)
(단위: 명, %)

구 분	1980	1990	증가수	39세 이하 비율
전문, 기술관련직	75,559	197,494	121,935	77.4
행정 및 관련직	1,723	9,665	7,942	49.0
사무 및 관련직	40,227	151,381	111,154	83.8
판매종사자	453,247	594,674	141,427	56.3
서비스직	285,181	568,370	283,189	51.1
농림어업	1,946,590	1,383,673	-562,917	27.5
생산, 운수장비, 단순노무	257,458	618,843	361,385	58.5

資料: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 연도.

就學前 子女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여는 크게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託兒施設이나 保育施設이 未備할수록 더욱 그러하게 된다.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자녀양육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한국여성개발원, 1986), 既婚 就業女性の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양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되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과 就業母의 자녀양육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될 수 없는 실정이며 託兒事業을 위한 社會的 對應策이 요구되고 있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1994년에 실시한 전국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자료를 이용하여 託兒需要를 추정해 보면(이 조사에서는 만 44세 이하의 유배우여성을 조사대상으로하고 있음) 都市地域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38.4%가 취업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두고 있는 부인은 41.6%였다. 따라서 44세 이하 都市 有配偶女性の 16.0%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就業母로 추정된다. 이들 就業母에 대하여 아이를 누가 돌보는가를 물어 본 결과, 시집이나 친정 부모 혹은 친척 등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31.8%였고 나

머지 68.2%가 가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6세 이하 就業母 比率에 적용하면 都市地域의 경우 44세 이하 유배우 부인의 10.9%가 가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就業母로 추정된다. 이 비율을 1995년의 44세 이하 도시 유배우 부인수 572만 7천명에 곱하면 탁아수요는 62만 4천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農村地域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3.4%가 취업하고 있으며 취업 여성의 37.7%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어, 44세 이하 유배우여성의 20.1%가 6세 이하 아동을 둔 就業母로 추정된다. 이들 농촌부인의 경우도 33.5%만이 가족이 아이를 돌볼 뿐이어서 44세 이하 유배우여성의 13.4%가 탁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를 1995년의 농촌지역(읍·면지역) 44세 이하 有配偶女性數인 117만 4천명에 곱하면 탁아수요는 15만 7천명으로 추정되어 전국적으로는 78만 1천명의 託兒 需要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表 V-12〉 託兒需要 推定(1995)

구 분	(단위: %)	
	도시	농촌
(1) 만 44세이하 유배우여성의 취업률	38.4	53.4
(2) 취업여성 중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	41.6	37.7
(3)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 중 가족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비율	68.2	66.5
(4)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 중 가족 이외의 다른사람에 의하여 아동보육이 필요한 비율 ¹⁾	10.9	13.4
(5) 1995년 만 44세 이하 유배우여성수(천명)	5,727	1,174
(6) 보육수요 추정치(천명) ²⁾	624	157

註: 추정치는 만 44세이하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임.

1) (1)×(2)×(3)

2) (4)×(5)

資料: 홍문식 외, 『1994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또한 同 調査에서는 44세 이하 유배우 부인의 就業希望 與否를 알아 보았는데 조사 당시 비취업 부인(조사대상자의 59%)이 취업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린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가 54.5%로 나타나서 既婚女性 就業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참가 가능성이 있는 女性 潛在失業者(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약 165만 8천명으로 이들 가운데 25~39세 연령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出産 및 子女養育負擔이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참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1993).

韓國女性開發院의 調査에 의하면 願하는 保育施設의 形態로는 지역 보육시설이 57.3%, 직장보육시설이 21.9%, 가정탁아 15.7%였으며 보육시설의 운영형태로는 국·공립이 51.5%, 민간사회단체가 20.5%, 종교단체가 17.1%, 직장 7.0%, 개인 3.9%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국·공립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김정자, 1987).

앞으로 兒童保育需要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본다. 아동보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첫째, 인구학적 요인으로 出産率의 變動, 둘째, 經濟社會的 要因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변수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은 변수이다. 出産率의 減少로 출산기간이 단축되고 육아부담이 경감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진다.

家族構造와 機能의 變化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성 경제활동참여는 가족구조와 기능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앞으로 출산율은 低出産이 持續될 것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家族規模의 縮小, 親族關係의 弱화, 家族週期の 變化와 함께 기능적으로도 가정과 직장의 공간적 분리, 가족의 여가기능 강화, 자녀

양육의 사회화 기능 강화, 가사노동의 기계화 등은 女性の 經濟活動 參與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女性の 經濟活動 增大와 가족 기능의 변화는 아동보육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日本の 엔젤 플랜을 보면 일본도 맞벌이 家口의 增加와 核家族化의 進展에 대응하여 아동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育兒休職給與의 實施, 다양한 保育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여성의 자녀양육과 일에 대한 양면적 지원, 지역의 자녀양육지원센터 확충, 母子保健醫療體制의 충실화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등을 정책의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

1994~1999년의 5個年 事業目標를 보면 0~2세 幼兒保育을 45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하고 연장보육시설을 2,230개소에서 7,000개소로 늘리고, 一時的 保育施設을 450개소에서 3,000개소로, 幼兒健康支援 데이서비스事業을 30개소에서 500개소로, 放課後 兒童클럽을 4,520개소에서 9,000개소로, 地域 子女養育支援센터를 236개소에서 3,000개소로, 다기능 보육소를 5년 동안 1,500개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아 보육, 연장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政府는 취학전 아동의 건전 육성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하여 保育施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保育施設 擴充 3個年 計劃(1995~1997)에 의하면 1997년까지 要保育兒童의 保育率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소요재원 1조 2891억원을 투입하여 7,590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계획으로 이러한 保育施設의 擴充은 젊은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兒童保育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바침 할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施設의 量的 擴大와 함께 質的 改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영세한 시설운동을 탈피하여 보다 專門化된 施設과 이들 시설에서 일할 人力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兒童保育의 社會化 推移에 따라 民間施設에 대한 政府의 財政支援도 확대되어야 한다.

保育施設의 擴大이외에도 既婚女性의 經濟活動 參與를 擴大하기 위해서는 育兒休職制度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育兒休職制는 휴직기간중 소득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휴직기간(1년정도)을 실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雇傭保險의 給與對象에 育兒休職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既婚女性의 노동시장 참여가 용이하도록 家庭과 職場을 양립할 수 있는 勤務形態가 開發되어야 한다. 時間制 勤務 擴大와 情報通信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在宅勤務制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김 훈, 1995).

2) 高齡者 就業 擴大

早期停年退職이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平均壽命이 延長되어 요즘은 70세 이상 되어야 노인이고 60代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다. 早期停年으로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직장이 5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어 라이프사이클로 보아 경제적 부담이 큰 50대에 停年退職을 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은 제외하더라도 55~69세까지의 고령인구는 2000년에 519만명, 2010년에 672만명, 2020년에는 1,00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인력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가용인력이 사장되는 것이다.

生産的 高齡社會를 만들고 老人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老人의 經濟活動 參與方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최

성재, 1995). 노인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적당한 일을 통하여 老人의 經濟的, 心理的 안정과 함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활력있는 老齡社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기업은 人件費 節減과 生産能率의 向上을 위하여 停年年限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93%의 기업이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一律停年制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중 88%가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60세로 정한 기업은 4.1%, 50세로 정한 기업도 3.8%로 되어 있다(한국경영자총연합, 1988).

60세 이상 인구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94년에 38.2%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층의 직종을 보면 農林漁業從事者가 전체의 52.9%를 차지하고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17.8%, 서비스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가 13.5%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농업이나 비전문적인 단순노동에 참여하고 있다(통계청, 1994)

우리 나라 60세 以上 老人의 主收入源을 보면 자녀로부터의 도움이 라는 응답이 44.3%였고, 근로소득이 37.6%, 부동산, 집세, 저축이 6.9%, 연금, 퇴직금이 3.9%, 생활보호, 노령수당이 3.5%로 되어 있어 연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부동산 등에 의하여 노후소득을 얻고 있는 층은 전체 노인의 10%정도에 불과하다.

高齡者가 就業을 希望하는 理由로는 경제적인 이유(돈이 필요해서)가 72.2%로 가장 많고, 일이 좋아서 8.2%, 건강유지를 위해서 7.0%,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8%,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4.0%, 일손이 모자라서 2.8%,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0.6%, 사회적 지위, 명예를 위해서 0.4%로 조사되었다(이가옥 외, 1994). 日本의 경우는 경제적 소득의 필요성이 43.2%, 일을 통한 건강관리가 39.9%로 나타나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表 V-13〉 高齡者의 職種別 就業 現況

(단위: %)

직종별	55~59세	60세 이상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2	2.9
전문가	3.3	2.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6	2.0
사무직원	3.0	1.5
서비스/판매근로자	19.1	13.5
농업/어업 숙련근로자	31.5	5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9	5.1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6	2.0
단순 노무근로자	19.7	17.8
합 계	100.0	100.0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高齡者에 대한 就業擴大는 고령자 자신뿐만 아니라 고령화 社會의 社會보장비용을 줄일 수 있다. 高齡者 人力 活用은 고령자 개인의 소득 확보를 위해서나 社會적 생산성 제고, 국가 社會보장재정의 부담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老人人力을 유용한 社會적 資源으로 보고 그 活用 대책이 講究되어야 한다.

停年退職者들의 대부분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강하지만 기업의 일반적 인식은 젊은 노동력을 구하고 停年 後 再就業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80년부터 雇傭計劃基本對策을 수립하여 고령화 社會에 대비하여 임금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60세 정년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高齡人力活用을 위하여 노인고용과 소득증대사업, 노인 단체별·지역별 고령자 취업촉진사업 개발, 고령자 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고령자 취업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다. 高齡者 能力開發센터는 현재 전국에 118개소가 설치되어

공공직업안정소와 고령자상담기구 등과 긴밀한 연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지도 및 소개, 구인 및 계몽, 노인에 맞는 직종 연구,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제공, 각종 복지정보의 제공 등 광범위한 高齡者 情報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高齡者 就業 擴大를 위해 정부에서는 1991년 12월에 高齡者雇傭促進法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고령자의 취업을 권장하고 고령자를 위한 취업알선 기관으로 老人能力銀行 등이 정부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으나 대다수 고령자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198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老人能力銀行은 1994년에 107,879명의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이중 80,300명에게 장 단기 취업을 알선하였다. 알선한 직종을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에 22,985명, 취로사업에 22,165명, 일손돕기 35,201명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직 우리 나라의 노인취업이 零細老人을 대상으로 할뿐 일반노인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高齡者 適合職種을 開發하여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사회풍토 조성이 필요하다(表 V-14 참조).

(1) 退職者에 대한 再就業 機會擴大

우리 나라에서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현행 年功序列式 賃金構造의 획기적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공서열식 봉급체계와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놓아둔 채 정년만을 연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人件費 負擔을 가중시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현행 一律停年制는 직종, 직급별로 다양화시키고 퇴직 후 본봉의 일정 비율만 주는 再就業, 退職者의 時間制 勤務方式 등 다양한 퇴직자 재취업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일단 퇴직시킨 후 건강상태나 근로의욕을 감안

하여 신분을 달리하여 재고용 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停年延長은 종전의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야 하지만 재고용의 경우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高齡人力을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職能別로 停年基準을 설정하여 행정 지도를 통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종류나 성격, 공정과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停年年齡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表 V-14〉 老人能力銀行 職種別 就業斡旋 實績(1994)

(단위: 명, %)

직 종	취업자수	비율
장기취업		
특수기능직	84	0.3
행정사무직	163	0.6
건축기능직	412	1.5
수위경비직	1,364	4.9
공원, 호텔안내원	159	0.6
청소원	628	2.3
판매원	205	0.7
공동작업	22,985	83.4
기 타	1,579	5.7
계	27,579	100.0
단기취업		
취로사업	22,165	27.6
건축토목사업	6,106	7.6
일손돕기	35,201	43.8
기 타	16,828	21.0
계	80,300	100.0

資料: 김수춘 외,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2) 高齡者 義務雇傭 實施

일본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33개 직종(예: 수위, 관리인, 청소원, 자동차 배차, 창고관리 등)에 대해서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물론 民間企業도 전체 종업원의 6% 범위 내에서 義務雇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高齡者 職種을 선정하여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여 취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우선 공공기관부터 시행하여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高齡者 營農 再教育

都市勤勞者가 퇴직하여 노후를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경향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때 農村生活에 맞는 가축의 사육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원예기술, 기타 경제작물의 재배기술 등 재훈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職業 再訓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高齡者 共同作業場 設置

모든 일을 젊은이들이 해야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능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高齡者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모아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作業場을 설치하여 高齡人力을 活用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때 일하는 노인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時間勤務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高級人力 活用

고급인력은 知識이나 才能 經驗이 월등한 퇴직자를 집중관리하여 이런 高級人力에게 적합한 就業機會를 줌으로서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나라도 최근 퇴직 고급인력 활용을 위한 人才銀行의 運營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기대된다.

2. 人口의 老齡化와 老人福祉

인구전환에 따른 人口의 老齡化와 都市化의 영향으로 인한 農村老人의 扶養問題 등 우리 나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老人問題가 서서히 대두되기 始作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社會問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老人福祉領域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老人福祉法의 制定 및 改正, 노인복지 특별대책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더구나 1995年 3月 金泳三 大統領은 「삶의 質의 世界化」를 선언하면서 「高齡化時代에 對備한 老人福祉의 擴充」을 6대 정책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老人福祉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를 인구학적 측면과 가족주기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老年人口가 차지하는 비중, 연령구조, 부양비의 변화와 老年人口의 社會經濟的인 側面 등을 고찰하였으며, 가족주기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가족형태와 관련된 老人의 現實, 老人의 家族週期上의 位置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노인문제와의 관련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가. 老年人口의 成長

1) 老年人口의 成長推移

平均壽命의 延長과 出生率 減少에 따라 우리나라의 老年人口는 그 절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면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老年人口의 증가속도가 생산년령인구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生産年齡人口의 老人扶養負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老年人口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70년대까지는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상승하여 1990年 5.1%, 2000年 7.1%, 2010年 9.9%, 그리고 2022년에는 老年人口가 차지하는 比率이 14.3%에 도달하여 노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老年人口 構成比率은 1995年 現在 약 5.9%로 日本이나 서구 선진국의 10%대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도 인구전환에 따른 연령구조의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급속한 老年人口 構成比의 增大現象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이 1790년 5%에서 1965년 12%로 증가하는데 175년이 소요되었고, 미국의 경우 65년, 일본이 40년이 소요된 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에 5%에 도달한 후 2017년에 1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2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빠른 老齡化現象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13년이 앞선 것이다(表 V-15 참조).

이러한 老年人口의 급속한 성장 추세는 그 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에 의한 平均壽命의 延長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1995년 平均壽命은 73.5세로 1978~1979년의 65.8세에 비해 7.7세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평균수명의 상승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20년에는 78.1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V-15〉 人口老齡化 速度的 國際比較

국가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의 도달 연도		소요년수
	5%	12%	
한국	1990	2017	27
일본	1950	1990	40
미국	1925	1990	65
프랑스	1790	1965	175

資料: 日本統計協會, 『國民健康の動向』, 1989.

〈表 V-16〉 平均壽命의 推移 및 向後 展望

(단위: 세)

구분	1978~79	1985	1990	1995	2000	2020
평균	65.8	69.0	71.3	73.5	74.9	78.1
남자	62.7	64.9	67.4	69.6	71.0	74.5
여자	69.1	73.3	75.4	77.4	78.6	81.7
차이	6.4	8.4	8.0	7.8	7.6	7.2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또한, 그 동안 평균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老人人口의 期待餘命도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83년 現在 60세에 도달한 男子老人의 期待餘命은 13.7년이었으나, 1991년에는 15.5년 더 살 것으로 推定된다. 60세에 도달한 女子老人의 경우에는 1983년에는 19.0년 더 살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1991년에는 20.1년 더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어 남녀 모두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기대여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짧은 停年年齡 및 긴 老後生活과 관련하여 노후의 경제생활, 노인부양, 노년기 건강, 老人人力의 再活用, 의료보험, 老人의 餘暇生活 등 각종 노후대책의 미흡이 노인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表 V-17〉 年齡別 期待餘命 推移

(단위: 년)

연령	남자			여자		
	1983	1989	1991	1983	1989	1991
60세	13.7	15.1	15.5	19.0	19.9	20.1
65세	10.8	11.9	13.0	15.2	16.0	16.1
70세	8.4	9.2	9.5	11.8	12.3	12.5
75세	6.4	6.9	7.1	8.9	9.2	9.3
80세 이상	4.7	5.1	5.2	6.3	6.6	6.7

資料: 통계청, 『1991년 생명표』, 1993.

2) 老齡化 指標의 變化

老年人口의 成長이 가져다주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扶養比 및 老齡化指數에서의 變化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수들은 연령구조의 變化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는 60년대초 이후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出産力 減少 및 保健衛生의 改善에 의한 死亡力의 低下로 종래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그 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老齡化 指標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幼少年人口(0~14세)와 老年人口(65세 이상 인구)를 합한 總 扶養人口의 生産年齡人口(15~64세 人口)에 대한 比 즉 總 扶養比는 1970년의 83.8을 고비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 1990年 現在 44.3으로 크게 減少되었으며, 2000년에 40.4, 그리고 2020년에는 43.7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생산년령인구의 총 부양인구에 대한 부담률의 감소는 그만큼 人口가 生産性이 높은 이상적인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表 V-18〉 老齡化 指標의 變化 推移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부양비							
총부양비	82.6	83.8	60.7	44.3	40.4	42.6	43.7
유소년인구부양비	77.3	78.2	54.6	36.9	30.4	28.4	24.7
노년인구부양비	5.3	5.7	6.1	7.4	10.0	14.2	18.9
노령화지수	6.9	7.2	11.2	20.0	32.9	49.9	76.5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그러나 총부양비를 幼少年人口扶養比와 老年人口扶養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령구조가 항아리형으로 변함에 따라 1970年을 고비로 幼少年人口扶養比는 급격한 감소경향을, 老年人口扶養比는 점진적인 증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幼少年人口에 대한 老年人口의 比를 나타내는 老齡化指數의 급성장은 老年人口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幼少年人口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주로 이들의 교육에 있다면, 老年人口에 대한 고려는 이들의 보건·의료와 老後生活의 보장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老年人口와 관련된 여러 인구 통계학적 지표의 상승경향은 인구전환에 따른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며, 앞으로 老人問題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나. 老年人口의 社會經濟的 特性

老年人口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이 쇠퇴하는 이른바 老年期에 들어서 있는 인구집단으로서 타 연령계층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사실 외에도 이들 집단에 독특한 여러 社會人

口學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우선 老人人口를 性別로 高찰해 보면 이들의 性別 死亡率의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성비가 전체인구에 비하여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올수록 또한 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고 있다. 즉, 60세 이상 老人人口의 性比는 1990년 현재 여자노인 100명당 남자노인이 64.8名이며, 이것은 1970년의 69.8名에 비하여 5.0名이 적어진 것이다. 아울러 연령별 性比를 보면 1990년 現在 60~64세 연령층은 74.7名, 65~69세 연령층이 71.6名, 70~74세 층이 64.5名, 75~79세 연령층이 51.3名, 80~84세 연령층이 39.1名, 그리고 85세 이상 연령층에 있어서 24.9名으로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女子의 期待餘命이 男子보다 높은 데서 오는 결과이며 이러한 성별 인구수의 불균형 상태는 老人人口層의 結婚狀態의 特異性과 직결되는 동시에 老人의 性問題, 노후의 고독 등의 노후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表 V-19〉 老人의 性比 推移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연령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60세 이상	69.8	67.3	64.8	71.0	78.0	83.4	85.1
60~64	83.3	83.2	74.7	89.5	94.0	95.4	96.9
65~69	71.6	72.5	71.6	76.8	87.9	90.0	91.0
70~74	62.1	61.5	64.5	62.0	78.2	83.2	84.2
75~79	53.2	47.8	51.3	55.2	64.2	74.9	77.2
80+	44.2	33.3	34.1	39.0	43.7	56.0	63.1

資料: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제8권, 고령자, 1993.

_____, 『장래인구추계』, 1996.

노인인구층의 婚姻狀態에 있어서도 남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중 57.2%는 配偶者가 生存(有配偶)하고 있으며, 42.1%는 死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有配偶 比率은 1970年 50.3%에서 1995年 57.2%로 增加하고 있는 반면, 死別 比率은 1970年 49.3%에서 1995年 42.1%로 감소추세에 있다. 1995년의 경우 남녀별로 보면, 男子老人의 경우 有配偶 老人이 87.7%를 차지하고 있고, 死別老人은 11.5%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유배우상태에 있다. 女子老人의 경우에는 有配偶 比率은 36.8%로 낮고 死別比率은 62.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女子의 平均壽命이 男子보다 높기 때문에 年齡이 높을수록 女子老人의 有配偶 比率이 낮아지며 死別比率이 높아지는 現象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男子와 女子의 平均壽命이 모두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年齡階層에서 有配偶의 比率이 過去에 비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表 V-20 참조).

老人人口의 經濟活動狀態는 이들의 신체적 노쇠와 관련하여 1995년 현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약 40%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非經濟活動狀態에 있다. 性別로 보면 男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8.4%로 女子의 30.9%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經濟活動參加率은 1970年の 25.9%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이며, 특히 女子老人의 經濟活動參加率이 1970年の 14.8%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는 30.9%로 증가하여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表 V-21 참조).

〈表 V-20〉 老人의 年齡別 婚姻狀態

(단위: %)

구분	유 배 우				사 별			
	1970	1980	1990	1995	1970	1980	1990	1995
전체								
60+	50.3	53.0	54.9	57.2	49.3	46.6	44.6	42.1
60-64	63.9	67.0	69.2	73.8	35.6	32.5	30.0	25.1
65-69	52.8	57.0	59.3	60.3	46.7	42.7	40.2	38.9
70-79	36.9	40.6	43.9	45.1	62.7	59.1	55.8	54.4
80+	18.5	19.0	20.8	21.8	81.3	80.8	79.0	77.8
남자								
60+	80.3	84.7	86.2	87.7	19.2	14.8	13.2	11.5
60-64	89.1	91.7	92.3	93.5	10.3	7.8	7.0	5.5
65-69	82.9	87.3	89.0	90.4	16.6	12.3	10.5	8.8
70-79	69.6	76.7	80.7	82.4	30.0	23.0	19.0	17.2
80+	45.6	52.5	59.4	62.2	54.2	46.9	40.2	37.5
여자								
60+	29.4	31.6	34.5	36.8	70.2	68.0	64.9	62.5
60-64	42.9	46.5	52.0	57.7	56.6	53.1	47.2	41.3
65-69	31.3	35.0	38.0	40.0	68.3	64.7	61.5	59.3
70-79	17.8	20.2	22.1	22.5	82.0	79.5	77.5	76.9
80+	6.5	7.7	7.6	7.0	93.2	92.0	92.2	92.6

資料: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제8권, 고령자, 1993.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表 V-21〉 60歲 以上 老人의 經濟活動參加率¹⁾ 推移

(단위: 천명, %)

연도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70	1,704	700	1,004	25.9	41.7	14.8
1980	2,543	1,023	1,520	28.3	45.1	17.0
1985	3,013	1,207	1,806	29.3	44.3	19.3
1990	3,598	1,412	2,186	35.6	49.8	26.4
1994	4,241	1,684	2,557	38.2	53.8	27.9
1995	4,145	1,657	2,488	41.9	58.4	30.9

註: 1) 경제활동참가율 =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60세 이상 인구) × 100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해당 연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1994년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노인의 취업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就業狀態에 있는 60歲 以上 老人人口의 79.9%가 계속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88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에서 나타난 77.2%보다 약간 높은 水準이었다. 이는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1984년 조사에서 34.4%의 老人이 就業을 희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就業을 希望하는 老人人口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취업상태에 있는 노인중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老人은 10.2%에 불과하며, 89.8%의 절대다수 老人은 일하는 것을 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을 願치 않는 老人중 82.7%는 일이 힘겹거나 건강이 좋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어 老人들의 就業欲求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體力·健康上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외, 1994).

〈表 V-22〉 老人의 就業欲求(1994)

구 분	(단위: %)		
	전체	시부	군부
취업노인	100.0	100.0	100.0
일을 계속하고 싶다	79.9	82.5	73.4
일을 하고 싶지 않다.	20.1	17.5	26.6
비취업노인	100.0	100.0	100.0
일을 하고 싶다.	10.2	11.6	6.8
일을 하고 싶지 않다.	89.8	88.4	93.2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1994.

다. 家族과 老人

家族은 個人과 社會의 매개체로서 한 社會의 통합뿐 아니라 個人의 社會化, 건강한 노동력의 재생산, 家族構成員의 生活保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정과 복지는 곧 社會와 國家의 安定性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國家發展과 社會的 정의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급속한 經濟成長의 過程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산업화의 영향으로 쇠퇴하는 경향에 따라 家族의 形態가 多樣化되었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女性의 社會參與가 확대되면서 가족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1) 家族意識의 變化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家族意識은 한마디로 가족주의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따르면, 家族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個人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子女를 낳아 기르거나 父母를 봉양하는 데 따르는 고생이나 經濟的 損失 등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가족으로서 해야 하는 義務라고 보았다. 이는 가족의 책임이고 의무이지 사회가 걱정을 하거나 대신 해주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產業化, 開放化, 都市化의 結果로 이러한 가족의식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個人主義化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가치는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家族形態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의 가족구조를 받아들이되 政府의 支援을 통해 家族의 機能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잡아야 하겠다.

2) 家族構造의 變化

가족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平均 家口員數는 1960년 5.6명에서 1970년 5.2명, 1980년 4.6명, 1990년 3.7명, 1995년 3.3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家族計劃事業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合計出産率이 급격히 떨어진 데 기인한다. 가족의 세대구성추이를 보면 1세대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세대가구는 소폭 증가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의 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産業化, 都市化, 少子女規範化의 영향으로 老人家口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이루어지거나 老人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老人 單獨 또는 夫婦家口는 일반가구 전체의 약 4.1%이다(통계청, 1993). <表 V-23>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노인가구에 사는 노인의 비율은 男子老人의 경우 33.9%, 女子老人의 경우 23.5%로 나타났다. 여기서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노인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한다. 여자노인 중 1人家口의 비율은 13.1%로 男子老人 中 1人家口의 비율인 3.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농촌 여자노인들이 혼자서 사는 比率은 17.9%로 매우 높은 水準이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男子老人들 중 25.4%가 老人家口에 살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42.5%의 노인들이 老人家口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家族構造의 변화로 가족의 보호기능 역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은 노인과 환자 등을 보살피는 社會保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家族의 社會保障 機能은 위기에 있는데 이는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擴大 등에 따라 가족중 보호를 담당할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家族의 老後保障機能 및 老後依存度가 동시에 약화된 시점에서 社會保障制度가 미비한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은 個別家族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表 V-23〉 家口類型別 老人家口 比率(1990)

(단위: %)

노인가구유형	전국		시부		군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가구	33.9	23.5	25.4	15.9	42.5	32.8
부부가구(1) ¹⁾	15.4	9.1	10.7	5.8	20.1	13.2
부부가구(2) ²⁾	14.4	0.2	11.3	0.1	17.6	0.3
기타친족가구 ³⁾	0.3	0.5	0.2	0.2	0.4	0.7
1인가구 ⁴⁾	3.4	13.1	2.9	9.2	4.0	17.9
비친족가구 ⁵⁾	0.4	0.6	0.3	0.5	0.4	0.7
비노인가구	66.1	76.5	74.6	84.1	57.5	67.2

註: 1)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로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

2) 부부만 사는 가구이나 부부중 한사람만 65세 이상인 가구

3) 부부가 아닌 혈연관계의 65세 이상 노인들만이 사는 가구

4) 65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

5) 혈연관계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사는 가구

資料: 통계청, 『한국의 가구 및 가족유형』, 1993.

3) 老人의 家族內 位置

老人은 그 나라의 文化와 制度의 差異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미비로 확실한 사실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養老院과 같은 施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약 8천여 명으로 전체 노인중 0.3%에 불과하고, 99.7%의 노인은 가족의 형태를 띤 가정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1990년 人口住宅總調查 결과에 의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8.3%는 혼자 살고 있고, 17.2%는 부부 모두가 노인이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老人인 夫婦家口에 살고 있으며, 72.4%는 배우자 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市部·郡部別로 보면, 2세대 이상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市部는 79.8%, 郡部는 63.6%로서 市部가 郡部보다 높으나, 老人 單獨 또는 夫婦家口(즉,

부부 모두 노인이거나 어느 한쪽이 노인인 가구)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시부는 18.1%, 군부는 34.5%로서 시부보다는 군부에서 약 2배 정도 높았다.

〈表 V-24〉 老人의 世代構成別 家族形態(1990)

(단위: %)

구분	전국	시부	군부
1세대가구	18.0	12.7	24.5
부부	17.2	11.8	23.7
기타	0.8	0.9	0.8
2세대가구	29.3	30.8	27.5
부부+미혼자녀	13.3	14.4	12.1
편부모+미혼자녀	4.6	5.6	3.4
부부+양친	0.9	0.8	1.0
부부+편부모	2.6	1.7	3.6
부부+부부의 형제자매	0.0	0.0	0.0
기타	7.9	8.4	7.4
3세대가구	41.5	47.5	34.3
부부+미혼자녀+양친	8.9	9.0	8.8
부부+미혼자녀+편부모	21.8	25.6	17.2
기타	10.8	12.9	8.3
4세대가구이상	1.6	1.5	1.8
독신가구	8.3	6.3	10.8
비혈연가구 및 기타	1.2	1.2	1.1
계	100.0	100.0	100.0

資料: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제8권, 고령자, 1993.

최근 産業化, 都市化가 진전되면서 노인단독가구, 즉 老人獨身家口와 老人夫婦家口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령화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老齡化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 및 세대간 동거의식의 변화 등과 결부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老人單獨家口가

증가되고 있는 데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에서 실시한 표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老人單獨家口가 전체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에 20.5%(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이었으나, 1994년에는 38.5%로 증가되었으며, 都市보다는 農村地域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노인들의 경우에 子女와 同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일생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하더라도 오히려 고향에 남기를 選好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老人들의 子女와의 별거를 희망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에 11.5%(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였는데, 1994년에는 46.4%로 10年 사이에 4배가 증가하였다.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령으로 장애가 되어 몸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울 때나 혹은 死別하여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낼 때 老人의 生計維持 및 병간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扶養問題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이 老後를 위한 年金이나 退職金制度가 미흡하고 자신의 저축도 노후생계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을 수용해 줄 복지시설도 미비한 경우에 있어서 家族에 의한 保護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表 V-25〉 老人單獨家口の 分布 및 子女와의 別居希望 與否

(단위: %)

연도	노인단독가구			자녀와의 별거희망 노인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1985	20.5	16.3	23.3	11.5	12.7	10.7
1994	38.5	28.7	25.7	46.4	41.3	53.1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_____,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1994.

라. 家族週期上에서 본 老人

우리 나라 家族週期的 特徵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면, ① 結婚에서부터 자녀출산완료시까지의 가족형성 및 확대기는 初婚年齡의 상승과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매우 단축되고 있으며, ② 子女出産完了以後 子女結婚이 시작될 때까지의 자녀양육 및 교육기에 해당하는 擴大完了期는 근년에 올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③ 子女結婚期인 縮小期는 1935~1944년 코호트에서는 15.5년이었으나 1975~1985년 코호트에서는 불과 2.2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까닭은 출생자녀수의 감소로 인하여 자녀의 결혼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주기상 주로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子女結婚完了以後부터 남편의 사망을 거쳐 부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縮小完了 및 解體期는 근년에 올수록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35~1944년 結婚 코호트 婦人의 경우를 들면 자녀결혼이 완료되기 이전(5.8년 전)에 남편사망을 경험하게 되므로 未亡人의 시기동안 子女結婚이 完了되며 이와 거의 동시에 부인마저 사망하게 됨으로써 家族週期는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올 수록 死亡水準이 개선되고 出生子女數가 감소됨에 따라 자녀결혼완료 이후 부부만의 긴 빈둥지(empty nest)기간과 子女와 男便 모두가 떠나간 未亡人(widowhood)으로서의 시기를 맞게 된다. 1975~1985년 결혼 코호트 부인의 경우 男便과 함께 약 15年間의 자녀없이 지내는 빈둥지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며 또한 남편사망이후 7년이라는 기간을 혼자 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은 신체적으로도 노쇠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老人人口에 대한 保健醫療서비스 뿐만 아니라 말벗, 가사지원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社會福祉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表 V-26〉 既婚母의 結婚코호트 및 住居地域別 家族週期の 段階別 期間
(단위: 년)

가족주기의 단계별 기간	결혼 코호트				
	1935~ 1944	1945~ 1954	1955~ 1964	1965~ 1974	1975~ 1985
전체기간 (결혼~본인사망)	44.5	45.7	46.2	50.5	51.8
I. 형성기 (결혼~첫자녀출생)	4.1	3.2	1.9	1.5	1.2
II. 확대기 (첫자녀출생~막내 출생)	15.5	12.6	9.1	5.0	2.2
III. 확대완료기 (막내 출생~자녀결혼시작)	9.3	12.9	17.1	21.2	24.0
IV. 축소기 (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완료)	15.5	12.6	9.1	5.0	2.2
V. 축소완료기 (자녀결혼완료~남편사망)	-5.8	-2.6	1.4	10.2	15.0
VI. 해체기 (남편사망~본인사망)	5.9	7.0	7.6	7.6	7.2

資料: 공세권 외,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마. 老人福祉政策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社會·經濟的 여건의 변화에 따른 老人福祉 需要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家族-이웃-地域社會-國家』로 이어지는 福祉共同體를 구축하여 대응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基本的인 欲求는 國家가 책임을 지되, 그 외의 욕구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家族福祉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家庭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 지기 때문이다.

둘째,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층 老人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한 소

득·보건의료 등 基礎生活를 보장하고, 勤勞能力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해 有料療養施設 등을 확충하는 한편, 여가 및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종전의 시설보호를 위주로 하는 정책보다는 가정에서의 老人保護를 위해 재가노인 福祉政策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福祉需要의 증가,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質的 改善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老人福祉 재정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民間參與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실버산업 등에 대한 복지투자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1) 低所得層 老人을 위한 基礎 所得保障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生計保護費(1996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약 80% 수준)를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1998년에는 最低生活 水準이 완전 보장되도록 한다. 아울러 老齡手當의 給與對象 및 給與水準을 확대하여, 老齡手當의 지급대상(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65세 이상 低所得 老人(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의 50% 이하)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老齡手當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交通手當을 활용한 敬老年金 制度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40개인 고령자 適合職種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고,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시 국·공립기관부터 고령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義務雇傭對象機關을 연차적으로 민간기업이나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雇傭保險 기

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현재 월 3만원/1인)을 연차적으로 最低賃金(1996년: 월 288,150원)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 健康하지 않은 老人을 위한 保健醫療 保障

현재 老人福祉法에 의거하여 65세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 健康檢診 항목(1차검사: 12개 항목, 2차 정밀검사: 30개 항목)에 위암, 간암, 폐암 등의 각종 암과 치매검사를 추가하고, 健康檢診 결과를 본인 외에 거주지역의 保健所에도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保健(支)所의 老人保健 事業을 확충하고, 아울러 保健(支)所를 지역단위의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보건 일차 진료기관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지)소의 老人保健 專門人力과 물리치료 장비 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재 老人福祉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1995년 54개소)을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종류와 機能障礙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고,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요양시설이 醫療保險 適用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法·制度를 개선한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의 양로시설을 단계적으로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4~5%로 추정되는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종합센터와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치매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豫防·診斷·治療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치매 원격진료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치매 전문의, 간호사, 간병인력, 상담원 등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保健所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豫防·治療 및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家庭에서 부양·보호가 힘들고 상시 전문

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 관리하는 전문 요양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3) 中産層 老人을 위한 社會參與 機會 擴大

노인 自願奉仕 活動을 활성화하기 위해 老人自願奉仕 保險制度和 自願奉仕 貯蓄制度를 도입하고, 환경감시원이나 교통위반 감시원 등에 노인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敎育 및 선도활동, 자연 및 문화재 보호활동 등 노인에게 적합한 自願奉仕 活動의 영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餘暇活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정(1995년 현재 28,068개소)의 증·개축비와 운영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약 4,500개소에 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가건물 노인정에 대해서는 신축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정의 건물을 정비해야 한다.

老人福祉會館(1995년 현재 39개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어로빅, 노래강습, 서예 등 생활체육이나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 그리고 기존의 老人福祉 施設과의 연계를 통해 低所得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단기보호, 교양강좌, 취미·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4) 在家 老人福祉政策의 強化

먼저, 地域單位 在家福祉 서비스 據點의 確保를 위해 현재 334개소인 在家福祉奉仕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립하여,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취학권(2,683개, 1995년)마다 1개소씩 재가서비스의 지역거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초등학교 취학권을, 일본은 중학교 취학권을 단위로 하여 지역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

한 在家福祉奉仕센터에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의 요보호 노인실태 파악, 老人 看護 및 保護·相談, 情報의 提供, 노인관련시설의 이용 수속의 대행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도시락(반찬)배달, 안부점검, 외출지원, 우애방문 등의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처럼 중학교 취학권마다 1개소씩의 지역단위 거점의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家庭奉仕員의 확보가 중요한 政策課題로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家庭奉仕員 제도를 이원화하여 가정봉사원(가사서비스와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가정간호봉사원(간병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家庭看護奉仕員은 특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者로 하되,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인력확보의 한 방안으로서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有料 家庭奉仕員 제도의 정착을 유도한다. 현재 2개소(한국노인복지회, 여성신문교육문화원)에서 유료가정봉사원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晝間 및 短期保護所의 活性化를 위해 우선적으로 晝間 및 短期保護所(현재 20개소)를 확충하고, 주간보호소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노인전용 전화(Silver Line)를 설치하여, 노인의 保健·醫療·福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과의 정보망을 구축하여 施設入所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獨身老人이 뇌졸중과 같은 응급 질환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응급구조전화 119나 129에 연결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는 老人 緊急情報시스템 運營體系를 구축한다.

5) 老人福祉財政의 擴充 및 民間參與 促進

老人福祉財政의 擴充을 위해서는 현재 國家예산의 0.1%(1996년)에 불과한 老人福祉 예산의 비중을 대폭 擴大하는 한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예산 및 國民연금 기금을 活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족한 老人福祉 財源의 擴充을 위해 경로복권의 발매, 노인복지공채 발행 등을 검토한다. 地方自治團體가 노인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國고보조금을 단위사업별로 비목없이 일괄 보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민간의 기여금 조성을 촉진하고 宗教團體나 非營利團體, 企業 등의 자발적인 노인 복지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실버산업, 在家老人福祉 事業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체나 개인의 社會福祉에 대한 기부금의 면세혜택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民間福祉 投資의 興件을 造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야스다(安田) 신탁은행의 『부동산 담보 연금식 용자』와 같이 銀行이나 保險會社 등에서 노인의 소유자산(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노인의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자산은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을 主對象으로 매월 생활자금을 용자해주고 추후 사망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용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健康情報·敎養·文化娛樂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老人專用 유선방송국의 開設을 검토한다.

3. 家口構造의 變動

家口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한다(통계청, 1992: 9). 가구는 사회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住宅需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家族의 生活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家族이란 婚姻關係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血緣集團이라고 보고있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20). 가족은 衣食住를 함께 하며 살아가는 사회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고, 父母의 子女에 대한 양육기능과 老人에 대한 부양기능 등을 수행한다. 만일 이러한 기능 등이 家族內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그 만큼 국가의 부담이 커지므로 福祉側面에서도 가족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家口는 家族이라는 개념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는 家口構造의 變動 및 家族構造를 살펴보고, 이들 가구구조의 변동이 住宅需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家口構造의 變動 實態

우리는 가구를 크게 一般家口와 集團家口로 구분한다. 集團家口는 혈연관계가 없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 시설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집단시설가구)이거나 血緣關係가 없는 6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를 말한다. 一般家口는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친구 또는 혈연 관계가 없는 가구(비혈연 5인 이하 가구),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獨身家口)로

구분하고 가구주와 그 가족의 친족관계에 따라 1세대 가구(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2세대 가구(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3세대 가구(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4세대 이상 가구(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구는 일반 가구이다(통계청, 1992: 9).

우리 나라의 家口數는 1960년 437만가구에서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 1980년에는 796만 9천가구로 그리고 1995년에는 1296만 1천가구로 증가하였다. 1960~197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2.5%, 1970~19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3.6%, 그리고 1980~1995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3.3%의 증가를 보여 1970년 이후 연평균 3%이상의 높은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율이 동 기간중 각각 연평균 2.6%, 1.7%, 1.0%의 증가를 보인 것과 비교한다면, 가구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앞지르는 매우 빠른 진행을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表 V-27〉 人口 및 家口의 年平均 增加率 比較

(단위: %)

구 분	인구	가구
1960~1970	2.6	2.5
1970~1980	1.7	3.6
1980~1995	1.0	3.3

資料: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특히 1세대 家口는 1960년 32만 6천가구에서 1995년에는 168만2천 가구로 증가하여 약 416%가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1960

년 124만 6천가구에서 점차 완만하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가장 많은 141만 8천가구에 이르렀으나 1995년에는 130만 7천가구로 감소하였다.

〈表 V-28〉 世代構成別 一般家口 및 核家族 數의 變化(1960~1995)
(단위: 천가구)

구 분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¹⁾	1995 ²⁾
전 체	4,370.6	5,576.3	7,969.2	11,354.5	12,961.1
1세대가구	325.9	376.5	658.4	1,219.7	1,682.2
2세대가구	2,798.2	3,905.7	5,457.3	7,529.1	8,142.1
3세대이상가구	1,246.1	1,294.1	1,353.7	1,418.1	1,306.9
비혈연가구	-	-	117.0	166.2	179.9
독신가구	-	-	382.7	1,021.5	1,650.0
핵가족	-	3,988.6	5,445.3	7,726.3	8,887.3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2)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1995년 전체 일반가구에 대한 세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가구 중 2세대가구가 62.8%로 가장 많고, 1세대 가구가 13.0% 그리고 獨身家口가 12.7%로 1세대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3세대 이상 가구는 10.1%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연도별 변화는 1세대가구는 1960년 7.5%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13.0%로 증가하였으나, 3세대 이상 가구는 1960년 28.5%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10.1%로 18.4%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世代構成의 變化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영향과 출산력 감소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 都市의 未婚 獨身家口의 증가, 그리고 農村의 老人獨身家口의 증가 등에 의한 것이다.

〈表 V-29〉 世代構成別 一般家口 및 核家族 比率의 變化(1960~1995)
(단위: %)

구 분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¹⁾	1995 ²⁾
1세대가구	7.5	6.8	8.3	10.7	13.0
2세대가구	64.0	70.0	68.5	66.3	62.8
3세대이상가구	28.5	23.2	17.0	12.5	10.1
비혈연가구	-	-	1.5	1.5	1.4
독신가구	-	-	4.8	9.0	12.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핵가족	-	71.5	68.3	68.1	68.6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2)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核家族은 한 家口內의 家族중 자녀가 없는 부부, 양친과 미혼자녀, 편친과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統計廳, 1992: 9). 핵가족 수는 1970년 398만 9천가구에서 1980년에는 544만 5천가구로 그리고 1995년에는 888만 7천가구로 증가하여, 1970~198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3.2%, 1980~199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3.6% 그리고 1990~1995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2.8%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71.5%에서 1980년에는 68.3% 그리고 1995년에는 68.6%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핵가족의 증가가 가구수의 증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平均家口員數는 1966년 5.4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80년에는 4.6명으로 그리고 1990년에는 3.7명으로 감소하였고 1995년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3.3명으로 감소하여 가구원수가 매우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市部와 郡部의 平均家口員數의 差異는 1966년에는 시부가 5.1명, 군부가 5.7명으로 군부가 0.6명이 더 많았으나, 1980년에는 시부는 4.4명으로, 그리고 군부는 4.7명으로 감소하여 그 차이는 0.3명으로 줄어들었고, 1990년에는 시부와 군부가 동일한 3.7명의 평균가구원수를 보였으

며, 1995년에는 시부는 3.4명으로 감소한 반면, 군부는 3.1명으로 감소하여 오히려 시부가 군부보다 0.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地域間 平均家口員數의 變化는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와 1세대가구 및 獨身家口의 증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에서의 가구원수의 감소는 젊은 연령층의 都市 移住에 따라 老人夫婦만이 남거나 獨身老人의 증가로 平均家口員數가 도시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表 V-30〉 平均 家口員 數

구분	(단위: 명)				
	1966 ¹⁾	1970 ¹⁾	1980 ¹⁾	1990 ¹⁾	1995 ²⁾
전체	5.4	5.2	4.6	3.7	3.3
시부	5.1	4.9	4.4	3.7	3.4
군부	5.7	5.5	4.7	3.7	3.1

註: 1995년 시부는 동부, 군부는 읍·면부임.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2)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이와 같은 현상은 家口員數別 構成比의 變化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60년에는 1인 家口가 2.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9.0%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12.7%로 증가하여, 1990년 보다 3.7%포인트가 높아졌고, 家口數는 165만가구로 1990년 대비 6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최근에 이룰수록 혼자 사는 家口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인 이상 家口는 1960년 63.1%에서 1980년에는 49.9%로 감소하였고, 1995년에는 17.9%로 낮아져, 1~4인 家口의 比率은 증가하는 반면 5인 이상 家口의 比率은 감소하여 가구원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家口員數의 分布는 4인 家口가 31.4%로 가장 많고, 다음은 3인 家口로 20.7%였다.

〈表 V-31〉 家口員數別 構成分布(一般家口)

(단위: %)

가구원수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¹⁾	1995 ²⁾
1인	2.8	3.7	4.8	9.0	12.7
2인	7.6	9.3	10.5	13.8	17.3
3인	11.8	12.8	14.5	19.1	20.7
4인	14.7	15.2	20.3	29.5	31.4
5인	15.9	17.2	20.0	18.9	12.4
6인	15.3	16.1	14.7	5.9	3.8
7인 이상	31.9	25.7	15.2	3.8	1.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N(천가구)	4,363	5,793	7,969	11,355	12,961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2)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家口員數의 구성분포를 地域別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5년의 경우 시부지역은 3~5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군부지역은 1~2인 家口 및 6인 以上 家口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도 이와 같은 양상에는 변화가 없으나 가구원수별 비율에는 차이를 나타내어, 郡部地域은 1~2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1985년에 비하여 1인 가구의 비율이 8.6%포인트 높아진 15.8%, 2인 가구의 비율이 12.1%포인트 높아진 25.8%로 높아졌으나, 市部地域에서는 1985년에 비하여 1인 가구의 비율이 5.0%포인트 높아진 11.8%, 2인 가구의 비율이 3.2%포인트 높아진 14.8%로 높아져 1995년 시부와 군부지역의 차이는 1인 가구가 4.0%포인트, 2인 가구가 11.0%포인트 군부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郡部地域의 家口員數가 市部地域에 비하여 빠르게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表 V-32〉 地域別 家口員數 構成分布의 變化(一般家口)

(단위: %)

가구원수	시부			군부		
	1985	1995	차	1985	1995	차
1인	6.8	11.8	5.0	7.2	15.8	8.6
2인	11.6	14.8	3.2	13.7	25.8	12.1
3인	16.8	21.1	4.3	15.9	19.1	3.2
4인	27.4	34.3	6.9	21.2	21.8	0.6
5인	20.0	12.9	-7.1	18.3	10.8	-7.5
6인	11.6	3.6	-8.0	13.8	4.3	-9.5
7인이상	5.8	1.5	-4.3	9.9	2.4	-7.5
전체	100.0	100.0	-	100.0	100.0	-
N(천가구)	6,331	10,034	3,703	3,241	2,927	-314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2)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1995年度の 65세 이상 노인층의 家口構成을 살펴보면, 노인부부만이 거주하는 1세대가구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노인 1인만이 혼자 거주하는 獨身家口가 28.7%로 나타나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가구의 60.6%를 점하여 상당수의 노인들이 子女와 同居하지 않고 老人들만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年齡別로 보다 세분화하여 보면, 年齡層이 높아질수록 2세대가구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獨身家口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老人들의 年齡이 높아질수록 扶養體系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夫婦, 양친과 미혼자녀, 편친과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核家族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子女들의 分家 등으로 인해 老人들만이 生活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獨身家口의 增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表 V-33〉 世代構成別 65歲 以上 一般家口 및 核家族數의 變化
(단위: %)

구 분	65+	65~69	70~74	75~79	80+
1세대가구	31.9	31.3	33.1	32.9	29.1
2세대가구	25.0	30.3	22.8	18.4	15.4
3세대이상가구	13.5	13.8	13.3	12.5	15.1
비혈연가구	0.9	0.6	0.8	1.1	1.7
독신가구	28.7	24.0	30.3	35.1	38.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핵가족	46.5	51.7	45.6	40.2	32.8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獨身家口는 혼자서 살림하는 家口로 1985년에서 1990년 동안과 1990년에서 1995년 동안 獨身家口의 增加 程度를 비교해 보면 1990년에서 1995년 기간중 獨身家口의 增加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즉 19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1985년에서 1990년 기간중에는 6.4%포인트가 증가하였으나, 1990년에서 1995년 기간중에는 12.4%포인트가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20~29세 연령층도 동 기간중 각각 7.0, 9.5%포인트가 증가하여 30세 미만의 증가폭이 컸으며, 그 중에도 1985~1990년 기간보다 1990~1995년 기간중의 증가폭이 더 커서 최근에 이룰수록 獨身家口의 增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0세 이상의 老人年齡層에서도 1985년에서 1990년 기간중에는 2.7%포인트가 증가하였으나, 1990년에서 1995년 기간중에는 9.9%포인트가 증가하여 1990년 이후 全年齡層에서 獨身家口의 增加가 컸으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과 70세 이상 연령층의 獨身家口 增加 현상이 두드러졌다.

〈表 V-34〉 獨身家口의 變動推移

(단위: %)

연령	1985	1990	1995
19세 이하	33.6	40.0	52.4
20~29	15.4	22.4	31.9
30~39	2.8	4.6	7.5
40~49	2.4	3.3	5.3
50~59	5.2	5.9	8.2
60~69	11.9	14.8	18.9
70세 이상	20.1	22.8	32.7
전 체	6.9	9.0	12.7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2)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平均家口員數의 減少原因의 하나인 獨身家口의 增加推移를 市部와 郡部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市部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獨身家口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30세 미만의 연령층과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獨身家口의 증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990년 41.0%에서 1995년에는 53.6%로 12.6%포인트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20~29세 연령층은 23.2%에서 33.2%로 10.0%포인트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은 70세 이상 연령층으로 18.4%에서 27.5%로 9.1%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군부의 경우는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1990년 26.5%에서 37.7%로 11.2%포인트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다음은 19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35.3%에서 45.9%로 10.6%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60~69세, 20~29세 연령층은 각각 5.9, 5.3%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시부지역에서는 29세 이하 연령층의 獨身家口 증가가 큰 반면, 군부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층의 獨身家口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表 V-35〉 地域別 獨身家口の 變動 推移

(단위: 명)

연령	1990		1995	
	시부	군부	동부	읍·면부
19세 이하	41.0	35.3	53.6	45.9
20~29	23.2	16.7	33.2	22.0
30~39	4.9	3.3	7.8	5.6
40~49	3.2	3.8	5.0	6.7
50~59	4.9	7.5	6.9	11.4
60~69	12.0	18.1	15.3	24.0
70세 이상	18.4	26.5	27.5	37.7
전 체	8.6	10.3	11.8	15.8

資料: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1992.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나. 家口構造의 變動이 住宅需要에 미치는 影響

住宅의 需要는 家口數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 나라 일반가구중 獨身家口와 非血緣家口를 제외한 가구수는 1970년 557만 6천가구에서 1980년에는 747만가구로 그리고 1995년에는 1113만 1천가구로 증가하였다. 1970~1995년 기간중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인 시기는 1975~1985년 기간중으로 연평균 3.2%의 증가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인 시기는 1990~1995년 기간중으로 연평균 1.8%의 증가를 보였다. 우리 나라 인구가 1970년 2.0%에서 1980년에는 1.6% 그리고 1990년에는 0.9%의 증가를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家口數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앞지른 빠른 증가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家口數의 增加要因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人口의 增加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家口當 世代數의 減少에 의한 결과이다. 平均家口員數는 1970년 5.2명에서 1980년에는 4.6명, 그리고 1995

년에는 3.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하여 왔다. 1970년에 비하여 평균 가구원수는 약 37%가 감소하였으며, 이 감소분이 가구증가에 영향을 미쳐 住宅需要의 增加 要因으로 작용하였다. 가구수의 증가는 1990~1995년 기간중 연평균 1.8%로 낮은 증가를 보였으나 獨身家口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2.7%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최근 가구변화의 특징이 獨身家口의 增加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獨身家口의 변화에 의한 家口數의 增加는 새로운 주택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獨身家口의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는 平均家口員數의 低下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며, 가구수는 인구증가 속도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구는 출산율의 저하로 그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되어 가지만 産業化에 따른 核家族化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獨身女性의 增加, 결혼적령인구의 성비증가에 따른 독신남성의 증가 등으로 가구수의 증가가 인구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獨身家口의 比率은 1980년 4.8%에서 1995년에는 12.7%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獨身家口의 증가는 家口員數의 減少要因으로 작용하여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는 지금까지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과거의 가구원수의 변화를 감안하여 예상한 平均家口員數를 2000년에 3.4명(고 철, 1995: 66) 내지 3.3명(김유경 외, 1994: 39)으로 보았으나 이미 1995년의 평균가구원수가 3.3명으로 빠른 저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低年齡層의 獨身家口 增加와 老齡層의 獨身家口 증가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의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는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表 V-36〉 住宅普及率¹⁾의 變化推移

(단위: 천가구, %)

연도	가구수	연평균증가율	주택수	연평균증가율	주택보급률
1970 ¹⁾	5,576	2.7	4,360	1.7	78.2
1975 ¹⁾	6,367	3.2	4,734	2.4	74.4
1980 ¹⁾	7,470	3.2	5,319	2.8	71.2
1985 ¹⁾	8,751	3.0	6,104	3.2	69.8
1990 ²⁾	10,167	1.8	7,160	5.2	70.4
1995 ²⁾	11,131		9,216		82.8

註: 1) 주택보급률=(주택수-빈집)/ [일반가구수-(독신가구+비혈연가구)] ×100
 資料: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주택센서스 보고서』, 해당 연도
 2)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表 V-37〉 地域別 住宅普及率의 變化 推移

(단위: %)

연도	전국	시부	군부
1970 ¹⁾	78.2	58.8	92.6
1975 ¹⁾	74.4	56.9	91.8
1980 ¹⁾	71.2	56.6	91.7
1985 ¹⁾	69.8	58.0	92.7
1990 ²⁾	70.4	61.1	98.1
1995 ²⁾	82.8	75.5	108.9

資料: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주택센서스 보고서』, 해당 연도
 2)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가구당 평균 사용 방수는 1985년 2.3개에서 1990년에는 2.5개로 그리고 1995년에는 3.1개로 증가하여 平均家口員數는 감소하였지만 사용 방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점차 보다 넓은 생활공간을 갖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住宅數는 1970년 436만호에서 1980년에는 531만 9천호 그리고 1995년에는 921만 6천호로 증가하여, 住宅增加率이 1970~1975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1.7%에 불과하였으나, 1990~1995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70년 11만 5천호에 불과하던 주택건설수가 1990~1995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65만 1천호(통계청, 1995: 187)에 이르는 등 주택건설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택공급규모의 변화로 住宅普及率은 1970년 78.2%에서 1985년에는 69.8%까지 감소하였으나 1995년에는 82.8%로 증가하였다.

1995년 현재 일반가구중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53.3%에 불과하고, 전세가 28.1%, 월세가 13.0% 등 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46.7%가 되었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洞部의 경우 자기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46.4%인 반면, 邑·面部地域은 77.2%가 자기집에 거주하고 있어 洞部地域의 주택난이 邑·面部에 비하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읍·면부지역의 경우 住宅普及率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22.8%에 이르는 가구가 타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가구가 다수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자기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사는 경우 전세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表 V-38〉 地域別 住宅 占有形態(1995)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자기집	53.3	46.4	77.2
전세	28.1	33.5	9.7
보증부월세	11.1	13.3	3.4
무보증월세	1.9	1.8	2.0
사글세	2.6	2.7	2.3
무상	3.0	2.3	5.4
계	100.0	100.0	100.0
N(천가구)	12,961	10,034	2,927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다. 人口學的 側面에서 본 家口의 問題

夫婦 등 1세대 家口로 이루어진 가구의 家口主의 年齡分布는 젊은 연령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크며, 지역적으로 연령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령층은 60~69세 연령층으로 23.9%였으며, 그 다음은 20~29세 연령층으로 22.3%를 나타내어 젊은층과 노년층으로 거의 양분화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洞部地域의 경우 20~29세 연령층이 3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39세 연령층으로 21.7%를 점하고 있으며, 60~69세 연령층은 17.1%였다. 반면 邑·面部 地域의 경우는 60~69세 연령층이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59세 연령층으로 25.7%를 점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82.2%를 점하여 邑面 單位에서는 老人中心의 1세대 家口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都市地域에 해당하는 洞部地域의 경우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1세대 가구가 많은 반면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邑·面部單位에서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1세대 가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젊은 층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젊은층의 부부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에는 노인들만이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夫婦와 未婚子女,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친, 부부와 편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2세대 家口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30~39세 연령층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49세 연령층으로 29.6%를 나타내었다. 地域別로 볼 때는 洞部地域의 경우 30~39세 연령층의 비율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49세 연령층으로 30.5%를 나타내고 있으며, 邑·面部 地域은 30~39세 연령층의 비율이 30.6%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49세 연령층으로 25.4%를 점하고 있으며, 50~59

세 연령층도 2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洞部地域에 비하여 邑·面部 地域의 家口主의 年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夫婦와 未婚子女 그리고 양친, 부부와 미혼자녀 그리고 편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40~49세 연령층이 28.7%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39세 연령층으로 25.7%를 접하여 2세대 가구주의 연령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세대가구처럼 洞部 地域의 가구주의 연령이 邑·面部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V-39〉 世代別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단위: %)

구분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계
1세대 가구									
전국	1.1	22.3	15.8	6.5	17.4	23.9	11.3	1.7	100.0
동부	1.5	31.7	21.7	6.5	12.7	17.1	7.6	1.2	100.0
읍면부	0.4	5.6	5.4	6.4	25.7	35.8	18.0	2.7	100.0
2세대 가구									
전국	0.1	6.0	36.9	29.6	18.9	6.8	1.5	0.2	100.0
동부	0.1	6.1	38.3	30.5	18.0	5.7	1.2	0.1	100.0
읍면부	0.1	5.3	30.6	25.4	23.3	11.6	3.2	0.5	100.0
3세대 가구									
전국	0.0	2.6	25.7	28.7	21.3	14.8	5.8	1.1	100.0
동부	0.0	2.8	27.1	29.0	20.8	14.2	5.1	1.0	100.0
읍면부	0.0	2.3	22.4	27.9	22.7	16.2	7.3	1.2	100.0
4세대 이상									
전국	-	3.8	17.5	11.3	31.7	26.6	5.9	3.2	100.0
동부	-	3.4	16.1	10.8	33.0	27.4	6.2	3.1	100.0
읍면부	-	4.4	20.0	12.3	29.6	25.2	5.2	3.3	100.0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4세대 이상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보다 높아져 50~59세의 연령층이 31.7%로 가장 높고, 60~69세 연령층은 26.6%로 가구구성의 특

성상 가구주의 연령은 고령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 볼 때는 洞部지역이 邑·面部 地域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4세대이상의 다세대 가구의 洞과 邑·面部의 비율은 64:36으로 전체가구의 洞과 邑·面部의 비율이 77:23임을 감안할 때 4세대이상가구의 비율은 洞部보다는 邑·面部가 더 높았다.

夫婦로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60~69세 연령층이 2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50~59세 연령층이 19.6%, 20~29세 연령층이 16.2%의 순이었다. 그러나 地域別로 보면 서로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都市地域에 해당하는 洞部 地域의 경우 20~29세 연령층이 23.9%, 30~39세 연령층이 22.9%로 젊은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邑·面部 地域은 60~69세 연령층이 36.5%, 50~59세 연령층이 26.1%로 노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에서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83.7%로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대부분 노인가구로서 젊은층의 부부들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表 V-40〉 夫婦家口の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단위: %)

구분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계
전국	0.1	16.2	15.7	6.8	19.6	26.9	12.8	1.9	100.0
동부	0.1	23.9	22.9	7.2	15.1	20.4	9.1	1.4	100.0
읍면부	0.0	4.8	5.1	6.4	26.1	36.5	18.3	2.8	100.0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夫婦와 未婚子女로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30~39세 연령층이 40.1%, 40~49세 연령층이 30.8%로 30~4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연령분포는 洞部和 邑·面部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邑·面部의 가구주의 연령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거의 없었다.

〈表 V-41〉 夫婦+未婚子女 家口の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단위: %)

지역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계
전국	0.0	5.7	40.1	30.8	17.7	5.0	0.7	0.0	100.0
동부	0.0	5.7	41.0	31.4	17.0	4.3	0.6	0.0	100.0
읍면부	0.0	5.6	35.7	27.8	21.3	8.0	1.5	0.1	100.0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偏父와 未婚子女로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40~49세 연령층이 3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50~59세 연령층이 30.0%인 것으로 나타나 40~50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洞部 地域의 경우 40~49세 연령층이 37.0%로 가장 높고, 다음은 50~59세 연령층으로 29.7%이다. 邑·面部 地域의 경우는 50~59세 연령층이 31.4%로 가장 높고, 40~49세 연령층은 29.1%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洞部에 비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에서 결혼이 어려운 총각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表 V-42〉 偏父+未婚子女 家口の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단위: %)

구분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계
전국	0.0	1.6	18.1	35.5	30.0	11.0	3.5	0.3	100.0
동부	0.0	1.6	18.9	37.0	29.7	9.9	2.7	0.2	100.0
읍면부	-	1.0	14.7	29.1	31.4	15.9	7.1	0.8	100.0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偏母와 未婚子女로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40~49세 연령층이 31.8%로 가장 높고, 다음은 50~59세 연령층이 28.0%, 30~39

세 연령층이 22.0%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洞部地域의 경우 40~49세 연령층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은 50~59세 연령층이 27.2%, 30~39세 연령층이 22.7%로 30대에서 50대까지 주로 분포되어 있다. 邑·面部地域의 경우는 50~59세 연령층이 31.3%로 가장 높고, 40~49세 연령층이 25.0%, 30~39세 연령층이 18.9%로 洞部地域보다는 가구주의 연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V-43〉 偏母+未婚子女 家口의 家口主의 年齡分布(1995)

(단위: %)

지역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계
전국	0.0	5.2	22.0	31.8	28.0	11.1	1.8	0.1	100.0
동부	0.1	5.2	22.7	33.3	27.2	10.0	1.4	0.1	100.0
읍면부	0.0	5.2	18.9	25.0	31.3	16.3	3.2	0.1	100.0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라. 家口構造 變動에 따른 政策課題

최근 家口構造의 變動은 다세대 대가족 형태의 구조에서 核家族化, 少家族化하는 경향이 있다.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형태에서 점차 동거하는 세대數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家口員數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獨身家口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獨身家口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獨身家口의 增加現象이 두드러지고 있다.

21世紀의 가구구조의 변화는 低出產 및 家口分化의 持續에 의한 가구원수의 감소, 獨身家口 및 1세대 가구의 증가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인 家族價値觀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인구노령화와 가족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는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인구증가를 앞지르는 가구증가는 새

로운 住宅需要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先進 低出產國家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老人에 대한 國家의 支援機能 強化

출산수준의 저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젊은층의 도시로의 이동, 老人奉養意識의 低下,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들만이 생활하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내에서의 老人扶養機能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에 대한 家庭의 扶養機能이 약화됨에 따라 國家에서의 이들 노인들에 대한 福祉支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들은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도 매우 취약하여 독자적인 생활 능력이 매우 낮다. 특히 年金制度 등 福祉機能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家庭이나 國家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家族價値觀의 정립으로 가정내에서의 부양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책의 마련과 함께 이들을 위한 所得, 保健醫療, 餘暇活用등을 위한 福祉財政의 확충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健全家庭 育成을 위한 支援

少子女化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産業化와 都市化 등에 의한 核家族化 및 少家族化는 父母奉養과 자식부양이라는 전통적인 家族制度를 점차 와해 시키고 있다. 웃어른의 奉養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점차 적어지고, 家庭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

도 축소되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家庭에서 담당하여 오던 家庭教育의 많은 부분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健全家庭의 상실은 家庭의 와해로 이어져 不健全한 사회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健康도 事後的인 治療보다는 豫防이 중요하듯 건전한 家庭을 위한 예방적 활동을 국가에서 맡아주어야 한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健全兒童 育成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방과후의 프로그램개발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家族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문제를 포괄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시설의 확대로 가정의 고민을 社會 및 國家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및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3) 家口構造의 變化에 적합한 住宅의 建設

우리나라의 家口構造는 점차 동거세대가 감소하면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취업을 위한 젊은 연령층의 都市로의 이동은 젊은 독신가구를 증가시키고, 반면 農村에서는 젊은층의 유출에 의한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형태는 가구형태의 변화에 적합한 주택으로 변모하여 가야 할 것이다. 최근 大都市地域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원룸주택은 가구의 변화를 잘 반영한 주택형태라고 할 수 있다. 農村이나 都市에서 거주하는 老人夫婦家口나 老人獨身家口의 상당수는 건강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독자적인 住宅을 갖고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적합한 住宅의 보급이 요구된다. 실버타운의 건설이나 老人療養施設의 확충, 賃貸住宅建設의 활성화, 多世代 同居住宅의 건설에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은 물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및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VI. 結論

新人口推計에 의하면 21世紀 初盤 우리 나라의 人口動態要因 變化樣相은 우선 人口規模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出生率은 人口代置水準보다 낮은 1.7~1.8명(合計出生率) 水準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平均壽命은 1995년 73.5세(남자 69.6세, 여자 77.4세)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79.0세(남자 75.4세, 여자 82.5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人口規模는 1995년 4509만 3천명에서 2008년에는 5천만명을 넘어선 5006만 6천명에 이르고 2028년에는 최고수준인 5277만 6천명에 이룬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人口代置水準에 도달한 1984年 以後 44년만인 2028년에 人口增加率이 0%가 되고 以後에는 人口가 減少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1991년에 추계된 장래추계인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증가율 0% 도달시기가 2021년에서 7년이 늦추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최대 인구규모가 219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구조는 低出生의 영향으로 幼少年人口 比率이 감소하고 老年人口 比率이 증가하여 빠르게 老齡化되어갈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노년 인구 비율은 1995년 5.9%에서 2000년에는 7.1%로 증가하여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2022년에는 14.3%에 이르러 老齡社會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수준은 先進 低出生國家에서 경험하였던 人口變動보다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인구변화는 선진국에서 人口轉換過程에서 경험하였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人口構造的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人口의 老齡化, 노동력 수급, 노

인복지부담의 가중, 結婚適齡人口의 性比 不均衡과 같은 문제는 다른 저출산국가 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높다. 인구변동에 따른 영향과 그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低出産의 持續에 따른 影響

低出産水準의 지속으로 人口構造는 유소년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점차 老齡化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老年人口 比率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부담이 증가하고, 生産年齡人口의 증가율의 둔화로 인력난이 우려되며,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可妊女性人口의 감소는 出生數의 減少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生産年齡人口(15~64세)는 1995년 3190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3645만명에 이르지만 그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生産年齡人口 增加率이 1990~2000년 기간중에는 年平均 1.3%이나 2010~2020년에는 年平均 0.3%로 둔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비교적 풍족한 勞動資源의 提供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0~2010년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業種의 人力難 加重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老年人口 比率이 1995년 5.9%에서 2010년에는 9.9%로 그리고 2030년에는 19.3%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老人扶養比는 1995년 8.3에서 2010년에는 14.2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29.8까지 증가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노인층은 肉體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연령층으로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都市化와 産

業化의 영향으로 가족구조에 변화를 초래하여 老人 扶養機能이 약화되어 가족내에서의 노인부양비율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出生兒數에 영향을 미치는 可妊女性(15~49세) 人口規模는 2000년에는 1340만 3천명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출산중 약 95%(1994년 출산기준)를 점하고 있는 20~34세 연령층은 이 보다 빠른 1993년 637만 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出生率과 감소하는 可妊女性 人口規模로 인해 동일한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면 出生兒數의 規模는 1993년 이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까지 人口增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學齡人口(6~21세)는 지속되는 낮은 출산수준으로 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學校級別 감소시기는 초등학교는 1970년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980년 이후, 대학교는 1990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學齡人口의 減少는 학교환경의 변화와 함께 입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들어가던 대학교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개방화로 인해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수준의 지속에 따른 대책으로 女性人力 및 老人人力을 活用하기 위한 기혼여성 취업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정년연장 및 재취업, 고령자 의무고용실시, 고령자를 위한 영농 재교육, 고령자 공동작업장 설치, 고급인력 활용 등과 같은 제도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들을 위하여 低所得層을 위한 기초 所得保障,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보장, 中產層 老人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在家 老人福祉政策 強化,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및 민간참여 촉진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結婚適齡人口의 性比 不均衡

결혼적령인구의 性比 不均衡은 2010년에 가장 심화되어 123.4명(여성 100명당 남성수)에 달하여 심각한 社會的인 問題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結婚觀의 變化에 따른 독신남성의 증가, 성관련 범죄의 증가, 동성애의 증가, 성관련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비의 불균형 원인은 出生性比의 不均衡과 人口構造를 왜곡시키는 급격한 出生率 變化나 可妊年齡層人口의 變化의 영향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특히 2010년에 나타나는 결혼적령인구의 성비 불균형은 1980년 중반이후 나타난 出生時 性比의 不均衡과 1980년 2.7명에서 1987년 1.6명으로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에 태어난 남성과 여성으로 結婚對象 女性年齡層의 出生規模가 낮은데서 오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은 결혼연령의 변화 등에 의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結婚適齡人口의 性比不均衡은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상출생성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995년의 출생성비가 113.4명으로 1994년의 115.5명에 비하여 다소 낮아져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고, 將來人口推計에서도 출생성비는 점차 낮아져 2015년경에는 정상출생성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男兒選好와 胎兒의 性鑑別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홍보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男兒選好觀을 拂拭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이 계속 강화되어야 하고, 胎兒의 性鑑別을 위한 의료행위는 의료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意識改革運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胎兒 性鑑別에 따른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 母子保健法에도 胎兒의 性鑑別을 위한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3. 初婚年齡의 上昇 및 離婚率의 增加

初婚年齡은 教育水準의 向上, 취업의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에는 남자가 28.4세 여자가 25.3세로 높아졌다(통계청, 1996). 우리 나라 出産의 대부분이 結婚 以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平均初産年齡도 함께 증가하여 1980년 24.4세에서 1994년에는 25.9세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初婚年齡의 增加는 유배우율의 저하와 초산연령의 증가로 이어져 出産率의 低下 要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초혼연령의 증가는 향후에도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여성의 취업증대로 인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有配偶率의 低下와 初産年齡의 增加도 지속되어 출산율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産業化와 都市化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서구문화의 유입 등으로 이혼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이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離婚은 再結合 前까지 家族의 瓦解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원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結혼가정중 이혼에 의한 結혼가정은 1984년 6%에서 1994년에는 20%로 증가(공세권 외, 1995: 121)하여 이혼으로 인한 結혼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서구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結혼가정의 子女들이 放課後 安定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학교권에서의 保護機能이 強化와 함께 가족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 그리고 개인중심적 사고방식을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정책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獨身家口의 增加 및 家口員 數의 減少

出生率의 減少,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젊은 연령층의 都市 流入 增加 등은 家口形態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獨身家口를 증가시키고, 家口員數가 減少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獨身家口의 增加가 빠르게 지속됨에 따라 平均家口員數의 減少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저출산의 지속 및 가구의 분화는 지속되어 獨身家口의 增加 및 家口員數의 減少는 지속될 것이다.

獨身家口 특히 老人獨身家口의 增加에 따른 대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經濟的·肉體의 어려움이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保健 및 福祉側面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구분화에 따라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웃어른에 대한 禮節 教育도 社會 教育을 통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獨身家口의 증가 및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는 추가적인 주택수요를 유발하게 되므로 住宅供給을 확대하되 가구규모 변화에 따른 적합한 規模 및 構造의 住宅供給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원룸주택은 그 하나의 예이며, 더 나아가 대상층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低出生率의 持續에 따른 家族計劃事業의 推進方向

우리 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은 出生率이 人口代置水準 以下の 낮은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避妊普及의 量的 擴大에서 質的 事業으로 전환하여 人口資質 向上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간 약 35만건(1993: 유배우부인)에 이르는 人工妊娠中絶이 행해지고 있으며, 靑少年의 性問題도 우리가 해결해나가야할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계획사업은 人工妊娠中絶, 靑少年 性問題 그리고 性比不均衡과 같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둔 사업추진 및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無料 避妊普及은 중산층 이상의 피임서비스는 선진국과 같이 자율에 맡기되 벽오지주민 및 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 피임보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人口資質 向上을 위하여 내년부터 실시되는 全出生兒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실시와 함께 보건소에 유전상담 크리닉을 설치하여 보다 폭넓게 障礙兒의 發生豫防을 위한 母子保健事業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人口政策은 低出産 水準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1980年代 後半부터 人口의 量的增加 抑制에서 質的 向上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인구정책은 人口規模 및 人口構造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요구되므로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長期的으로 人口를 展望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996. 6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新人口政策은 출산수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人口資質과 福祉增進에 역점을 정책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지난 35년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家族計劃事業은 그간 출산억제를 통한 인구목표의 달성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의 삶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본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인구 목표달성만으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參考文獻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증가율 1% 달성의 의미와 전망』, 1989, p.10.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p.91~94.
- 공세권·조애저·김승권·손성희,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p.202.
- 공세권·박인화·조애저·김진숙·장현섭,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공세권·조애저·허미영, 『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수춘·임종권·서미경·오경석,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유경·조대회,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14.
- 김일현·최봉호·이삼식, 『남아선호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 『보건사회논집』, 제10권 제1호, 1990.
- 김정자,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7.
- 김 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Ⅱ)』,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1993.
- _____, 『여성과 취업』, 1994.
- 문현상·장영식·김유경, 『출산율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박영범·로저뵈닝·마늘로 아벨라, 『외국의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6.
- 변용찬,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996.
- 서병숙·신경주·이인자·이정득·이효지·임정빈·장유경, 『인간과 가정』, 동명사, 1986.
- 윤종주,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고찰』,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이재열,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 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제19권 제1호, 1996.
- 이홍탁, 『인구학』, 법문사, 1994, p.481.
- 정우진,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인력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조남훈·홍문식·이상영,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최성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2. 12. p.9~10.
- _____,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제8권. 고령자, 1993.
- _____, 『1991년 생명표』, 1993.11.
- _____, 『고용구조 통계조사보고서』, 1993.
-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6.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1971, 1987, 1994, 1996.
- _____, 『장래인구추계』, 1996.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1996.
-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족학』, 하우, 1993.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9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업: 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1996.
- 한국여성개발원, 『21세기와 여성』, 『1993년 학술세미나 보고서』, 199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1994.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 _____,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 홍문식·이상영·장영식·오영희·계훈방, 『1994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홍문식·이임진·이상영, 『인공임신중절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Freedman, R.,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Current Sociology*, 10-11(2), 1961.
- Greene, W. H., *Econometric Analysis*, second editon, New York, Macmillan, 1993.
- Sheps, M. C., "Effects of Family Size and Sex Ratio of Preference Regarding the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17, 1963.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New York, 1995.
- 日本統計協會, 『國民健康の動向』, 1989.

附 録

年 齡 階 級 及 性 別 推 計 人 口
(1995～2030年)

〈附表 1〉 1995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1995		
	계	남자	여자
0~4	3,545,704	1,893,876	1,651,828
5~9	3,166,753	1,664,291	1,502,462
10~14	3,824,371	1,978,698	1,845,673
15~19	3,896,948	2,010,189	1,886,759
20~24	4,391,626	2,259,595	2,132,031
25~29	4,300,710	2,210,162	2,090,548
30~34	4,296,721	2,204,571	2,092,150
35~39	4,092,051	2,095,913	1,996,138
40~44	2,995,391	1,527,547	1,467,844
45~49	2,418,904	1,225,938	1,192,966
50~54	2,090,711	1,045,400	1,045,311
55~59	1,927,926	932,110	995,816
60~64	1,488,523	670,698	817,825
65~69	1,048,214	424,965	623,249
70~74	766,793	297,065	469,728
75~79	459,426	162,677	296,749
80+	382,219	101,638	280,585
전체	45,092,991	22,705,329	22,387,662
0~14	10,536,828	5,536,865	4,999,963
15~64	31,899,511	16,182,123	15,717,388
65+	2,656,652	986,341	1,670,31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附表 2〉 1996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1996		
	계	남자	여자
0~4	3,583,655	1,914,597	1,669,058
5~9	3,202,788	1,690,052	1,512,736
10~14	3,623,642	1,878,500	1,745,142
15~19	3,941,703	2,032,350	1,909,353
20~24	4,251,442	2,188,277	2,063,165
25~29	4,377,772	2,249,040	2,128,732
30~34	4,233,183	2,170,964	2,062,219
35~39	4,215,057	2,159,159	2,055,898
40~44	3,220,799	1,641,751	1,579,048
45~49	2,487,825	1,259,883	1,227,942
50~54	2,085,742	1,045,187	1,040,555
55~59	1,974,173	958,229	1,015,944
60~64	1,571,935	718,803	853,132
65~69	1,098,058	447,602	650,456
70~74	790,073	304,749	485,324
75~79	483,266	171,739	311,527
80+	404,169	108,614	295,555
전체	45,545,282	22,939,496	22,605,786
0~14	10,410,085	5,483,149	4,926,936
15~64	32,359,631	16,423,643	15,935,988
65+	2,775,566	1,032,704	1,742,862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3〉 1997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1997		
	계	남자	여자
0~4	3,591,874	1,917,875	1,673,999
5~9	3,280,518	1,738,626	1,541,892
10~14	3,419,184	1,776,567	1,642,617
15~19	4,000,505	2,062,156	1,938,349
20~24	4,095,952	2,109,026	1,986,926
25~29	4,448,580	2,284,301	2,164,279
30~34	4,182,791	2,144,805	2,037,986
35~39	4,297,387	2,201,220	2,096,167
40~44	3,434,179	1,749,617	1,684,562
45~49	2,551,864	1,291,705	1,260,159
50~54	2,114,988	1,060,898	1,054,090
55~59	2,019,207	983,893	1,035,314
60~64	1,645,954	761,924	884,021
65~69	1,157,760	477,193	680,567
70~74	812,366	312,041	500,325
75~79	513,866	183,117	330,749
80+	424,291	115,113	309,178
전체	45,991,257	23,170,077	22,821,180
0~14	10,291,576	5,433,068	4,858,508
15~64	32,791,398	16,649,545	16,141,853
65+	2,908,283	1,087,464	1,820,819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4〉 1998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1998		
	계	남자	여자
0~4	3,586,233	1,912,198	1,674,035
5~9	3,371,576	1,793,631	1,577,945
10~14	3,258,915	1,698,123	1,560,792
15~19	4,019,521	2,072,338	1,947,183
20~24	3,957,623	2,038,675	1,918,948
25~29	4,476,380	2,297,495	2,178,885
30~34	4,166,438	2,136,522	2,029,916
35~39	4,327,616	2,216,075	2,111,541
40~44	3,654,693	1,861,265	1,793,428
45~49	2,623,296	1,327,758	1,295,538
50~54	2,183,169	1,095,202	1,087,967
55~59	2,037,304	995,805	1,041,499
60~64	1,716,416	801,970	914,446
65~69	1,220,792	511,383	709,409
70~74	838,044	320,688	517,356
75~79	551,525	196,636	354,889
80+	440,276	120,673	319,603
전체	46,429,817	23,396,437	23,033,380
0~14	10,216,724	5,403,952	4,812,772
15~64	33,162,456	16,843,105	16,319,351
65+	3,050,637	1,149,380	1,901,257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5〉 1999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1999		
	계	남자	여자
0~4	3,575,278	1,902,880	1,672,398
5~9	3,457,246	1,843,318	1,613,928
10~14	3,170,122	1,658,058	1,512,064
15~19	3,952,962	2,039,837	1,913,125
20~24	3,872,302	1,994,838	1,877,464
25~29	4,439,870	2,278,463	2,161,407
30~34	4,195,135	2,151,381	2,043,754
35~39	4,305,071	2,203,409	2,101,662
40~44	3,867,116	1,969,305	1,897,811
45~49	2,743,193	1,388,563	1,354,630
50~54	2,271,865	1,139,369	1,132,496
55~59	2,026,666	993,442	1,033,224
60~64	1,777,542	835,781	941,761
65~69	1,288,227	549,836	738,391
70~74	871,565	332,820	538,745
75~79	587,518	209,333	378,185
80+	456,785	126,638	330,147
전체	46,858,463	23,617,271	23,241,192
0~14	10,202,646	5,404,256	4,798,390
15~64	33,451,722	16,994,388	16,457,334
65+	3,204,095	1,218,627	1,985,468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6〉 2000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2000		
	계	남자	여자
0~4	3,559,715	1,891,076	1,668,639
5~9	3,524,706	1,881,364	1,643,342
10~14	3,148,392	1,653,417	1,494,975
15~19	3,801,146	1,964,463	1,836,683
20~24	3,860,688	1,987,997	1,872,691
25~29	4,343,557	2,229,704	2,113,853
30~34	4,256,504	2,182,778	2,073,726
35~39	4,249,315	2,173,649	2,075,666
40~44	4,033,602	2,054,502	1,979,100
45~49	2,939,019	1,487,670	1,451,349
50~54	2,354,727	1,180,292	1,174,435
55~59	2,009,360	987,935	1,021,425
60~64	1,823,244	861,132	962,112
65~69	1,366,194	593,714	772,480
70~74	910,950	348,627	562,323
75~79	613,885	218,435	395,450
80+	479,539	134,561	344,978
전체	47,274,543	23,831,316	23,443,227
0~14	10,232,813	5,425,857	4,806,956
15~64	33,671,162	17,110,122	16,561,040
65+	3,370,568	1,295,337	2,075,231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7〉 2005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2005		
	계	남자	여자
0~4	3,374,437	1,778,497	1,595,940
5~9	3,539,637	1,879,118	1,660,519
10~14	3,506,790	1,870,785	1,636,005
15~19	3,127,868	1,640,902	1,486,966
20~24	3,767,368	1,943,838	1,823,530
25~29	3,817,942	1,961,856	1,856,086
30~34	4,302,796	2,204,874	2,097,922
35~39	4,214,697	2,156,090	2,058,607
40~44	4,195,927	2,135,971	2,059,956
45~49	3,969,861	2,009,247	1,960,614
50~54	2,871,792	1,439,765	1,432,027
55~59	2,272,660	1,121,858	1,150,802
60~64	1,908,692	918,922	989,770
65~69	1,681,917	769,522	912,395
70~74	1,197,712	496,712	701,000
75~79	739,282	263,239	476,043
80+	634,008	187,192	446,816
전체	49,123,386	24,778,388	24,344,998
0~14	10,420,864	5,528,400	4,892,464
15~64	34,449,603	17,533,323	16,916,280
65+	4,252,919	1,716,665	2,536,254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8〉 2010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2010		
	계	남자	여자
0~4	3,201,722	1,673,836	1,527,886
5~9	3,355,643	1,767,306	1,588,337
10~14	3,522,584	1,869,086	1,653,498
15~19	3,486,747	1,858,538	1,628,209
20~24	3,097,642	1,622,763	1,474,879
25~29	3,727,156	1,919,559	1,807,597
30~34	3,782,841	1,941,187	1,841,654
35~39	4,264,468	2,180,862	2,083,606
40~44	4,167,709	2,123,529	2,044,180
45~49	4,137,384	2,095,099	2,042,285
50~54	3,890,245	1,952,812	1,937,433
55~59	2,782,677	1,376,688	1,405,989
60~64	2,168,788	1,050,644	1,118,144
65~69	1,768,302	827,133	941,169
70~74	1,482,104	650,514	831,590
75~79	978,728	382,555	596,173
80+	803,012	244,381	558,631
전체	50,617,752	25,536,492	25,081,260
0~14	10,079,949	5,310,228	4,769,721
15~64	35,505,657	18,121,681	17,383,976
65+	5,032,146	2,104,583	2,927,563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9〉 2015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2015		
	계	남자	여자
0~4	2,992,124	1,551,367	1,440,757
5~9	3,183,806	1,663,159	1,520,647
10~14	3,339,351	1,757,758	1,581,593
15~19	3,503,436	1,857,491	1,645,945
20~24	3,457,051	1,840,769	1,616,282
25~29	3,061,250	1,601,337	1,459,913
30~34	3,694,813	1,901,005	1,793,808
35~39	3,751,276	1,922,395	1,828,881
40~44	4,222,461	2,152,455	2,070,006
45~49	4,116,539	2,088,697	2,027,842
50~54	4,062,553	2,042,970	2,019,583
55~59	3,781,024	1,876,295	1,904,729
60~64	2,665,161	1,296,305	1,368,856
65~69	2,017,890	951,290	1,066,600
70~74	1,563,146	703,106	860,040
75~79	1,214,880	505,701	709,179
80+	1,050,545	349,269	701,276
전체	51,677,306	26,061,369	25,615,937
0~14	9,515,281	4,972,284	4,542,997
15~64	36,315,564	18,579,719	17,735,845
65+	5,846,461	2,509,366	3,337,095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10〉 2020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2020		
	계	남자	여자
0~4	2,869,928	1,481,683	1,388,245
5~9	2,974,910	1,541,135	1,433,775
10~14	3,168,026	1,653,960	1,514,066
15~19	3,321,056	1,746,833	1,574,223
20~24	3,474,901	1,840,667	1,634,234
25~29	3,421,214	1,819,768	1,601,446
30~34	3,033,279	1,585,928	1,447,351
35~39	3,666,571	1,884,922	1,781,649
40~44	3,717,645	1,900,704	1,816,941
45~49	4,175,805	2,121,478	2,054,327
50~54	4,050,017	2,043,425	2,006,592
55~59	3,957,301	1,970,429	1,986,872
60~64	3,628,405	1,771,781	1,856,624
65~69	2,486,783	1,177,946	1,308,837
70~74	1,792,308	813,761	978,547
75~79	1,284,705	550,185	734,520
80+	1,335,473	479,449	856,024
전체	52,358,327	26,384,054	25,974,273
0~14	9,012,864	4,676,778	4,336,086
15~64	36,446,194	18,685,935	17,760,259
65+	6,899,269	3,021,341	3,877,928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11〉 2025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2025		
	계	남자	여자
0~4	2,820,588	1,456,184	1,364,404
5~9	2,853,089	1,471,645	1,381,444
10~14	2,959,518	1,532,180	1,427,338
15~19	3,150,317	1,643,466	1,506,851
20~24	3,293,606	1,730,899	1,562,707
25~29	3,440,132	1,820,574	1,619,558
30~34	3,393,503	1,804,566	1,588,937
35~39	3,009,833	1,573,497	1,436,336
40~44	3,636,345	1,866,191	1,770,154
45~49	3,678,783	1,875,575	1,803,208
50~54	4,112,135	2,078,799	2,033,336
55~59	3,951,610	1,976,302	1,975,308
60~64	3,799,161	1,861,575	1,937,586
65~69	3,385,294	1,608,654	1,776,640
70~74	2,213,701	1,009,760	1,203,941
75~79	1,480,058	641,130	838,928
80+	1,534,062	576,256	957,806
전체	52,711,735	26,527,253	26,184,482
0~14	8,633,195	4,460,009	4,173,186
15~64	35,465,425	18,231,444	17,233,981
65+	8,613,115	3,835,800	4,777,315

자료: <부표 1>과 동일

〈附表 12〉 2030年 年齡階級 및 性別 推計人口

(단위: 명)

연령	2030		
	계	남자	여자
0~4	2,806,647	1,448,969	1,357,678
5~9	2,803,934	1,446,217	1,357,717
10~14	2,837,884	1,462,762	1,375,122
15~19	2,942,245	1,521,963	1,420,282
20~24	3,123,604	1,628,081	1,495,523
25~29	3,259,810	1,711,592	1,548,218
30~34	3,413,167	1,806,009	1,607,158
35~39	3,370,019	1,792,191	1,577,828
40~44	2,985,256	1,559,055	1,426,201
45~49	3,599,950	1,843,095	1,756,855
50~54	3,624,745	1,839,605	1,785,140
55~59	4,014,209	2,011,901	2,002,308
60~64	3,797,306	1,869,216	1,928,090
65~69	3,543,166	1,688,216	1,854,950
70~74	3,013,274	1,377,496	1,635,778
75~79	1,833,803	798,790	1,035,013
80+	1,774,589	686,749	1,087,840
전체	52,743,608	26,491,907	26,251,701
0~14	8,448,465	4,357,948	4,090,517
15~64	34,130,311	17,582,708	16,547,603
65+	10,164,832	4,551,251	5,613,581

자료: <부표 1>과 동일

題目：新人口推計에 의한 人口規模 및 構造 展望과 政策課題

〈 要 約 〉

統計廳에서 최근 발표한 1995년도 人口住宅總調查 결과에 기초한 新人口推計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人口규모는 1995년 4509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5007만명에 이르고 2028년에는 5278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룬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0년 人口住宅總調查에 의한 종래의 人口추계와 비교해 볼 때, 人口增加가 정지(0%)되는 시기는 2021년에서 7년이 늦어지고, 최대 人口규모는 219만명이 증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人口變動의 原因은 주로 人口추계시 이용된 出產率假定의 差異에 기인한 것이다. 즉 종래의 人口추계에서는 향후 合計출산율이 1.63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假定하였으나, 新人口추계에서는 최근의 出生率(1.7~1.8)을 감안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人口成長 정지시기의 지연은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급속한 人口의 老齡化를 지연시키고,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勞動力 부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 우리 나라의 人口變動의 특징은 低出產水準의 持續에 따른 人口의 老齡化, 生産年령인구의 증가율 둔화 그리고 出生性比의 不均衡, 獨身家口의 증가, 初婚年齡 및 初産年齡의 上昇, 低年령층의 미혼 비율의 증가, 離婚率의 增加, 學齡인구의 감소, 可妊女性인구의 減少 등으로 略述될 수 있다.
- 勞動力 부족 국면에 대처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女性인力の 經濟

活動 參與 增大와 老齡人口의 活用을 위하여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 시설의 확대, 고령자를 위한 정년연장과 再就業, 고령자 의무고용, 영농 재교육, 고령자 공동작업장 설치, 人才銀行을 이용한 高齡 高級人力의 活用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 및 복지에 취약한 老人人口에 대한 保健醫療서비스와 在家福祉서비스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출생성비의 정상화를 위해 性鑑別 禁止의 지속적인 처벌강화와 國民의 男兒選好觀 拂拭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각종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사회제도 및 규범의 개선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높은 避妊實踐率에도 불구하고 성행하고 있는 人工妊娠中絶의 예방을 위해 避妊實踐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터울조절 기간중의 정확한 避妊實踐 誘導, 家族計劃 및 性倫理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산업장교육의 강화, 의료인의 자율적인 자제운동전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家口形態의 變化에 따라 주택수요는 인구증가를 앞질러 증가할 것이며, 주택형태도 獨身家口에 적합한 원룸주택, 독신노인 및 노인부부에 적합한 주택 등 가구형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요구된다.
- 政府에서는 1996년 6월 안정된 人口構造를 위해 合計出產率은 人口代置水準으로 유지하고 人口資質 및 福祉增進으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新人口政策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 전환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人口政策의 전환시 일

부에서 우려하였던 出生率의 증가 조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新人口政策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人口資質 向上과 福祉增進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의 인구정책은 人工妊娠中絶의 豫防, 靑少年性問題, 外國人 勤勞者 對策, 出生時 性比不均衡 改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을 勘案한 保健福祉政策과 통합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